

7-31-2015

## 지역 교회에서의 효과적인 전도 활성화 방안: 순복음의정부교회 전 도사역을 중심으로

Joung Ho Park 박정호

Follow this and additional works at: <https://digitalcommons.fuller.edu/kadmin>



Part of the [Missions and World Christianity Commons](#)

---

### Recommended Citation

박정호, "지역 교회에서의 효과적인 전도 활성화 방안 : 순복음의정부교회 전도사역을 중심으로." 박사학위  
논문, 풀러신학대학원, 2015.

This Project is brought to you for free and open access by the Korean Studies Center at Digital Commons @ Fuller. It has been accepted for inclusion in Korean Doctor of Ministry Projects / 한인 목회학 박사 졸업 논문 by an authorized administrator of Digital Commons @ Fuller. For more information, please contact [archives@fuller.edu](mailto:archives@fuller.edu).

# Ministry Focus Paper Approval Sheet

This Ministry Focus Paper entitled

## **AN EFFECTIVE STRATEGY FOR EVANGELISM REVITALIZATION IN A LOCAL CHURCH: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FULL GOSPEL UIJEOUNGBU CHURCH**

written by

**JOUNG HO PARK**

and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has been accepted by the Faculty of Fuller Theological Seminary

upon the recommendation of the undersigned readers:

  
\_\_\_\_\_  
Sunil Kim

  
\_\_\_\_\_  
Seungkeun John Choi

  
\_\_\_\_\_  
Jin Ki Hwang

July 31, 2015

**AN EFFECTIVE STRATEGY FOR EVANGELISM  
REVITALIZATION IN A LOCAL CHURCH: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FULL GOSPEL UIJEOUNGBU CHURCH**

**MINISTRY FOCUS PAPER**

SUBMITTED TO THE FACULTY OF THE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BY

**JOUNG HO PARK**

JLUY 2015

지역 교회에서의 효과적인 전도 활성화 방안  
- 순복음의정부교회 전도사역을 중심으로 -

이 논문을 풀러 신학교  
목회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지도 김 선 일 교수

박 정 호

2015년 7월

## Abstract

An Effective Strategy for Evangelism Revitalization in a Local Church: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Full Gospel Uijeongbu Church

Joung Ho Park

Doctor of Ministry

2015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In order to overcome the Korean church's crisis of the decreasing number of Christians in Korea, Korean churches need to evangelize in ways relevant to contemporary people. This ministry focus paper presents an effective strategy for revitalizing evangelism in local churches.

This ministry focus paper consists of six chapters. Following the introductory chapter, chapter 2 explores the definition and proper purposes and motives of evangelism by surveying biblical and theological concepts of evangelism. This chapter then discusses various evangelistic methods in Christian history.

Chapter 3 examines the evangelism ministries of three local churches in Korea: the Juan Presbyterian Church's "Full Mobilization Evangelism," the Wangsung Church's "Unborn Christian Evangelism," and the Sarang Church's "Great Awakening Evangelism Rally." After describing the histories, messages proclaimed, methods, and results of those churches' evangelistic ministries, this chapter determines their strengths and weaknesses and assesses whether those ministries are dependent on the Holy Spirit.

Chapter 4 describes the history, background, vision, and current state of the Full Gospel Uijeongbu Church and scrutinizes the church's major ministries such

as various worship services, training programs for lay people, intercessory prayer meetings, and programs for newcomers. Especially, this chapter examines the Full Gospel Uijeongbu Church's existing ministry of evangelism and identifies the ministry's strengths and weaknesses. Chapter 5 presents an effective strategy for revitalizing the Full Gospel Uijeongbu Church's evangelism ministry. This strategy emphasizes the method called relationship-centered evangelism. Thus, it requires well-equipped lay leaders, small groups, and community service. This chapter shows how the church is training lay leaders, organizing small groups, and serving people outside of the church. Chapter 6 concludes this ministry focus paper by summarizing the study.

Theological Mentors: Sun Il Kim, Ph. D.

Seungkeun John Choi, Ph. D.

Jin Ki Hwang, Ph. D.

## 감사의 글

본 연구는 연구자의 개인적인 배경과 현재 섬기고 있는 교회의 상황 그리고 필자가 순복음의정부교회에 부임한 후 겪은 지난 8년여 동안의 사역들을 평가하고 분석해 봄으로써 순복음의정부교회를 어떻게 하면 전도중심적인 교회로 만들 수 있는지를 고찰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본 논문을 쓰면서 많은 통찰력을 얻게 되었으나, 큰 기대를 갖고 연구를 시작했던 것과는 다르게 생각한 것들을 다 연구하고 기록하는데 많은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절실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주님의 지상명령인 영혼 살리는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본 연구자와 함께 수고한 순복음의정부교회 교역자들과 30여명의 장로님들을 비롯한 1500여명의 제직들, 그리고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살리는 일을 위해 일선에서 헌신해준 여러 성도님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또한, 부모님이신 순복음의정부교회 당회장 박종선 목사와 김정숙 사모의 23년여 동안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적인 사역에도 깊이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본 연구를 통해 전도활성화 방안으로 제시된 지역전도축제 전도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순복음의정부교회 가운데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지속적으로 불타오르기를 바라고 본 전도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이 땅 가운데 왕성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본인의 논문을 지도해 주신 김선일 교수와 여러 달 동안 뒤에서 고생하며 본인이 논문을 쓰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 준 사랑하는 아내 고은경 사모와 자녀인 주희, 성훈, 그리고 하희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2015년 7월

## 목 차

제 1 장 서론 .....	1
제 1 절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	1
제 2 절 연구방법과 범위 .....	2
제 2 장 전도에 대한 이론적 탐구 .....	4
제 1 절 전도의 성경적 이해 .....	4
제 2 절 전도의 신학적 이해 .....	6
1. 전도의 정의 .....	6
2. 전도의 다양한 목적과 동기 .....	7
3. 전도의 다양한 방법 .....	8
4. 새로운 시대에 맞게 일하시는 하나님 .....	9
5. 전도의 원동력 .....	10
제 3절 전도방법의 다양성 .....	11
1. 성경에 나온 전도방법들 .....	12
2. 대중전도방법 .....	13
3. 양육전도방법 .....	14
4. 20세기와 21세기의 전도방법들 .....	19
5. 새로운 전도방법의 대안 .....	20
제 3 장 한국교회에서의 전도 .....	22
제 1 절 한국교회의 전도방법의 변천 .....	22
1. 한국교회의 전도방법의 태동 .....	22
제 2 절 한국교회에서 진행되어진 전도방법들 .....	24
1. 전도폭발훈련 .....	24
가. 전도폭발훈련의 목적 .....	24



나. 전도폭발훈련의 장점과 단점 .....	25
2. 그 외 기타 전도방법들 .....	26
가. 축호전도방법 .....	26
나. 이슬비전도방법 .....	27
다. 사영리 전도방법 .....	27
제 3 절 전도를 통해 성장한 지역교회의 전도방법의 사례연구 .....	29
1. 주안장로교회 - 총동원전도의 전도방법 .....	29
가. 총동원전도의 역사 .....	30
나. 총동원전도에서의 복음 .....	31
다. 총동원전도의 전도방법 .....	32
라. 총동원전도에 있어서의 사후 관리 .....	36
마. 성령에 의지한 방법인가? .....	37
바. 총동원전도의 전도방법에 대한 분석 및 평가 .....	38
2 왕성교회의 태신자 전도방법 .....	39
가. 태신자 전도축제에서의 복음 .....	39
나. 태신자 전도방법 .....	40
다. 태신자 전도방법의 후속조치 .....	43
라. 성령에 의지한 방법인가? .....	44
마. 태신자 전도방법에 대한 분석 및 평가 .....	45
3 사랑의교회의 대각성전도집회의 전도방법 .....	46
가. 대각성전도집회란 무엇인가? .....	46
나. 대각성전도집회 전도방법에서의 복음 .....	48
다. 대각성전도집회의 진행방법 .....	50
라. 대각성전도집회의 후속조치 .....	51
마. 성령에 의한 방법인가? .....	52
바. 대각성전도집회의 전도방법에 대한 분석 및 평가 .....	53
제 4 장 순복음의정부교회 지역상황 및 목회 현황 .....	55

제 1 절 순복음의정부교회의 역사와 지역 환경 .....	55
1. 순복음의정부교회의 역사 .....	55
2. 순복음의정부교회의 지역적 특성 .....	56
3. 의정부 지역에 대한 교육, 문화 및 지역 환경 .....	58
제 2 절 순복음의정부교회의 현황 .....	58
1. 순복음의정부교회의 역사 및 현황 .....	59
2. 순복음의정부교회의 목회철학과 비전 .....	60
3. 순복음의정부교회의 주요사역들 .....	61
가. 새벽기도회 .....	62
나. 금요철야 및 주일 예배 .....	63
다. 평신도 사역자(지역장 훈련) .....	64
라. 중보기도 사역 .....	64
마. 새가족실 및 바나바사역 .....	65
바. 리더들 모임(목회협력 위원회) .....	67
제 3 절 순복음의정부교회의 전도전략 .....	68
1. 순복음의정부교회 내 전도축제의 역사 .....	68
2. 해피데이 전도축제에서 새생명전도축제로의 역사 .....	69
3. 새생명전도축제의 준비 및 진행 .....	70
제 4 절 새생명전도축제 이후의 후속조치 .....	72
1. 새가족실 구성 .....	72
2. 새가족실의 업무 .....	73
3. 바나바 사역 .....	73
제 5 절 새생명전도축제 관련 통계 및 분석 .....	74
제 5 장 순복음의정부교회에서의 전도활성화 방안 .....	76
제 1 절 21세기를 위한 전도의 대안 .....	76
1. 변화된 한국의 상황 .....	76
2. 대중의 변화된 의식구조 .....	77

제 2 절 관계 중심형 전도방법 .....	78
1. 관계의 중요성 .....	78
2.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	79
제 3 절 새생명전도축제의 문제점 .....	80
1. 재정의 문제 .....	80
2. 전체 성도의 낮은 참여도 .....	81
3.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는 문제 .....	81
제 4 절 전도활성화를 위한 실제적 대안 - 지역전도축제 프로그램 .....	82
1. 지역전도축제 프로그램의 정의 .....	82
2. 지역전도축제에서의 복음 .....	83
가. 양육전도의 필요성 .....	83
나. 후속조치에서의 복음양육 .....	83
3. 지역전도축제의 방법 .....	84
가. 지역모임에서의 전도축제 .....	84
나. “케뤼크마”를 강조하는 전도방법 .....	85
다. 사전준비 .....	86
라. 구체적인 진행방법 .....	87
마. 지역전도축제 당일 .....	90
4. 지역전도축제에서의 후속조치 .....	92
가. 관계전도를 위한 체질개선 .....	92
나. 지역장 훈련의 필요성 .....	92
다. 지속적인 관계유지의 필요성 .....	93
라. 교회와 교회에서 진행 될 새생명전도축제로의 연결 .....	94
5. 지역전도축제의 전도방법은 성령이 인도하시는 사역인가? .....	94
제 6 장 결론 .....	95
부록 .....	102

참고문헌 ..... 104

Vita ..... 107

## 제 1 장 서 론

### 제 1 절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지난 2005년 ‘한미준 한국갤럽’에서 발간한 *한국교회 미래 리포트*<sup>1)</sup>에 의하면, “한국 교회가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설문 조사에 응답한 67.0퍼센트의 성도들이 생각하기를 교회가 성장하고 있다고 대답했으며, 28.8퍼센트가 정체되고 있고 4.2퍼센트가 감소하고 있다고 설문에 대답했다. 그러나 2005년도에 조사된 통계 지표를 보면, 한국 교회는 성장 보다는 정체되고 있다고 대답한 사람이 1998년도 보다 2004년에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실제로 1998년도에 한국교회가 성장하고 있다고 71.1퍼센트의 사람들이 대답한 반면, 2004년에는 그 수가 67.0퍼센트로 1998년에 조사했을 때 보다 4.1퍼센트 감소했으며, 정체되고 있다고 대답한 사람은 1998년에 22.2퍼센트에서 2004년에 28.8퍼센트로 증가되어, 대부분의 성도들은 한국 교회가 성장보다는 정체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up>2)</sup>

그 후에 2006년도에 ‘교회성장연구소’에서 발행한 *한국교회 경쟁력 보고서*<sup>3)</sup>를 보면, 대부분의 한국교회(84%)는 구역회 성장률이 10퍼센트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시급한 개선이 요구된다고 이미 2006년에 교회성장연구소에서 강조했으며, 교회 성장률에 있어서도 소형교회에서부터 중형교회와 대형교회에 이르기까지 76.7퍼센트의 교회가 10퍼센트 미만의 성장률을 보여 한국 교회 전반에 걸쳐 성장규모가 현저히 저조해진 것을 알 수 있다.<sup>4)</sup>

1) 한미준-한국갤럽, *한국교회 미래 리포트* (서울: 두란노서원, 2005), 221.

2) Ibid., 222.

3) 교회성장연구소 교회경쟁력연구센터, *한국교회 경쟁력 보고서* (서울: 교회성장연구소, 2006), 55.

그리고 지난 2013년에 발행된 *2020-2040 한국교회 미래지도*에서 최윤식은 “한국교회, 잔치는 끝났다”는 보고와 함께 한국교회는 성장이 주춤한 것이 아니라 쇠퇴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노력하지 않으면 2050-2060년경에는 성도가 300만 명대로, 주일학교는 30-40만 명대로 줄어들 수 있다고 심각하게 진단한다.<sup>5)</sup> 그의 진단은 2005년 대한민국 정부가 시행한 인구주택조사 결과를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조사된 통계에 의한 것으로 2005년 당시 기독교인 수는 대략 870만 정도였으며 그 중에서도 대략 150-250만 명 정도를 이단으로 보았고 이는 지난 십 수 년 동안 한국교회 안에서 “1200만 기독교인, 5만 교회, 10만 주의 종”이라고 외쳐왔던 숫자와는 사뭇 다른 수치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은 2005년 ‘한미준 한국갤럽’에서 조사했을 당시 67.0퍼센트나 되는 개신교회 성도들이 향후 교회의 교인수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던 것과는 다르게 한국교회가 그동안 성장이 아닌 쇠퇴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렇게 대한민국의 교회가 교회성장에 있어서 총체적인 난국을 경험하는 가운데 본 연구자는 본 논문을 통해 어떻게 하면 다시 한 번 교회가 일어나 빛을 발하고 쇠퇴나 정체가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도의 열매를 보며 교회가 성장 할 수 있을 까를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가 담임목사로 사역하고 있는 순복음의정부교회는 2008년부터 새로운 목회전략의 일환으로 전도 프로그램인 ‘새생명전도축제’를 준비하고 계획하여 실천 및 적용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본 논문은 시대의 변화에 맞는 새로운 전도방법을 제안하여 교회와 성도의 사명인 전도 사역을 활성화 하므로 지역교회의 건강한 성장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 제 2 절 연구방법과 범위

본 연구는 주로 전도에 관한 서적이거나 연구 자료등 문서를 활용한 문헌조사 방법과 전도의 실제 현장을 방문하여 연구 조사하는 현장 조사 방법과 함께 본 연구자가 오랜 전도를 통해서 얻은 경험을 토대로 연구가 진행될 것이다.

본 논문은 총 여섯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1장 서론에서는 본 연구를 위한

4) Ibid., 55. 표 5-4, 규모별 연평균 교회 성장률 참고.

5) 최윤식, *2020-40 한국교회 미래지도* (서울: 생명의말씀사, 2013), 39.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및 연구의 방법과 범위를 제시할 것이다.

2장에서는 전도에 대한 이론적 탐구를 할 것이다. 먼저, 전도의 성경적 이해 및 전도의 신학적 이해를 도모할 것이며, 이어 전도방법의 다양성을 성경, 대중전도방법, 양육전도방법, 20세기와 21세기의 전도방법들, 그리고 새로운 전도방법의 대안으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3장에서는 한국교회에서의 전도방법의 변천 및 한국교회에서 진행되어진 전도방법들인 전도폭발훈련, 축호전도방법, 이슬비전도방법, 사영리 전도방법들의 장단점을 파악해 볼 것이다. 그리고 전도를 통해 성장한 대표적 교회인 인천주안장로교회, 왕성교회, 사랑의교회 이 세 교회를 사례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여 그 교회들의 전도방법을 분석하고 평가해 볼 것이다.

4장에서는 순복음의정부교회 지역상황 및 목회 현황을 먼저 살펴볼 것이고, 이어 순복음의정부교회의 지나온 역사와 함께 교회의 목회철학과 비전, 그리고 주요사역들을 살펴볼 것이다. 또한 본 장에서는 본 연구가 지난 8년간 목회하면서 현재까지 진행해온 새생명전도축제에 대해 분석하고 평가해 볼 것이다.

5장에서는 3장에서 분석한 세계 교회의 전도방법들을 4장에서 분석한 순복음의정부교회의 새생명전도축제와 비교하여 새로운 전도방법을 논의하므로 지역교회의 전도활성화 방안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다. 본 장에서 제시되는 새로운 전도활성화 방안은 현재 순복음의정부교회에서 진행 중인 소그룹 모임들(300여개의 지역들)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전도방법의 모델로, 본 연구자는 그것을 “지역전도축제”라고 명명하며 어떻게 지역전도축제를 교회 안에서 진행할 것인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5장에서 심층 깊게 연구하므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여 모든 것이 변해가는 시대에 순복음의정부교회에 맞는 전도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6장은 결론으로, 지금까지 앞에서 논의한 내용들을 요약정리하고, 순복음의정부교회와 지역전도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된 지역전도축제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성공적인 지역전도축제를 위한 방안들을 제안하고 본 연구를 맺는다.

## 제 2 장

### 전도에 대한 이론적 탐구

본 장에서는 ‘지역교회에서의 효과적인 전도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에 앞서, 전도에 대한 정의 및 전도의 목적을 살펴봄으로 전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또한 전도의 성경적 이해와 신학적 이해 그리고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진행되어온 여러 가지 전도방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제 1 절 전도의 성경적 이해

‘전도’라는 말은 ‘복음을 전한다’라는 말로서 ‘좋은 소식’ 혹은 ‘기쁜 소식을 전파한다’라는 뜻이다. 전도라는 말의 동사형은 신약에 종종 등장하는데 유앙겔리조(euaggelizo)라는 이 말은 본래 “기쁜 소식을 선포하다”라는 뜻으로 신약에 50회 이상 쓰이고 있으며, “복음전도에 관하여 말할 때 동사형을 쓴 것을 볼 때, 성경은 복음전도에 있어서 행동을 강조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sup>6)</sup>

그러나 레이튼 포드(Leighton Ford)가 말한 것처럼, 전도를 한 개인이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심하도록 인도하는 일”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혹은 교회라는 조직체로 새신자를 모집해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또는 “사회 구조를 복음화시키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sup>7)</sup>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복음전도에 대한 정의를 성경에서 쉽게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그 이유로 Ford는 성경에는 전도(evangelism)라는 말이 나오지 않고, 그 말이 생긴 지도 얼마 되지 않았으며 전도자(evangelist)라는 단어도 성경에 자주 나오지 않기 때문이라고

6) Leighton Ford, *커뮤니케이션 전도*, 이숙희 역 (서울: 조이선교회출판부, 1993), 16.

7) Ibid., 15.



한다.<sup>8)</sup> 우창준 또한 전도에 대한 여러 가지 접근 방법이 있다고 말한다.<sup>9)</sup> 그러므로 전도를 정의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경에 자신에 대해 말한 것을 근거로 전도는 어둠에 빛을, 목마름이 있는 곳에 생수를, 죽음이 있는 곳에 생명을 주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예수님은 자신을 “빛”이라고 했고(요1:21), “영원한 생수”라고 했고(4:14),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온 자”라고 했다(요10:10). 그러므로 전도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을 뿐 아니라, 영혼이 죄로 죽은 채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먼저 예수를 믿은 자들이 예수 없이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 가운데 있는 자들을 연결시켜 주는 일라고 할 수 있다.

특별히 마이클 그린(Michael Green)은 ‘전도’를 “하나님의 선교”로 이해한다. 그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며 구속자이시기 때문에 미션은 하나님께서 그를 배반한 백성을 되돌려 그의 사랑의 품으로 이끄시는 지고한 하나님 자신의 주도적인 일이다”<sup>10)</sup>고 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려고 그의 아들 예수를 보내셨고 예수는 죄 많은 인간을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해 죽임을 당했으며 성령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전도의 일이 사람들 사이에서 계속 일어나도록 일하시므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Ford 또한 전도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로 본다. 그에 의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도에 대해 당부하면서 “내가 세상에 나가서 나를 위해 일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순간에 예수님께서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며 너를 통해 일하겠노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라고 한다.<sup>11)</sup> 실제로 예수님은 부활 후 승천하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마28:20)고 했다.

8) Ibid., 16. Ford에 의하면 영어에 전도(evangelism) 이라는 단어가 쓰이기 시작한 때는 약 200년 전이라고 한다.

9) 우창준, *한국인의 의식구조와 복음전도* (서울: 도서출판 자은, 2007), 214. 우창준은 그의 책에서 전도에 대한 접근 방법으로 신학적, 성경적, 역사적, 설교학적, 실제적, 사회학적 접근방법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접근법에 대해 설명한다.

10) Michael Green, *잊혀진 다이내마이트*, 주상지 역 (서울: 서로사랑, 2008), 17.

11) Leighton Ford, *커뮤니케이션 전도*, 이숙희 역 (서울: 조이선교회출판부, 1993), 26.

## 제 2 절 전도의 신학적 이해

본 절에서는 전도의 정의, 전도의 다양한 목적과 동기, 전도의 다양한 방법, 새로운 시대에 맞게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도의 원동력에 대해 살펴봄으로 전도의 신학적 이해를 도모할 것이다.

### 1. 전도의 정의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인 전도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한다. 이에 대해 한국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전도학 교수인 김선일은 “전도는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구원의 일을 전하는 교회의 사명이다”<sup>12)</sup>라고 말한다. 그런데 김선일에 의하면, 존경받는 위대한 신학자들은 한결같이 신학과 전도의 나눌 수 없는 관계라고 한다. 그에 의하면 제임스 패커(J. Packer)는 “신학이 전도와 분리되면 신학은 추상적 사변적이 되며, 전도의 방법은 표류하게 될 것”이라고 했고, 전도자 찰스 어트리(C. Autrey)는 신학과 전도의 관계를 뼈와 몸의 관계로 비유하며, “전도에서 신학을 떼어놓으면 전도는 연체동물마냥 무기력해질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그리고 스코틀랜드의 신학자인 제임스 데니(J. Denny)는 “신학자들이 이 시대의 전도자가 되고, 전도자들이 이 시대의 신학자가 될 때 교회는 가장 이상적인 형태에 가까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이렇게 전도와 신학이 불가분의 관계인 이유로 김선일은 “복음 전도는 신학을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이다”고 한다.<sup>13)</sup> 그만큼 전도를 정의하는데 있어 신학과 전도가 같이 가야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마이클 그린은 “전도”를 정의 하면서 스피전 목사의 것으로 여겨지는 한 어구를 들어 복음전도를 “한 거지가 다른 거지에게 빵을 얻는 곳을 알려주는 것”<sup>14)</sup>이라고 했다. 마이클 그린은 “전도(evangelism)는 좋은 소식(good news)을 나누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면서 가장 포괄적이며 가장 넓은 찬성을 얻은 정의로 영국의 대주교 윌리엄 템플(William Temple)의 정의를 들어 “복음전도를 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여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스도를

12) 김선일, *교회를 위한 전도 가이드* (성남: 세세대, 2012), 6.

13) 김선일, “전도의 기로에서 신학에 답을 묻다,” *목회와 신학*, 2012, 11월호, 46-48.

14) Michael Green, *현대 전도학*, 박영호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서울, 1994), 17.

자신들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교회의 교제 가운데 그리스도를 그들의 왕으로 섬기게 되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전도를 정의한다.<sup>15)</sup>

이상과 같은 주장을 종합하여 1974년 스위스 로잔에서 개최된 세계 복음화 대회에서 세계적인 복음주의 신학자인 존 스토포를 위원장으로 하는 소위원회에서 전도에 대해 정의하기를,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에 따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이제는 통치하시는 주님으로서 모든 죄에 대한 용서와 자유롭게 하는 성령의 은사를 믿고 회개하는 자들 모두에게 주시고 계신다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일이다”라고 정의했다.<sup>16)</sup>

본 연구자 또한 전적으로 이것에 동의한다. 오늘날 교회와 먼저 예수를 믿은 자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되시는 “빛”이요 “영원한 생수”요 “생명”되시는 예수를 소개하므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통해 개인의 영혼이 회복되고, 가정과 사회와 나라, 그리고 온 열방이 예수께로 돌아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구원의 일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 2. 전도의 목적과 동기

그리스도인이 전도해야 하는 이유는 물론 1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난 수년 동안 교회가 정체기를 지나 쇠퇴해 왔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지상명령이기 때문이다. 교회내 성도가 진심으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하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의 계명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예수의 지상명령을 실천해야 한다.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본질적 목적이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본연의 사명이자 의무이다.

예수는 무덤에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면서 제자들에게 전도하라고 유언을 남겼고(마28:19-20), 자신이 이 땅에 온 이유도 전도하기 위해 왔다고 했고(막1:38), 전도의 중요함을 강조했기 때문이다(요4:35). 이에 대해 Michael Green은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알았고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따라 움직였다고 한다.<sup>17)</sup> 그들은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따르기 위해 고생도 기쁨으로 선택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예수

15) Ibid.

16) David Watson, 나는 복음전도를 믿는다, 박영호 역 (서울: 기독교문서 선교회, 1993), 32.

17) Michael Green, 초대교회의 전도, 김정진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4), 146.

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복음을 전하는 일”을 기쁨으로 감당해야 할 것이다. 특별히 초대교인들이 전도에 열심인 이유에 대해 Michael Green은 첫째로 사랑이라고 요약한다.<sup>18)</sup>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한 것은 그들 자신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체험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과 감격이 있을 때 기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한다. 곧 구원의 감격이 전도의 근원적 동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계속해서 Green은 말하기를 저들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하나님 때문에 그들은 전도했다고 한다.<sup>19)</sup>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도의 일을 사람들에게 성령을 보내 감당하게 하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전도를 하는 목적과 동기가 다양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이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시대마다 전도하는 방법 또한 달랐다는 것이다.

### 3. 전도의 다양한 방법

Michael Green은 현재 시대에 있어 세상 사람들은 노방전도나 축호전도의 방법을 통해 타인의 생활방식을 바꾸고 싶어 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그것을 바란다면 그것은 무례한 일이며 받아들일 수도 없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한다.<sup>20)</sup> 이에 대해 김선일은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며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예수의 명령인 전도는 교회를 배경으로 이루어지는 일로 우리의 삶 전 영역에서 이루어진다고 말하면서 교회가 공동체적인 삶을 통해 그 삶 자체가 복음의 메시지가 된다고 한다.<sup>21)</sup>

그러면서 김선일은 구약성경에서의 전도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삶이고 신약에서는 예수의 제자, 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으로 성경은 변화된 삶의 과정에 초점을 두는 것을 강조하는 반면,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전도하는 방법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더 많이 교회로 오게 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말한다. 또한, 새신자가 예수를 구주로 믿겠다는 고백을 하고 회개와 영접의 기도를 하는 결신의 의식은 회심의 한 과정일 뿐 회심의 전부는 아니라고 한다.<sup>22)</sup>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도에 있어서 다양한 전도의 목적과 동기가 있

18) Ibid., 145-146.

19) Ibid., 147.

20) Michael Green, *현대 전도학*, 11.

21) 김선일, *전도의 유산 오래된 복음의 미래* (서울: SFC 출판부, 2014), 45.

22) Ibid., 45-47.

는 것처럼 전도의 방법 또한 다양한 것을 알 수 있다.

특별히 존 피니(John Finney)는 그의 책 *새로운 전도가 온다*<sup>23)</sup>에서 ‘윌리엄 에이 브러햄’의 정의를 들어 “전도는 ‘사람들을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려는 목표에 의해 지배되는 일련의 의도적 활동’”이라고 정의 한다. 그러면서 Finney는 전도의 정의와 함께 “회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 또한 규정하기 힘든 것으로 보는데 이유는 회심 또한 사람들마다 각기 다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회심을 갑작스럽게 생긴 하나님의 사건으로 볼 수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회심을 마치 해가 뜨는 것과 같은 하나의 과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Finney는 조명등이 비치기 전에 준비과정이 있듯이, 갑자기 회심한 사람들에게도 물어보면 그들을 갑작스런 회심의 순간으로 이끈 순간이 있다고 말하면서<sup>24)</sup> “사람들은 각기 다른 다양한 방식으로 하느님을 경험하며 민감한 전도자라면 두 가지 유형의 경험을 다 받아들여야 한다”고 한다.<sup>25)</sup> 즉, 위에서 Green과 Ford와 언급한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전도의 방법에도 개입하셔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이다.

#### 4. 새로운 시대에 맞게 일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전도의 방법에 있어서 다양한 방법이 있음을 아는 것과 함께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전도방법을 모색하는 일과 관련하여 릭 리처드슨(Rick Richardson)은 하나님은 시대마다 새로운 방식으로 일하시는데,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전도의 방법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강조한다.<sup>26)</sup> 무엇보다 이제는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는데 그 이유는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음을 갖기 이전에 먼저 공동체에 속하는 것이 앞서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Richardson은 이제는 헌신을 요구하기 전에 먼저 사람들이 서로 관계 맺을 수 있는 장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공동체 안에서는 목표가 아닌 우정을 중요시 여겨 진실한 대화의 방법을 익혀야 하고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실재를 경험한 이야기를 나누어야 하며 진부한 예수가 아닌 고정 관념을 벗어난 예수, 그리고 내세

23) John Finney, *새로운 전도가 온다*, 한화룡 역 (서울: 비아, 2014), 15.

24) Ibid., 30.

25) Ibid., 38.

26) Rick Richardson, *스타벅스 세대를 위한 전도*, 조종문 역 (서울: IVP, 2008), 21.

보다는 현세의 삶에 대한 좋은 소식으로, 그리고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여행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전도법이라고 한다.<sup>27)</sup> 이것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예수를 전하는 복음 제시로만 여기고 그 이후에 예수를 구세주로 삶 가운데 모신 이후의 삶, 즉 예수를 따르는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는 관심을 두지 못하는 것이 현실인 요즘 관계를 통한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말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5. 전도의 원동력

전도의 원동력과 관련하여 Michael Green은 그의 책, *잊혀진 다이내마이트*에서 “복음전도” 즉 “미션”을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께서 그를 배반한 백성을 되돌려 그의 사랑의 품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자신의 주도적인 일”로 본다.<sup>28)</sup> 그래서 전도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움을 청해야 한다고 한다. 그렇다. 복음전도는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으며, 인간의 말이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신과 능력으로만 가능하다(슥4:6, 고전2:4-6).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3년 동안 동고동락 하며 저들을 훈련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불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임하실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고 했다(눅12:49).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했고(행1:4-5),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한 것이다.<sup>29)</sup>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도 30세가 될 때까지 목수 일을 했으나 30세에 요한의 세례를 받고 성령이 그에게 임한 후 복음을 증거 하기 시작했다. 예수님도 성령충만함을 받기 전에는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으며 예수님의 복음 사역은 성령과 동행함으로 시작되었다. 그래서 바빙크(Bavinck)는 “복음전도에 있어서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이시며 복음을 듣는 자의 마음속에서 분명하게 역사하시는 분도 성령이

27) Ibid., 34-37.

28) Michael Green, *잊혀진 다이내마이트*, 18.

29) 박수만, *전도에 프로그 되라* (서울: 교회성장연구소, 서울, 1998), 35.

심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sup>30)</sup>

이에 대해 지난 60년 동안 성령운동을 해온 조용기 목사는 우리는 모든 일에 성령님의 기름부음을 구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자신도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자 부족했던 자신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음이 임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으며 성령님이 일하시자 치유의 능력뿐만 아니라, 설교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하게 되었고, 기적과 같은 역사들이 생겨났다고 한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가 비록 말재주가 없고, 고등교육을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우리를 통해 성령님이 일하시기만 하면 구역에도 놀라운 부흥의 역사는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 하면서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sup>31)</sup>

Richardson 또한 전도에 있어서 성령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전도는 이제 개인의 행동주의가 아니라 성령님과 하는 동역이어야 한다.”<sup>32)</sup> 그런 의미에서 전도하는 일의 주체는 하나님이며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 전도의 원동력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며, 성령의 도우심과 함께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전도방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제 3 절 전도방법의 다양성

오늘날 우리는 사람들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개인의 삶의 방식, 그리고 모두가 다른 경험을 갖고 사는 시대를 살고 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는 어떤 사람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전도하는 것이 최대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 이것을 생각한다면 전도의 방법은 교회마다, 도시마다, 나라마다 그리고 시대마다 다를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 속에서 얼마든지 불신자들에게 전도 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을 수 있다. 3절에서는 전도방법의 다양성과 관련하여 성경에 나온 전도방법들과 대중전도방법과 양육전도방법, 그리고 20세기와 21세기에 진행되었던 전도방법들 그리고 새로운 시대에 제안 할 수 있는 전도방법에 대해 살펴보고

30) Ibid., 37.

31)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성장동력* (서울: 교회성장연구소, 2008), 103.

32) Rick Richardson, *스타벅스 세대를 위한 전도*, 63.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의 첫 번째 증인이시며, 가장 중요한 증인으로써 우리는 그분과 동역하는 수습생 파트너이기 때문이다.”

자 한다.

### 1. 성경에 나온 전도방법들

이권희에 의하면 신약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여러 가지방법으로 전도한 것을 볼 수 있다. 예루살렘교회의 전도방법으로 신약에 나타난 최초 교회인 예루살렘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파했다(행2:14). 그들은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하기 위해 전혀 기도에 힘썼다(행2:42).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서로 나누어 주는 것이 전도의 방법이였다(행2:45).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여(행2:46) 음식을 먹고, 서로 교제하며(행2:46) 하나님을 찬미하며(행2:47) 성전에 모여 가르침을 받았다(행5:42). 개척교회를 세우고(행8:4-7) 개척교회를 지원하고 양육하며(행8:14-24) 전도했다.<sup>33)</sup>

계속해서 이권희는 신약성경에 나오는 전도방법을 소개하면서 사마리아교회의 전도방법은 빌립의 개인전도(행8:5-6, 26-40)가 있으며 신유은사를 통해 전도했고(행8:7) 사도들의 영적인 지원과 예루살렘교회와 연합해서(행9:31) 전도했다고 한다. 안디옥교회의 전도방법은 바나바와 바울의 조화로운 협력으로 가능했다고 한다(행11:24). 특별히 빌립보교회의 전도방법은 성령의 특별한 지시에 순종한 전도였는데(행16:6-10) 바울을 통해 복음을 전해들은 옷감장사 루디아가 본인의 가정을 통해 전도했다(행16:15). 에베소교회의 전도방법은 제자훈련을 철저히 시키는 것이었다(행19:9). 바울은 에베소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방법(행19:5, 8)으로 전도 했다고 한다.<sup>34)</sup>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강론을 통해 전도했으며(행19:8), 사도들의 능력과 이적을 통해(행19:11) 복음이 증거 되기도 했다고 한다. 바울은 환난 가운데도 전도를 했는데 이를 통해 에베소교회 성도들은 은장색 데메드리오의 선동반대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파했다(행19:23-41). 전도하는 과정 중에 유대인의 간계로 당한 시험을 당하기도 했다(행20:19).<sup>35)</sup>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와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전도에 힘쓰는 교회였다는 것을

33) 이권희, "전도사역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목회전략" (D.Min. diss., Fuller Theological Seminar, 2009, 36.

34) Ibid., 36-37

35) Ibid., 37.



알 수 있다.

## 2. 대중전도방법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전도방법과 함께 지난 시절 교회에서 실시해온 여러 가지 전도방법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sup>36)</sup> 조용기에 의하면, 18세기 초엽 영국은 종교적인 갈등과 사회적인 혼란이 극심했다. 그 결과 술 취함, 싸움, 도박, 도둑질, 자살 등의 사회적 문제가 급속도로 증가했는데, 거기에 천연두로 인해 14명 중에 1명이 사망하는 그야말로 사회가 붕괴되어가는 때에 요한 웨슬레가 성령을 받았다. 그리고 그가 성령의 불길 가운데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자 많은 영국인들이 회개하고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났으며 이에 대해 조용기는 역사 철학자 토마스 카알라일의 말을 인용해 “웨슬레의 영적 각성 운동은 영국을 폭력적 혁명에서 구출했다”고 한다.<sup>37)</sup>

이것은 미국에서도 같은 상황으로 18세기 초엽 미국 사회는 과거의 청교도 신앙을 잃어버리고 영적으로는 물론 도덕적으로도 병들어가고 있었다. 특히 청년들의 방종은 극에 달했다. 이러한 사회를 안타까워하던 조나단 에드워즈는 미국 사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고 그의 기도는 1733년에 응답되었다. 이 일에 대해 조용기는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미국의 청년 사회가 변화되었으며 타락한 미국 사회가 완전히 새롭게 된 것이다”고 하면서 한국이 새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성령의 능력이라고 강조한다.<sup>38)</sup>

John Finney에 의하면 영어를 사용하는 나라에서 18세기 복음 전도의 지도자로 영향을 끼친 사람은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즈’와 영국의 ‘존 웨슬리’인데, 19세기에 들어와 저들의 성령의 은사와 종교적 열정으로 이상하게 보일 수 있는 대각성운동을 일반 사회가 받아드리도록 한 사람은 ‘찰스 피니’라는 전도자라고 한다.<sup>39)</sup> 찰스 피니는 법률가였으며 명석한 행정가이자 연설자로서 훗날 전도 집회로 불려진 “부흥회”을 조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사람이다. 또한, 피니는 조직적인 사람이었으며 다양한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해 상담가들을 훈련시켜서 질문실에서 사람들을 믿음에 이

36) John Finney, *새로운 전도가 온다*, 95. 이 책 4장과 5장에서 피니는 19세기에서 20세기 초 1985년까지 이루어진 전도 방법에 대해 서술한다.

37)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성장동력*, 113-114.

38) Ibid., 114-115.

39) John Finney, *새로운 전도가 온다*, 105-106.

르도록 도울 수 있는 일련의 질문을 만들었다.<sup>40)</sup>

무엇보다 찰스 피니는 자신이 성령을 체계화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부흥은 기적에 의한 것이 아니라 수단과 방법을 통해 생겨난 결과로 여기며 대중집회에서 생길 수 있는 은사주의적 행위를 반대했다. 즉, 위 1절에서 John Finney가 언급한 “미스테리온”적인 전도방법을 찬성하지 않은 것이다. 그럼에도 피니는 강사를 초청하여 대중집회를 갖는 전도집회를 통해 전도했으며 강사를 초청하여 대규모 집회를 갖는 피니의 대중전도방법은 오늘날 까지 전 세계에서 실행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찰스 피니가 최초로 시도한 “강단 초청” 또한 오늘날 대중전도 집회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의 “강단 초청” 방법은 설교자가 설교한 후에 자신의 설교에 반응한 사람들에게 일어나 “질문실”로 가라고 권했던 것으로 오늘날도 대중집회를 통해 예수를 믿겠다고 일어난 사람들을 준비된 교회의 봉사자들 또는 교역자들이 따로 불러 예수를 영접한 이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설명해주는 것은 지금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 3. 양육전도방법

이와 같이 대중적 전도운동을 통해서 교인이 감소하기 시작하던 1850년대에 영국에서는 큰 회심 운동이 일어났으나 일반적으로 교회에 속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대중 전도운동”을 상스러운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복음주의자들에게만 대중전도 집회를 맡겼다. 그러나 그 후 100여년이 지난 1980년대가 되자 영국의 교인 수는 다시 감소했고 대부분의 교단이 대중전도를 다시금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로 전도에 대한 다양한 실험과 새로운 생각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sup>41)</sup>

40) Ibid., 108. Finney에 의하면 이 방식은 웨슬리가 강조한 “죄에 대한 자각, 중생, 성화”와는 다르게 회심자의 회심은 분명해야 했고 언제 일어났는지 일시를 알 수 있어야 했다고 한다. 그리고 찰스 피니의 방법을 이어받은 것이 바로 “사영리”와 “복음의 ABCD” 즉, Admit 인정하라, Believe 믿으라, Count 제자도의 대가를 계산하라, 그리고 Decision 결단하라 이다. 같은 책 108-109에서 인용함.

41) Ibid., 115. 저자는 그 당시 592개의 언어로 “예수”란 영화 비디오를 배포한 것은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였다고 한다. 그 당시만 해도 복음은 약 400년 동안 대중 연설과 인쇄된 말에 의해서만 선포되었었는데 미국의 경우 라디오 방송이나 영화를 전도 매체로 사용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1980년대 후반 몇 명의 텔레비전 전도자들의 스캔들이 생기면서 전도를 위해 방송국을 운영하는 일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많은 곳이 문을 닫았으며 그 후에는 방송국 다음으

2000년이 되자 영국에서의 복음전도는 대규모 집회 보다는 소그룹, 일반 교인, 교회의 지속적인 사역을 의미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로는 ‘개빈 리드’ 같은 몇몇 복음주의 지도자들은 대규모 전도집회를 10년 동안 시행한 결과 그동안 실시한 대규모 집회를 통한 전도방법이 효과적이지 못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대중전도집회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영국 사람은 많지 않은 것을 알았으며 대규모 전도집회의 방법으로는 영국 국민들의 영혼에 다가가지 못한다고 판단했다.<sup>42)</sup>

그러고 나서 나온 전도방법은 대중집회를 통해 경기장 앞으로 나온 사람들을 그룹으로 모아서 그들이 지역 교회에 보다 확실하게 정착하도록 하는 전도방법이 강조되었는데 놀라운 것은 그 그룹들에 참여한 교인들이 발견한 것은 비교인들과 함께 한 방에 앉아서 신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중 일부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보게 되었고 그 후에는 외부에서 누군가가 강사로 와서 저들을 위해 대신 전도집회를 통해 전도해 해달라고 초청할 필요가 없음을 알게 되었다.<sup>43)</sup>

빌리 그레함 목사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도자로서 ‘전도의 황제’라고도 불렸다. 빌리 그레함 목사와 같은 유명 강사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했다. 그러나 그 많은 결신자 중에 교회에 등록하여 정착해서 책임 있는 교회의 지체가 된 사람은 10퍼센트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그 이유는 결신자가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그들이 영적인 양분을 공급해주는 교회와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온전한 전도란 교회의 책임 있는 멤버가 되는 것까지를 포함한 것이어야 한다.<sup>44)</sup>

이렇게 해서 영국교회에 나온 것이 “양육 그룹”의 역사다. 양육 그룹은 영국 교회와 세계 많은 교회들에 거대한 영향을 끼쳤으며 수많은 요란한 대중전도운동들보다 전도 하는 일에 있어서 훨씬 효과적이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영국교회는 양육그룹을 통해 회심 이후 회심에 대해 가르치는 것을 성령 세례를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하

---

로 비디오를 제작하여 비디오를 배포했으며 그 후에는 곧 인터넷이 등장하여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42) Ibid., 123. 그 이유로 John Finney는 개빈 리드의 책을 인용하여 “세상은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강조한다.

43) Ibid., 123.

44) 명성훈, *뿔문을 막아라* (서울: 크레토, 1995), 180.

게 여겼으며 전통적인 입교 과정을 새로운 현실에 맞게 각색하려고 많은 노력과 연구를 했다. 그렇게 10년 동안을 연구하고 만들어진 교재가 오늘날 “알파 코스”라고 하는 “양육 과정”이며 그 후에 또한 연구 된 교재가 “엠마우스 코스”라고 하는 양육교재다. 이러한 교재들은 새신자들이 그리스도교 신앙에 대해 대략적으로 살펴보도록 돕고 그들을 지지해주는 그룹과의 지속적인 교제를 통해 계속해서 좋은 관계를 맺도록 돕는 교재들이다.<sup>45)</sup>

중요한 것은 “양육 교재”를 사용했을 때의 결과인데 연구자들은 “양육 교재”를 통한 교육을 통해 새신자가 교회에 나오게 된 수가 증가하였음을 알게 되었다. 그 이유로 알파코스를 가지고 양육 교육을 시행한 결과 교회에 다니게 된 사람은 17%로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 45%에 비해 저조한 편이지만, 엠마우스 교재를 통해서도 교회에 다니게 된 사람이 38%로 월등이 높았으며 물론 그 수가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이 50%인 것에 비하면 저조하다고 할 수 있으나 “알파 코스”와 “엠마우스 코스” 교재들이 다른 교재들을 보다는 새신자들이 교회에 정착되도록 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것을 알 수 있었다고 한다.<sup>46)</sup>

이러한 John Finney의 전도와 양육 교재의 중요성과 관련하여 Michael Green은 그의 책 *잊혀진 다이내마이트*에서 변해 가는 이 시대에는 교회 모임 외에는 친구가 거의 없는 이들이 있을 뿐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다가가서 비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개념조차 갖고 있지 않기에 지난 10년(1990-2000) 동안 서구 교회가 백만 명 이상의 신도를 잃었다고 강조하면서 그 결과로 영국의 교회 출석률은 1987년과 1999년 사이에 20퍼센트나 격감하였다고 한다. 그러면서 그는 빌리 그레함과 같은 한 사람의 독무대를 주로 이루는 형태의 전도 집회 보다는 파트너십이나 공동의 리더십과 같이 주도권을 공유하는 새로운 패러다임 필요한 시대라고 말한다.<sup>47)</sup> 양육교재를 통한 양육전도의 중요성에 동감한 것이다.

특히 대중전도방법 이후에 진행되어진 양육전도방법은 오늘날 교회에서 대중

45) John Finney, *새로운 전도가 온다*, 125-133. Finney는 양육 교재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한다.

46) Ibid., 135. “신앙에 대한 헌신 비율” 참고. 이 조사는 2003년 말에 구세군을 위해 발간된 “리더십, 비전, 성장하는 교회들”을 사용한 구세군 교회 1,125개의 교회의 삶을 조사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만들어진 결과표이다.

47) Michael Green, *잊혀진 다이내마이트*, 주상지 역 (서울: 서로사랑, 2008), 18.

전도집회 이후에 새신자 정착을 위해 이루어지고 있는 후속조치로도 생각할 수 있는데, Green은 양육전도의 중요성과 함께 여전히 대전도집회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현격히 발달하고 있는 현대 문화 속에서도 사람들은 종교에 대해서는 거부하지만 “영성에 대한 추구”는 계속하는 편이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한다.<sup>48)</sup>

이에 대해 Michael Green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적 충족을 위해서는 교회를 최후의 수단으로 삼는다고 하면서 그것이 교회에는 큰 전도의 기회가 된다고 한다. 이유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영적 만족을 얻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아무 것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는 기독교가 일반 사람들에게 진정한 차별성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인자를 표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강조한다.<sup>49)</sup>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은 자신이 온 목적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임을 강조했다.

이어서 Green은 야외에 피크닉을 나가 풀단지의 뚜껑을 열면 꿀벌들이 몰려들듯이, 교회는 불신자들에게 매력적인 것으로 입증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데 그 매력을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한다.<sup>50)</sup>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탁월함을 이야기 하면서 서로가 사랑으로 헌신한 그들의 공동체적 삶과 개인의 소유를 나누고 굶주린 자와 나그네와 이방인들을 돕는 관대함, 그리고 시와 찬미와 영적 찬양으로 드러진 역동적인 예배가 있었음을 말한다. 무엇보다 저들에게는 예수가 세상의 구주이심을 확신하는 확신과 함께 그 예수를 다른 사람들에게 열정적으로 증거하는 선교의 일을 감당했다고 이야기 하며 그것이 오늘날 대중전도의 중요성임을 강조한다.<sup>51)</sup>

이와 같이 전도자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과정 중심의 전도를 할 때, 전도자는 편안한 마음으로 전도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 억지로 전도해야 한다는 강박감이나 부담감을 못 느끼게 된다. 그렇게 전도자가 전도해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자유로워질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전도라는 말만 들어도 두려워하던 마음 대신, 전도를 즐기고 사모하게 될 것이다.<sup>52)</sup>

48) Ibid., 33.

49) Ibid.

50) Ibid., 39. 특별히 Green은 예수님의 행동이 말과 완전히 일치한 점, 예수님이 자신을 철저히 희생한 점 등을 강조한다.

51) Ibid., 37-49 까지 3장, “풀단지과 장미,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는가?”를 요약함.

52) William J. McKay, 나는 돌보는 전도자, 94.

특히 Finney는 전도의 방법과 관련하여 3가지 헬라이어 단어를 통해 복음의 서로 다른 측면들을 소개하는데, 그것은 복음의 내용인 “케뤼그마”와 복음과 그 선포인 “유앙겔리온”, 그리고 복음의 신비라고 할 수 있는 “미스테리온”이라고 설명다.<sup>53)</sup> 그는 이 단어들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 올림픽 게임을 예로 들며 신문과 텔레비전이 없던 시절 올림픽 게임에서 승리한 것을 얼마나 정확하게 전하는 것이 중요한지를 이야기 하며 승리라는 정보를 전달한다는 것을 “케뤼그마”, 즉 오늘날 복음을 교육하는 것과 같다고 한다. 그리고 “유앙겔리온”이란 “좋은 소식을 전파하다”라는 의미로 승리를 선포하듯이 전도는 좋은 소식을 알리는 것으로 설교를 통해 선포되어야 하며 또한, “미스테리온”이라는 말은 신적 신비인 복음으로 설교나 어떤 가르침 외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의 역사하심이라고 서술한다.<sup>54)</sup>

이와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본 연구자는 현재 섬기고 있는 순복음의정부교회의 전도 활성화 방안에 대해 뒤의 5장에서 지난 8년 동안 순복음의정부교회에서 진행되어 온 전도축제를 진단하고 그동안 진행해 온 전도축제가 “유앙겔리온”과 “미스테리온”적인 부분을 강조해 왔으며 앞으로 “케뤼그마”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하고자 한다.

새롭게 예수를 믿게 되는 한 개인이 자신이 속한 교회내 소그룹을 통해 복음적인 양육이 선행되고 또한 그렇게 새롭게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소그룹 안에 소속되어 자신이 영접하고 믿기로 작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과 및 교회에 나와서 복음을 받아 드린 후에도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이후의 삶이 어떠한지 지속적으로 “양육교육”을 통해 교육받도록 하는 후속조치의 사역이 왜 중요한지를 다룬다.

53) Michael Green, *잊혀진 다이내마이트*, 주상지 역 (서울: 서로사랑, 2008), 43-62.

54) John Finney, *새로운 전도가 온다*, 57. 그러면서 그는 케뤼그마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종종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 가르치며, 유앙겔리온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초점을 맞추고 미스테리온을 통해 복음에 접근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사역을 더 기뻐하는 면이 있다고 강조하면서 삼위일체의 세 위격이 하나의 통일체 이듯이 교회는 3가지 방식으로 전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한다.

#### 4. 20세기와 21세기의 전도방법들

20세기와 21세기의 전도의 원형으로 김선일은 앞의 1절에서 John Finney와 Michael Green이 언급한 것과 같이 19세기 초중반에 활동했던 찰스 피니와 D. L. 무디, 그리고 빌리 그래함을 전도를 통한 부흥시대의 중심인물들로 본다.<sup>55)</sup> 그는 찰스 피니가 근대적 전도를 태동시키는 데 다양한 방법론들을 선보였다고 한다면, 무디는 전문적 기획과 조직화로 전도사역을 더욱 번창시킨 인물이라고 William G. McLoughlin의 책을 인용해서 말한다.<sup>56)</sup>

김선일에 의하면 기독교 국가 시대에 교회는 한 지역의 중앙을 차지하면서 사회 제 분야에 표면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므로 모든 사람들과 사회 기능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이뤄져야 했다고 한다. 세속화가 한창 진행된 20세기 서구 교회가 이러한 상황에서 전도를 하려 했던 방법이 교회성장학을 이루었고 그 대표적인 모델이 “구도자 예배”와 “대중 전도”였다고 설명한다.<sup>57)</sup> 그에 의하면 축호전도나 노방전도는 이미 미국의 2차 대각성 운동 당시 본격화되었던 방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드는 근대화 때에 이루어진 전도방법으로 그 당시 마을 안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모르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배경 속에서 축호전도와 노방전도가 활성화 되었다고 한다.<sup>58)</sup>

이와 같은 상황에서 그 당시 교회 성장적 모델에서의 전도는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 모을 수 있는 편안하고 익숙한 길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간결하게 정리된 기독교 핵심 교리들을 말해주고 그에 대한 응답을 이끌어내면서 영접 기도를 따라하게 하는 전도 방법이 실행되었다. 그 일환으로 시작된 대중전도나 구도자 예배는 마치 상품을 판매하듯이 상대의 동의를 얻기 위한 지적, 정서적 설득 방법들이 동원되었고, 실적에 대한 피드백과 통계가 수집되었다. 그 외에도 사람들이 흥미로워할 만한 이벤트와 프로그램이 고안되고, 자기 개발에 도움이 될 만한 실용적이고 유익한 메시지가 교회와 설교를 통해 전달되었던 것이다.<sup>59)</sup>

55) 김선일, *전도의 유산 오래된 복음의 미래*, 218.

56) Ibid., 226.

57) 김선일, “전도의 기로에서 신학에 답을 묻다”, 46.

58) 최동규, 김선일, “한국 교회 안에 잠자고 있는 전도의 역량을 깨워라”, *목회와 신학*, 2009, 8월호, 24.

59) 김선일, “전도의 기로에서 신학에 답을 묻다”, 47.

### 5. 새로운 전도방법의 대안

오늘날과 같이 사회구성원들이 예전과 다르게 도시화된 사회에 살면서 이웃이 누군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는 불특정 다수에게 축호전도와 노방전도를 하는 전도방법이나 대중전도방법 보다는 관계를 통한 전도로 전도 방법의 흐름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무엇보다 새로운 전도방법에 있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에 가고 하고 예수를 안 믿는 자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을 전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전도하는 방법에 있어서 교회에 나가지 않는 불신자가 어떻게 복음을 들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반드시 해야 한다. 왜냐하면 불신자가 교회에 한 번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것이 전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선일은 회심은 “마음을 바꾼다는 뜻이며, 여기서 마음을 가리키는 ‘심’(心)은 감정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지성, 의지, 감정이 모두 집결하여 방향을 잡게 해주는 핵심적 장소를 말한다.”<sup>60)</sup>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새롭게 진행되어지고 있는 전도방법에 대해 김선일은 “선교적 전도”를 말한다. ‘선교적 전도’에 대해 언급하기 이전에 김선일은 “선교적 교회론”은 가시적인 기독교 체제의 확장보다는 교회가 세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 나라의 덕목과 삶을 증거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교회가 교회로 사람들을 끌어 모으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의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매일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제자도를 실천하도록 양육하고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 의미에서 ‘선교적 전도’는 단순히 예수를 믿겠다는 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길에 들어서도록 영적 여정을 함께 하며 지속적으로 인도하는 것까지 포함된다고 한다.<sup>61)</sup> 그러면서 그는 21세기의 전도 사역은 과거에 진행되어왔던 길거리나 대중 집회에서의 일회성 결신에 만족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고 따르는 삶은 총체적 변화로서의 회심을 요구하기 때문이다.”<sup>62)</sup>라고 강조한다.

회심은 김선일이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불신자가 교회에 한 번 나오거나, 한번의 결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이 예수님을 삶의 구주로

60) 김선일, *전도의 유산 오래된 복음의 미래*, 47.

61) Ibid., 48.

62) Ibid.



영접한 이후에 삶의 모든 목적과 방향을 하나님께 돌리는 일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사는 과정으로써 전도는 사람들이 삶의 근본적 변화에 참여하도록 돕는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한 사람, 또는 한 영혼이 전도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이영해는 예수님의 인격적인 전도방법을 이야기 하면서 인격전도자의 주된 메시지는 육에 속한 자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끈 일 뿐만 아니라, 육신에 속한 자들을 신령한 자로 만드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한다.<sup>63)</sup> 김선일은 성경은 변화된 사람들과 변화된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져 가는 공동체에 관심이 있다고 한다. 예수님의 전도방법에 대해 설명하면서도 예수님의 전도방법은 “회개하고 나를 믿으라”는 일률적인 전도방법이 아닌 복음에 대한 수용성이 높은 이들에게 전략적으로 다가서거나 또는 청중의 상황과 갈망과 접촉점을 찾아가는 전도였다고 한다. 특별히 예수님의 전도 방법을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삶으로 구현해 내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한다.<sup>64)</sup>

그러나 그동안 한국에서 진행되어온 전도의 방법은 ‘선교적 전도’의 일환인 삶을 통한 전도이기 보다는 노방전도나 축호전도의 방법, 또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더 많이 교회로 오게 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는 대중적인 전도방법을 통해 전도해 왔고, 또한 교회에 찾아온 새신자가 예수를 구주로 믿겠다는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회심의 기도를 하게하는 것을 전도로 여기므로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결심한 회심 이후의 삶 까지는 전도로 생각하지 못한 오류를 범하지 않았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에 대해 그동안 한국에서 진행되어온 다양한 전도방법들을 다음 장에서 분석하여 지역전도를 위한 새로운 전도활성화 방안에 대해 연구해보고자 한다.

63) 이영해, *예수님은 어떻게 전도 하셨을까?*, 99.

64) 김선일, *전도의 유산 오래된 복음의 미래*, 47, 68. 그 예로 저자는 예수님의 식탁교제와 잔치를 비유로 들면서 미국 윌로우크릭교회에서 진행된 “맞춤 전도”의 예를 제시한다.

## 제 3 장

### 한국교회에서의 전도

본 장에서는 한국교회에서의 전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먼저, 한국에서의 전도방법의 변천을 살펴볼 것이며, 이어 그동안 한국교회에서 진행되어 온 여러 전도방법들을 살펴보고 그것들의 장단점을 논의할 것이다. 그리고 전도를 통해 성장한 대표적 교회인 주안장로교회, 왕성교회와 사랑의교회 이 세 교회를 사례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여, 그들의 전도방법을 분석하고 평가할 것이다

#### 제 1 절 한국교회의 전도방법의 변천

그동안 한국교회에서도 시대의 변화된 인생가치에 따라 전도의 방법 또한 변화되었는데, 생존의 위기를 지나던 시대에는 기복적인 신앙과 함께 강력한 내세지향적인 메시지가 선포되었고<sup>65)</sup> 위기의 시대를 지나 행복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그리고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시대를 맞이하여서는 “공동체”의 경험을 중요시 여기는 새로운 전도방법이 필요한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 1. 한국교회의 전도방법의 태동

유럽과 미국 교회에서의 전도 방법이 시대마다 다르게 진행되었고 또한 새로운 방법으로 변화되고 있듯이, 한국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전도방법들 또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여 다양한 모습으로 진행되어 왔다. 1907년 ‘평양대부흥운동’은

---

65) 김선일, “복음은 한국의 문화와 어떻게 만나는가,” *목회와 신학*, 2009년 8월호, 116. 김선일은 그 당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쳤던 전도 방법을 직접위기인성세대를 대표하는 전도로 본다.

신앙 각성과 함께 기독교가 한국에 토착화 하는데 크게 역할을 했다. 한국장로교출판사에서 발간한 *성공적인 목회를 위한 전도 프로그램*을 보면, 1920년대 장로교회 총회가 추진한 ‘진흥운동’으로 유년주일학교가 부흥하고, 청년 운동이 일어났으며, 여러 개신교 교단 및 기독교 기관들과 연합하여 협력 사업을 벌이면서 농촌운동, 질병(한센씨병, 결핵)퇴치운동, 절제운동(금주, 금연), 공장폐지운동 및 사회선교와 봉사가 두드러진 부흥운동으로 일어났다.

특별히 한국교회는 6.25 이후에도 ‘생명 살리기 10년 운동’, ‘100만인 전도운동’, ‘어린이, 청소년 전도운동’을 전개하는 등 전도를 교회의 사명으로 여기며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데 힘썼다.<sup>66)</sup> 그 외에도 실제로 영국과 미국에서 진행되어왔던 전도집회 중심의 전도방법의 영향을 한국에서도 축호전도나 노방전도, 그리고 대중집회의 일환인 총동원 출석주일 전도 및 태신자전도 및 새생명축제와 같은 다양한 전도방법과 함께 예수님께서 하셨던 식사와 즐거운 시간이 포함되는 문화적 전도 모델들이 등장했고 근래에는 “맞춤 전도”라는 주제로 매년마다 미혼모, 소방관 등 상대적으로 외롭고, 힘겨워하는 사람들을 교회로 초청하여 저들의 애환을 어루만져주고 서로가 진정성 있는 교제를 통해 예수님의 밥상 공동체를 실현하는 일들을 진행하고 있다.<sup>67)</sup>

이러한 일은 “한국의 문화와 어떻게 만나는가”라는 논문에서 김선일이 말한 것과 같이, 한국 내에서 그 동안 변해온 한국인의 인생 가치론, 그리고 신도들의 경제적인 풍요로움과 관련하여 빈곤에서 벗어나려는 소망을 담은 60-70년대의 집회에서 민주주의를 열망했던 80년대를 지나며 개인의 행복이 중요시 되던 때 활발했던 90년대에는 “경배와 찬양” 그리고 경제적 풍요 가운데 불안한 마음과 고독을 이기기 위해 생겨난 “큐티 운동”이 신도들의 마음속으로 파고들기 시작했고, 의미를 추구하는 2000년대에 와서는 내면세계를 탐구함으로 참된 자기를 재발견하도록 돕는 프로그램들이 주목을

66) 한국장로교출판사, *전도 프로그램*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9), 13.

67) 김선일, *전도의 유산 오래된 복음의 미래*, 280. 김선일은 “맞춤전도는 원리에서부터 수용자 중심성을 표방한다. 그리고 전도대상자들을 연령이나 성별, 또는 직업군으로 가능한 한 세분화시키고 각 그룹에 맞는 복음의 케치 프레이즈를 작성한다. 예를 들어 아직 20대의 낭만이 남은 채 중년이 가까워지는 30대 여성들에게는 ‘프로포즈’라는 분위기의 메시지를, 한창 인생의 경쟁에서 고군분투하는 40대를 위해서는 ‘비상구’라는 제목으로 신앙이 접목되는 의미를 다변화시켜 제시한다”고 한다.

받기 시작했다.<sup>68)</sup> 그러므로 한국교회의 전도방법이 시대가 변함과 동시에 점점 변화된 것을 알 수 있다.

## 제 2 절 한국교회에서 진행되어진 전도방법들

최동규가 말한 것처럼, 한국교회는 선교사들이 전도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지 않았지만, 성령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은혜가 감격스러워 자발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다.<sup>69)</sup> 그리고 그 전도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 시대에 맞는 새롭고 다양한 전도방법들이 생겨난 것이다. 본 절에서는 한국교회에서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몇 가지의 전도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전도폭발훈련

한국교회의 대표적 전도 프로그램인 전도폭발훈련은 1962년 미국 플로리다 주의 포트 로더데일(Ft. Lauderdale)의 코럴 릿지 장로교회(Coral Ridge Presbyterian Church)에서 목회하던 제임스 케네디(James Kennedy) 로부터 시작된 전도 프로그램이다. Kennedy 목사는 그의 20년의 목회생활 가운데 전도폭발 훈련을 통해 교회를 성장시켰는데 매주 700명 정도의 성도들이 나가서 비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므로 17명이었던 성도가 약 6,500명으로 성장했다.<sup>70)</sup> 지금은 이 전도훈련 방법으로 전 세계 147개국에서 전도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1982년 남서울 교회에서 4명을 중심으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수많은 훈련생들을 배출했다.<sup>71)</sup>

#### 가. 전도폭발의 목적

전도폭발훈련의 목적은 친교, 전도, 제자훈련을 통해 성도들을 훈련시키므로 교회를 성장시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성도들이 자신의 인간관계 속에서 전도를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준다. 전도폭발훈련은 우선적으로 개인전도에

68) 김선일, “복음은 한국의 문화와 어떻게 만나는가”, *목회와 신학*, 2009년 8월호, 116.

69) 최동규, 김선일, “한국 교회 안에 잠자고 있는 전도의 역량을 깨워라”, 24.

70) James Kennedy, and T. M. Moore, *전도폭발*, 김만풍 역 (서울: 한국전도폭발출판부), 26.

71) 이권희, “전도사역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목회전략, 신일교회 새생명 축제를 중심으로”, 40.

초점을 맞추는데 훈련에 참여하는 훈련생에게 구원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고 전도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주는 것이 특징이다.<sup>72)</sup>

그리고 전도폭발훈련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제자훈련의 원리인데, 훈련자가 두 명의 예비 훈련자(훈련생)와 짝을 이루어 현장사역을 통해 실제 전도훈련 시범을 보임으로 전도에 대한 자신감과 감격을 줄 수 있다. 이 전도폭발훈련은 평신도가 중심이 되는 전도훈련이다. 특별히 전도폭발훈련은 단지 훈련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건지는 사람을 가르칠 훈련자 한 명을 무장시키는 것이다. 말씀을 기초로 해서 전도에 대한 방법을 쉽게 가르치며 교회를 중심으로 실사가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교회를 섬기도록 돕는 훈련이다.<sup>73)</sup>

#### 나. 전도폭발훈련의 장점과 단점

문인현은 전도폭발훈련의 장점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첫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나누는 것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무장시켜 준다. 둘째, 구원의 확신이 없는 교인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한다. 셋째, 다른 복음 전도자들을 훈련시킬 수 있도록 무장시켜 준다. 넷째, 교회에서 전도폭발 사역을 수행하는 일을 도울 수 있도록 무장시켜 준다. 다섯째, 교회 전체가 복음을 전하는 분위기로 바뀌어 복음 전도에 대한 새로운 각오와 인식을 갖도록 한다.<sup>74)</sup> 이러한 장점들은 경험이 부족한 전도자도 전도훈련 그룹에 참여하여 경험이 많은 전도자가 인도하는 실제 전도 상황에서 현장실습에 참여하므로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다.<sup>75)</sup>

그런데 민남기는 전도폭발훈련의 단으로는 첫째, 16주 약 4개월의 전도훈련을 하면서 학교수업보다 더 엄격하게 수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부담감. 둘째, 서론에서 교회의 배경을 묻거나 천국에 대한 확신을 묻고 있는데 이것은 기독교의 문화 속에 있는 미국에서는 집착점으로는 가능하지만 한국인의 정서에는 맞지 않다는 점. 셋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인간의 죄를 성경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이 미약하기 때문에 성

72) 이면수, “전도사역의 활성화를 통한 건강한 교회 성장, 금곡교회를 중심으로”, (D.Min. diss., Fuller Theological Seminary, 2015), 27.

73) James Kennedy, 전도폭발, 59.

74) 문인현, “복음전도훈련을 통한 교회성장 방안, 강일교회 목회를 중심으로” (D.Min. diss., Fuller Theological Seminary, 1994), 110.

75) 사랑의 교회 홈페이지 <http://www.sarang.org> 의 전도폭발 관련한 내용을 발췌함.

경적인 죄의 개념이 없는 한국 사람들에게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 넷째, 처음 복음을 대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하고 구원의 확신을 심어준 이후에 에수를 영접한 자를 교회에까지 인도하는 과정에 무리가 따른다는 점. 다섯째, 전도를 위해 훈련생이 전도하는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여 긴 에문을 외워야 한다는 부담감. 여섯째는, 전도자가 전도대상자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30분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시간이 급한 상황이나 전도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지 않은 곳에서 전도하는 것에 무리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sup>76)</sup>

## 2. 그 외 기타 전도방법들

### 가. 축호전도방법

축호전도방법은 그 동안 많은 한국교회가 실시해 왔던 가장 보편적인 전도방법 중의 하나이다. 전도자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면서 복음을 전하므로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축호전도는 일정한 형식은 없다. 대다수의 교회가 일정한 요일과 시간을 정하여 다양한 전도이론과 교회 또는 담임목사의 목회방침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에서 복음을 전한다. 아파트, 주택가, 상가건물들의 여러 환경에 따라서 다양한 전략을 세우고 전도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자의 교회에서도 축호전도방법을 실시해 왔으나 시대적으로 가가호호 방문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기며 문을 열어주지 않는 가정이 늘었고, 한 지역에서 축호전도를 1년 이상 진행하게 되면 더 이상 방문할 가정이 없다는 점, 그리고 축호전도를 통해 전도되어지는 불신자의 수가 미비한 점 등으로 인하여 현재는 축호전도 보다는 개별적인 전도 혹은 관계전도 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으며, 불특정다수의 가정 보다는 복음을 필요로 하는 병원이나 양로원등을 방문하여 전도하는 방향으로 축호전도가 진행되어 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새로운 아파트 단지나 신도시가 형성된 지역에서는 이 방법이 매우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다.

76) 민남기, *한국식 전도* (서울: 나침반 출판사, 1997), 40-46.

#### 나. 이슬비전도방법

이슬비전도는 규장문화사의 대표인 여운학 장로가 기존의 물량적이고 일회성 행사에 그치는 전도방법이 비효과적이고 전도의 열매가 미비한 점을 감안하여 만든 방법으로 예쁜 엽서를 통해서 각 계층의 사람에게 마음의 문을 열도록 하여 전도방법으로 불신자나 테신자 와의 접촉점을 만들기 위하여 규장출판사에서 개발한 '이슬비 전도편지'를 전도지로 활용하는 문서전도 사역이다.<sup>77)</sup>

이슬비 전도사역은 이슬비 전도편지는 불신자들에게 보내는 것으로 그 대상이 어린이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 등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상황과 여건에 따라, 필요한 시리즈를 선택하여 불신자들의 마음의 문을 열도록 다양한 엽서를 1년 정도 보내고 중간에 좋은 반응이 있거나 계속 보내주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1년 정도 꾸준히 엽서를 보내고 후에 교회에서 새생명전도축제나 특별행사를 개최할 때 상대방을 교회로 초청하여 전도로 연결시키는 방법이다.

이슬비 전도방법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이슬비전도 학교'를 개설하여 사랑의 엽서를 보내고 전화하고 초청하는 일에 헌신할 사람들을 선발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슬비 전도사역에 힘쓰도록 하는 교회도 있으나 이 전도방법은 비교적 쉬운 방법으로 전도에 대한 열정과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다면 쉽게 교회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본 연구자의 교회에서도 새생명전도축제가 끝난 후에 실행하고 있는 전도방법이나 주소를 잘못 기입한 경우 또는 받는 상대방이 반송시켜 돌아오는 부분에 있어서 적지 않은 실망감이 들기도 한다고 할 수 있다.

#### 다. 사영리 전도방법

사영리 전도방법은 전 세계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전도방법으로, 1951년 미국 대학생선교회의 총재 빌 브라이트(Bill Bright)에 의해서 처음으로 개발되었다. 이 전도방법은 1958년에 전 한국 CCC 총재 김준곤에 의해서 한국에 처음 소개되었으며 사영리 전도방법을 통해 한국 뿐 아니라 전 세계에 지대한 영향을 가져왔다.

77) 여운학, 제 3기 이슬비전도학교 강의안 (서울: 규장문화사, 1992), 56.

### (1) 사영리 전도방법의 실제

사영리 전도방법은 전도자가 비신자에게 구원에 이르는 4가지 원리를 제시한 후 영접, 기도 그리고 구원을 확신시키는 방법으로 사영리의 제 1원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에 관한 메시지(요 3:16, 10:10)로 시작하며 왜 풍성한 생활을 하지 못하는지 2원리와 연결시킨다. 제 2원리는 인간론으로 죄에 빠진 인간에 대해서 설명한다(롬 3:23, 6:23). 제 3원리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의 잃어버린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롬 5:8; 고전 15:3-6; 요 14:6). 제 4원리는 구원론으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중요한 것은 제 3원리까지 사람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으나 마지막 4원리는 영원한 운명의 기로에서 자기의 갈 길을 결정해야 하는데(요 1:12; 엡 2:8-9; 계 3:20) 네 가지 원리를 통해 복음을 제시한 후에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하여 지역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권면한다.<sup>78)</sup>

### (2) 사영리 전도방법의 장단점

사영리 전도방법의 장점으로 사영리는 비교적 짧은 시간(약 10분) 동안 복음의 핵심을 설명하여 비신자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하는 장점이 있다. 구원에 이르게 되는 과정을 쉽게 요약해서 단계적으로 잘 설명하기 때문이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한 자가 가까운 교회로 연결되도록 권면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영리의 단점으로 대학생선교단체를 중심으로 고안된 방법이기 때문에 결신한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여 양육되도록 연결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며 그 결과 전도한 만큼의 성과가 나타나지 못한다는 아쉬움이 있다. 또한 전도 대상자의 경우 젊은이들의 경우는 용이하나 노년층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 사영리 전도 전략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을 대상으로 시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무엇보다 짧은 시간에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전도 대상자가 진지하게 복음을 영접했는지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sup>79)</sup>

78) 이상규, *사영리의 적용과 실제, 전도방법론 철저분석*, 35-39.

79) 이면수, “전도사역의 활성화를 통한 건강한 교회 성장, 금곡교회를 중심으로”, 34.



위에서 언급한 전도 방법 외에도 한국 교회는 다양한 전도방법을 통해 전도하는 일에 힘써왔다. 전도방법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지역교회에 맞는 전도법을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전도하는 것이다.

그런데 Michael Green은 전도가 활발히 잘 수행되고 있다고 해도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 많은 경우 전파되는 메시지가 신약의 좋은 소식 그대로가 아니게 생략되었고, 사용되는 방법이 진부하고, 전도 후의 관리가 소홀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기보다는 능률과 기술을 의지하는, 인간 중심적 작업”이 전도하는 일에 있어 전체적인 문제<sup>80)</sup> 라고 하는데 그것을 참고하여 다음 절에서는 주안장로교회의 총동원전도, 왕성교회의 태신자 전도와 함께 본 연구자가 생각하고 있는 새로운 전도방법과 가장 비슷한 사랑의 교회의 새생명축제를 사례연구로 다루고자 한다.

### 제 3 절 전도를 통해 성장한 지역교회의 전도방법의 사례연구

본 절에서는 전도를 통하여 성장한 한국의 대표적 교회인 주안장로교회의 총동원전도와 왕성교회의 태신자 전도, 그리고 사랑의교회의 대각성전도집회를 구체적으로 다룰 것이다. 이 세 교회의 전도방법을 연구 분석함으로써 본 연구자가 사역하는 교회의 전도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부분에 접목시킬 것이다.

#### 1. 주안장로교회 - 총동원전도의 전도방법

“총동원전도”란 심층전도(Evangelism in Depth)라고도 하는데, 이는 라틴 아메리카의 선교부에서 있었던 케네디 스트라겐(Kenneth Strachan)에 의해 1960년도부터 시작되었던 전도운동이다.<sup>81)</sup> 이 전도운동을 생각해 낸 동기는 빌리 그레함의 대중전도운동의 부족한 점을 보강하려고 시도되었던 전도운동으로 대집회를 통한 전도운동이 한명의 전도자나 한명의 부흥사에게 의존하는 것에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한 명의 부흥사가 아닌 개교회의 목회자나 평신도들이 전도하는 일에 동원되어 실제로 효과적인 전도운동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고안해낸 전도방법이다.

80) Michael Green, *초대교회의 전도*, 8.

81) 나겸일, *New 전도집중교회로 만들라* (서울, 두란노, 2003), 71.

### 가. 총동원전도의 역사

이 전도방법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오게 된 동기는 1964년 전도운동에 관심이 있었던 일본의 복음주의 계통의 교회에서 남미 코스타리카의 전도운동에 자극을 받아 그곳 전도자들을 초청해 전도집회를 가졌고 1967년 여러 자료들을 바탕으로 그 전도방법을 동양권에 맞도록 토착화시키자는 결론을 얻어서 만든 것이다.<sup>82)</sup> 1978년 7월 20일 일본 복음주의 동맹 총동원 전도연구회 발행으로 *총동원전도의 원칙과 실제* 라는 책자를 발간했으며, 우리나라에는 1974년 8월 장로회(예장 통합)총회 교육부에서 번역해 소개했다. 그리고 처음에는 장로교회를 중심으로 시작된 “총동원전도”가 전국 규모가 되어 1974년에는 “익스플로 74”로 80년도에는 “80 세계복음화 대성회”를 통해 총동원전도가 실시되었다.

여기서 눈 여겨 볼 것은 1980년대부터 유행했던 “총동원전도”라는 명칭과 함께 한국교회에서 진행되어진 전도방법에 대해 오해가 많았는데, 그 이유는 교회의 전도방법이 단순히 교회의 연중행사로 끝난다고 생각하는 것과 많은 예산을 들이고도 영혼구원을 얻지 못하는 내실 없는 실패한 방법론이라고 알려진 부분이라고 한다. 그러나 주안장로교회의 총동원전도방법의 핵심 내용은 “예수 사랑 큰 잔치”이다. 이에 대해 나겸일은 다음과 같이 총동원전도를 “하나님은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신다. 그 사랑이 넘쳐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큰 잔치를 배설했다. 그리고 이 큰 잔치에 많은 영혼들이 참여하기를 원하시며, 온 산과 땅과 개울을 지나 세상 끝까지 이 사랑의 자리에 영혼들을 초청하시는 것이다.”<sup>83)</sup> 라고 정의한다.

특히 주안 장로교회는 그 전까지 한국교회에서 사용되던 “총동원전도주일”이란 명칭을 불신자들이 듣기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 누가복음 14장에 나오는 “큰 잔치를 배설하신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예수 사랑 큰 잔치”라는 명칭을 착안하였고 지금까지도 그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sup>84)</sup>

나겸일은 총동원전도만이 전도의 전부는 아니지만, 주안장로교회는 총동원전도를 통해 성장해 왔고, 지금도 총동원전도를 통해 성장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이것은 바로 총동원전도가 살아있는 전도방법임을 입증하는 것이다”라고 한다.<sup>85)</sup> 그는 계속해서

82) Ibid., 71-72.

83) Ibid., 73-74.

84) <http://w3.juan.or.kr/index.asp> 주안장로교회 인터넷 홈페이지 참조바람.

총동원전도방법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반복되는 전도 프로그램이 곧 전도의 열매이므로 전도는 일회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교회는 꾸준히 전도운동을 반복해서 실시해야 한다고 한다. 무엇보다 주안장로교회가 20년 이상 한 가지 전도방법인 총동원전도를 진행하는 가운데 시간이 지날수록 총동원전도방법을 통해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것을 근거로<sup>86)</sup>, “한 생명이 잉태되고 변화할 수 있는 기다림이 있는 전도법, 이것이 총동원전도다”라고 총동원전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sup>87)</sup>

#### 나. 총동원전도에서의 복음

나겸일은 총동원전도는 교회 공동체 속에 전도운동과 영적 각성 운동을 동시에 불러일으키는 전 교회적 운동이다. 총동원전도는 외적 운동이기 이전에 내적 운동으로 교회 밖을 향해 선포하기 전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전도인의 사명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우는 데 있다고 한다. 그러면서 그는 총동원전도를 “교회의 모든 인적, 물적, 영적 자원을 총동원하고 정한 날에 온 교회가 전도하는 것에 집중해, 영혼구원이라는 지상최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다”라고 정의한다.<sup>88)</sup>

또한 총동원전도를 진행하는 일에 있어서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해 구원을 받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성숙하게 하는 데 목적을 둔다. 나겸일은 총동원전도주일의 가장 큰 목적과 본질은 영혼구원이라고 하면서 교회의 모든 사역과 행사의 최종적인 목적은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으로 “죄에서 죄인을 구원하는 것이다”라고 한다.<sup>89)</sup> 그래서 교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보면, “교회에 한 번도 발을 디더본 적이 없는 사람들을 교회로 초청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고백하게 하는 운동이 총동원전도이다”라고 명시해 두었다.<sup>90)</sup>

85) 나겸일, *New 전도집중교회로 만들라*, 24.

86) Ibid., 30. 실제로 주안장로교회의 연간 성도변화표를 보면 1987년 약 7,000명이던 성도가 총동원전도주일을 실시했던 1988년 12,493명으로 증가했으며 2002년까지 계속해서 성장하여 2002년에는 재적 성도가 52,000명, 출석 교인은 35,500명으로 증가했다. 같은 책 pg.28-29에 나와 있는 “성도변화표”를 보라.

87) Ibid., 22.

88) Ibid., 18.

89) Ibid., 67.

90) [http://w2.juan.or.kr/4\\_2a.asp](http://w2.juan.or.kr/4_2a.asp) 2015년 5월 현재 주안장로교회 총동원전도주일 홈페이지에 명시된 내용을 발췌함.

이것은 Michael Green이 전도를 정의하면서 “전도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쁨으로 충만하여 마치 물이 가득 차 흘러넘치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sup>91)</sup>라고 주장한 것과 일치하는 것으로, 총동원전도 혹은 “예수 사랑 큰잔치”의 전도방법은 인간구원에 관한 설명이나 신학을 넘어서 모든 사람에게 참된 기쁨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진정한 복음이 전도방법의 기본인 것을 알 수 있다.

#### 다. 총동원전도의 전도방법

나겔일은 누가복음 14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를 들며 강권해서 데려다가 채우는 것이 주인의 뜻이며, 이를 순종하는 것이 종의 의무라고 말하면서 “총동원전도는 그 전도에 대한 태도와 방법적인 면에서 강권해서라도 채우는 가장 순종적인 방법이라 말할 수 있다”고 총동원전도 방법을 소개한다.<sup>92)</sup> 또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는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이야기 가운데 나오는 5천 명의 숫자는 당시의 인구 계수법에 따른 성인 남자의 숫자를 가리키므로 실제 그 자리에 모인사람들의 숫자를 약 2만 명 이상으로 추산되며 그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에 비추어 이러한 대규모 전도집회를 통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사람은 스스로 오기도 했지만, 반드시 저들을 초청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한다.<sup>93)</sup>

또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베드로를 통해 3천명이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나온 사건을 인용 하면서 그렇게 많은 인원을 모으기 위해서도 그 당시 분명히 여러 사도와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전하고 다녔을 것이며 이와 같이 오늘날에도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교회와 성도들이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을 교회로 모으는 일이 총동원전도를 통해 교회에 적용되고 있는 총동원전도 방법이라고 한다.<sup>94)</sup>

##### (1) 교회차원에서의 전도방법

총동원전도 방법은 무작정 믿지 않는 자들을 교회로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91) Michael Green, *현대 전도학*, 16-17.

92) 나겔일, *New 전도집중교회로 만들라*, 69.

93) Ibid., 70. 나겔일은 “그들의 전도방법은 일단 와서 듣고 보라는 것이다”라고 한다.

94) Ibid., 68-71.

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철저한 준비단계를 거쳐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총동원전도집회를 통해 교회의 모든 성도가 세상가운데 사는 불신자들을 생활 속에서의 관계전도를 통해 전도하여 그들을 정해진 총동원전도 집회에 초청해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는 일을 위해 전 교회와 전 성도가 모든 영적인 에너지를 총동원 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보통 그들이 신뢰하는 사람과 관계를 통해 만남을 만들어 간다. 특별히 밀접하고 지속적인 관계는 믿음을 쌓아주기 때문에 좋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시는가?', '나는 하나님에게 가치 있는 존재인가?', '하나님은 내가 해왔던 일들을 용서하실까?'와 같은 극히 개인적이면서 영적인 관심거리에 대해서도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 하나님도 태초부터 인간과 관계 맺기를 원하셨다. 창세기는 아담과 하와와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하나님에 대해 말씀한다. 또한 하나님의 특별한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발전시킴으로써 그 나라를 시작하셨다. 이후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깨어진 관계를 치유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복원시키기 위하여 오셨고, 성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다.<sup>95)</sup> 이처럼 우리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으며 전도 역시도 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안장로교회는 이 일을 위해 연말 정책당회 이전에 기획위원회를 구성해, 다음해 정해진 목회력과 총동원전도 일정에 따른 총동원전도의 기본 전략, 조직, 예산 등 총동원전도의 전체 계획을 한다.<sup>96)</sup> 특별히 기획위원회에서는 총동원전도의 전체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총동원전도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주안장로교회의 영적, 인적, 물질 자원을 총동원해 전도에 임하기 위해 사전 계획을 수립하고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한다.<sup>97)</sup> 관계전도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에서 다룬다.

## (2) 교구에서의 전도방법

총동원전도는 모든 교인들에게 전도해야 한다는 생각을 실천으로 옮기게 하는 중요한 동기를 제공하는데, 구체적으로 누구를 전도해야 할지 대상을 정하고, 전도 대

95) William J. McKay, *나는 돌보는 전도자*, 102.

96) 나갑일, *New 전도집중교회로 만들라*, 96.

97) 그 실제적인 방법은 위의 책 3장 "총동원전도의 실제"에서 상세하게 설명한다.

상자를 위해 기도하면서 교회가 준비해 주는 전도 방법에 따라 전도 대상자를 찾아가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반복하면서 생활 속에서 하는 전도 방법을 배우게 된다. 주안장로교회의 전도방법의 특징 중 한 가지는 불신자를 전도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축적된 수년 동안의 전도의 노하우를 통해 주안장로교회는 각 지역 위주로 편성된 교구가 중심이 되어 전도를 한다.

주안장로교회의 전도 중 교구에서 진행되는 교구 전도방법으로는 교구별로 조직을 교구별 각각의 교구장이 전적인 책임과 권한 하에서 진행하는데 각 교구는 자체적인 전도대를 조직해 다섯 구역이 한 조로 편성되어 가장 유능한 집사를 조장으로 임명하고 임명된 조장을 중심으로 전도대를 조직하고 전도할 지역을 나누어 집중적으로 전도한다.<sup>98)</sup>

구체적인 전도방법으로는 교구별로 특별 중보기도회를 갖고 교구별로 전도에 필요한 전도품을 자비로 준비하거나 때로는 교회에서 지원해 주는 전도 용품을 사용하는데, 전도 후에는 반드시 교구장에게 전도 결과를 보고하고 보고된 전도 결과 중에서 전도 가능성이 큰 대상자에게는 교구장이 직접 전도심방을 통해 알곡 전도를 한다. 특별히 총동원전도주일을 앞두고 일주일 전에는 총력전도주간을 갖는데 이 주간에는 교구의 전체 활동을 멈추고 교구에 속한 모든 성도가 오직 전도에만 전념하고 총동원전도 주일 이후에는 전도되어 온 자들을 조장과 구역장이 계속해서 전도한다.

이러한 교구에서의 전도를 통해 온 성도가 전도에 관심을 갖고 전도에 동참하게 되는 큰 장점을 갖고 있지만, 계속해서 전도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 이것은 본 연구자가 8년 동안 모든 성도들을 대상으로 전도하는 일에 대해 설명하고 동기를 부여하면서 겪은 일로 성도들에게는 상당히 부담되는 일이기에 목회자는 부담 갖는 자들에게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전도할 수 있도록 전도에 대한 도움과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한다.<sup>99)</sup>

### (3) 구역에서의 전도방법

주안장로교회에서 진행되는 “구역전도”란 교구에 속한 각 구역에서 작성한 총동

98) 나겸일, *New 전도집중교회로 만들라*, 33-34. 이것은 현재 순복음의정부교회에서 교구별로 진행되어지고 있는 전도방법과 흡사하다.

99) Ibid., 34-37.

원전도 대상자들을 구역별로 총동원전도주일 전에 미리 구역으로 초청해 효과적으로 복음을 제시하고 구역원들과의 관계를 형성해 구역을 활성화시키고 총동원 당일 초청을 확실케 하며 전도를 활성화하는 전도방법이다. 이 전도방법은 불신자들이 총동원 당일 교회에 초대되어 올 때 받는 문화 충격을 완화시킬 뿐 아니라, 예비초청을 통해 알곡 전도의 비율을 높일 수 있다고 한다.<sup>100)</sup>

아쉬운 것은 이 부분이 잘 진행되어지고 있는지 확인 할 수 없다는 것과 그 진행방법이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매우 미흡하게 언급되어 구역전도의 효과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 심도 있게 다루고자 하는 내용이 이 부분인 만큼 구역전도방법과 관련해서 구역모임, 또는 지역모임을 통한 새로운 전도방안에 대해서는 본 논문 5장 4절, “전도활성화를 위한 실제적 대안”에서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하겠다.

#### (4) 구체적인 구역전도의 방법

총동원전도의 전도방법에 있어서 구역을 통해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전도방법으로 성도들은 구역모임을 통해 새신자를 초청하여 간단한 식사와 더불어 간증과 교회 소개 비디오, 복음의 제시, 환영의 순서 등과 같은 자연스러운 프로그램을 갖는다. 이때 구역장이 중심이 되어 모든 전도행사를 자연스럽게 진행하는데 구역원들은 자신들이 전도하기로 작정한 대상자들을 초대한다. 미처 작정하지 못한 구역원도 이때에 추가로 전도할 대상자를 가까운 이웃 중에서 초대해 전도할 수 있다. 특별히 주안장로 교회에서 제공한 “책임 분담표”를 보면, 교구장과 구역장, 구역원이 초청 전과 초청 당일, 그리고 초청 후에 해야 할 책임들이 구분되어 있는데 이것은 본 연구자가 생각하고 있는 지역에서의 전도축제 진행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다.<sup>101)</sup>

모든 진행되어지는 것을 구역장과 구역원이 맡아서 준비를 하는데 비해 본 연구자가 진행하고자 하는 방법은 구역원들이 각각 위원장, 총무, 영성, 회개, 서기, 그리고 세가족을 위한 담당자 및 바나바를 세워 진행하며 초청되어 지역 모임에 참석한

100) Ibid., 53. 이 방법은 본 연구자가 순복음의정부교회에 적용해 보기를 원하는 내용으로 구역전도가 총동원전도주일과 함께 시작되었는지 그 후에 접목되었는지는 좀 더 연구해야 할 것이고 만약에 구역전도 방법이 나중에 적용된 방법이라고 한다면 구역전도 방법의 실제 결과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더 깊이 연구해 보아야 할 과제이다.

101) Ibid., 54에 나와 있는 “책임 분담표”를 보라.

자들을 위한 후속양육, 또한 지역전도축제를 진행할 자들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그 내용은 5장 3절, “새생명전도축제 이후의 새가족 관리”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다.

#### 라. 총동원전도에 있어서의 사후 관리

주안장로교회는 총동원전도주일을 위해 많은 준비를 하는데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총동원전도주일의 목적이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해 구원을 받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성숙하게 하는 데 목적을 두는 것”으로 무엇보다 총동원전도 당일에 등록된 새가족이 교회에 잘 정착되도록 노력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 (1) 환영분과

주안장로교회는 환영분과를 만들어 총동원전도 당일에 등록된 새 가족과 해당 지역을 담당하는 교구장과의 원활한 면담이 이루어지도록 자리를 마련하는데 한끼번에 많은 사람이 면담장소에 찾아올 경우를 대비해 각 교구는 새가족 양육위원 외에 교구 면담요원을 선발한다. 또한, 지원분과를 두어 총동원전도 당일 새가족 등록은 전도자와 동행하는 새가족을 우선 등록하고 전산입력은 자원봉사자들을 통해 예배 시간마다 실시간으로 새가족 등록 카드를 전산실에서 총동원전도 프로그램에 맞춰 입력하고 총동원전도 집회 후에 바로 교구별로 전도자와 전도된 새가족을 분류해 담당 교구장에게 전해 주므로 각 교구에서 새 가족 심방과 양육이 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sup>102)</sup>

##### (2) 총동원전도주일 이후의 관리

총동원전도주일 예배 후 새 가족은 인도자의 안내로 교구별로 마련된 면담장소로 가서 면담시 면담양식지를 기준으로 과거 교회 출석 여부와 교회에 오게 된 배경

102) Ibid., 133-138. 저자에 의하면 총동원전도주일에 등록한 새 가족은 정식 교적을 갖는 주안장로교회의 새가족이 되기 위해서 5주간 새가족 성경공부과정을 마치거나 등록 후 12주간의 주일예배 출석을 통해 정식 주안장로교회 새가족으로 등록되고 교적에 오르게 된다고 한다. 현재 순복음의정부교회는 2주간의 새가족 성경공부 또는 6주간의 주일예배 출석을 통해 정식 성도로 등록되고 교적에 입적되도록 하고 있다.



등을 자연스럽게 질문하고, 복음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에게는 다시 한 번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소개한다. 그리고 다음 환영주일에 만난 것을 약속하고 심방이 가능한 새 가족은 심방일시를 정하여 그 주간에 심방하도록 한다.<sup>103)</sup>

마. 성령에 의지한 방법인가?

나겸일은 총동원전도의 전도방법은 외적으로는 전도의 운동을 일으키면서 내적으로는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바르게 세우는 각성운동으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고 난 다음 120명의 성도들이 예루살렘 거리에 나가 전도자가 되었던 것처럼 전도하기 이전에 먼저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전도는 사람의 기교와 경험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성령께서 채우시는 능력이 두려움을 이기고, 자존심을 극복하고, 장애와 거절을 넘어서서 한 영혼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기까지 역사해야 한다”고 말한다.<sup>104)</sup>

여기서 주안장로교회의 “전도왕”으로 알려진 김종열 권사에 대해 언급해 보면, 김종열 권사의 집안은 원래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이었다. 그러다 넷째 아이를 임신하고 심각한 병에 걸린 후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다.<sup>105)</sup> 그리고 3개월이 지난 주일날, 나겸일 목사가 광고하면서 “오늘 저녁에 특별한 간증 시간이 있으니, 절대 혼자 오지 말고 주변 사람을 꼭 한 명 모시고 와라”하는 당부를 듣고 남편을 설득하여 교회에 나와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고, 1988년 나겸일 목사가 간암으로 사형선고를 받았다가 고침 받고 난 후 1988년 처음으로 총동원 전도주일을 선포한 후 직분 자들에게 전도할 숫자를 정해주었다고 한다. 장로, 권사, 안수집사는 50명, 구역장은 30명, 집사는 20명, 청년은 10명 등등. 그리고 그 전도 목표를 가지고 9월에서 12월 사이에 33명을 전도하여 30명의 전도 목표를 초과달성했다고 한다.

김권사는 전도 비결을 인관관계를 맺는데 있고, 전도대상자에 대한 메모를 습관적으로 하며, 가정의 삶에 충실하고,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그곳을 전도의 장소요, 만나는 사람을 전도대상자로 생각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그녀는 전도에 실패하는 가장 큰 일종의 하나로 “인내심의 부족”을 들었다. 무엇보다도 주안장로교회 총동

103) Ibid., 162-165.

104) Ibid., 20.

105) 교회성장연구소, “총동원 전도로 전도의 포문을 열다”, 교회성장, 2006년 3월호, 47.

원전도주일을 통해 동기부여를 받아 열심히 하였을 뿐, 많은 사람을 전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하나님의 은혜였지 자신의 기술이 아니었다고 고백한다.<sup>106)</sup> 이에 대해 나겸일은 제적 7만 5천, 출석성도 3만 5천의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이었다”라고 말한다.<sup>107)</sup> 이와 같이 주안장로교회의 총동원전도를 통한 전도는 성령에 의지한 전도인 것을 알 수 있다.

#### 바. 총동원전도의 전도방법에 대한 분석 및 평가

총동원전도의 전도방법에 있어 장점은 전도대상자를 초대해서 교회에 오게 하는 것은 비교적 쉽다는 것이다. 그래서 전도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전도에 대한 자신감을 줄 수 있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전도하는 일에 동참하려고 하는 분위기 가운데 성도들이 전도하는 것으로 단합될 수 있다. 또한 전 성도가 단합하여 전도에 열정을 쏟고 특히 지역내 전도 대상자를 파악하고 전도함으로 교회와 지역사회와의 유대가 강화될 수 있다.<sup>108)</sup>

그런데 이 전도방법의 단점은 많은 시간과 재정적 지출에 비해 일회성 이벤트 형식의 행사가 될 수 있다는 것과 총동원전도주일을 통해 회심하는 사람이 미비할 수 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을 전도로 착각하여 가시적인 동원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낭비하게 되는 단점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신일교회 담임목사인 이권희는 “성도들이 억지로 전도출석 숫자를 채우기 위해 다른 교회 성도들을 빌려오거나 뺏어오는 상황이 생길 수 있고,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이 멀리 사는 친척이나 자신과 친분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데려오는 등 불필요한 경쟁이 생기될 여지가 있다”<sup>109)</sup>고 그의 목회학 박사학위 논문에서 언급한다. 또한 총동원주일을 통해 대형교회들이 부근에 있는 소규모 교회의 성도들을 데려오므로 주위에 있는 개척교회 혹은 소형교회들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다. 무엇보다 교회에 한 번 출석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교회에 새신자가 출석한 이후에 후속양육의 결여로 인하여 새신자가 교회에 정착하는 비율이 낮을 수 있다.

106) Ibid. 47-50.

107) 나겸일, *전도마을 만들기* (서울: 교회성장연구소, 2005), 5.

108) 나겸일, *총동원전도와 교회성장* (서울: 샘물사, 1992), 205.

109) 이권희, “전도사역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목회전략”, 43-44.

## 2. 왕성교회의 태신자 전도방법

“태신자 전도운동”은 1990년대 왕성교회에서 처음으로 시작되었다. 당시 한국교회는 직접적인 영혼구원보다는 교회의 자리만 채우기에 급급한 때였고, 전도의 본질을 잃어버린 전도가 팽배한 시절이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왕성교회는 교회가 잃어버린 전도의 본질을 되찾고 예수의 지상명령을 회복하자는 차원에서 태신자 전도 운동을 만들어 냈다.<sup>110)</sup>

### 가. 태신자 전도축제에서의 복음

당시 왕성교회의 담임목사인 길자연은 태신자 전도운동의 특징을 예수를 알지 못하거나, 이전에 예수를 알았다가 떨어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한다. 1980년대 기도하면서 “태”자 라는 소리를 두 번 듣게 되었고 한의사였던 까닭에 “태”자를 여자들이 아이를 갖는 것으로 생각해서 마치 여자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갖고 출산해서 양육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태신자 전도운동 방법을 고안해낸 것이다.<sup>111)</sup>

이에 대해 김선일은 태신자 전도축제에 대해 단순히 불신자를 가리키는 다른 이름인 ‘태신자’로 소개한 것이 아니라, 전도의 전 과정을 체계화시키면서 이를 생명체 원리로 풀어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면서 태신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므로 태신자 전도를 관계적이며, 긍정적인 전도 모델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추진력이 된다고 했다.<sup>112)</sup> 또한 최동규가 평가한 것과 같이, 태신자전도방법은 성경에서 그 원리를 추출했다는 점에서 매우 성경적이다라고 할 수 있다.<sup>113)</sup>

특별히 태신자 전도에 있어서 그 특징 및 원리로는 “7가지 원리”로 생명의 원리, 건강의 원리, 관계의 원리, 사랑의 원리, 모방의 원리, 출산의 원리, 그리고 축복의 원리로 정리될 수 있는데<sup>114)</sup>, 생명의 원리라 함은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전도로 영적 생명을 살리시는데, 전도는 먼저 생명을 받은 성도가 태신자에게 생

110) 교회성장연구소, *태신자 전도, 성공모델에서 답을 찾다*, (서울: 교회성장연구소, 2010), 6.

111) Ibid., 89.

112) 김선일, 최동규, 문인수, “한국 교회 전도프로그램을 진단한다 II 태신자전도,” *목회와신학*, 2009, 8월호, 106.

113) Ibid., 106. 이어서 최동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남의 비밀과 영적 출산, 그리고 그것을 사역의 과정에 적용한 사도 바울의 말씀으로부터 전도 방법의 원리를 추출함으로써 매우 확고한 설득력을 가진다”고 한다.

114) Ibid., 106. 같은 논문에서 발췌함.

명을 전달하는 것이다. 사랑의 원리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이루어지고, 사람에게 적용되는 사역의 중심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심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래서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흐르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본다. 모방의 원리는 아담이 자기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자녀를 낳듯이, 우리의 태신자는 우리를 닮게 되는데 태신자를 전도하는 자가 신앙의 모델이 되는 것을 전도의 중요한 요소로 보는 것이다. 출산의 원리는 생명의 잉태도 하나님의 역사고, 출산도 하나님의 역사로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리스도를 주시라 할 수 없고 태의 열매는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듯 태신자를 얻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보는 것이다.

#### 나. 태신자 전도방법

태신자 전도는 관계성을 중시하는 살아 움직이는 전도방법으로 소수의 전도 특공대원들을 움직이는 전도방법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예수의 지상명령에 모든 성도들이 순종하여 모든 성도가 전도하는 일에 함께 동참하고 전 교회가 전도운동을 전개해 나가는 전도방법이다. 특별히 다른 전도방법에서의 관계전도방법은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과 관계 맺어 전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면, 태신자 전도방법에서의 관계는 전도대상자들을 마음에 품고 전도될 때까지 기도함으로 영적으로 관계가 맺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태신자 전도의 관계전도 방법은 다른 전도방법들 보다 더 깊은 관계를 말하며 더 큰 전도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한다.<sup>115)</sup>

#### (1) 준비

태신자 운동의 기초단계로 한 해 태신자 운동의 조직을 만들고 기본 방향과 전략들을 기획하는 단계로 3개월간 진행될 전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12월말 경이나 1월초 중에 3명에서 5명 정도의 전도 기획팀을 구성하여 담임목회자에 의해 태신자 전도 운동의 기본 방향에 대한 결재가 나면 전 교역자를 포함하는 태신자 운영 조직이 구성된다.

115) 교회성장연구소, *태신자 전도, 성공모델에서 답을 찾다*, 91.

## (2) 태신자 예비작정

태신자 운동의 기본방향은 가능하면 담임 목회자의 신년 목회계획에 맞춰 수립하여 전 교회가 하나님의 방향으로 힘을 모을 수 있도록 하되 실제적인 전략은 전반적인 사회상황과 사람들의 필요를 고려해 수립한다. 예를 들어, 관계에 근거한 대상자들을 선별하여 태신자로 작정할 수 있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므로 교인들로 하여금 태신자 작정을 실제로 품을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것은 태신자 전도운동의 70퍼센트를 차지하는 매우 중요한 단계이다.<sup>116)</sup>

또한 지역에 근거하여 전도 대상자들을 정하도록 하는데 그 기준은 먼저 본 교회에 출석할 수 있는 사람, 도보로 15분,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20-25분 정도 거리의 사람 등 지역마다 다른 거리를 구분하여 본인이 거주하는 곳과 교회가 너무 멀어 본 교회에 참석할 수 없는 자는 태신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 대신 멀리 사는 자들을 위해서는 기도하도록 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성도들에게 태신자를 품을 수 있도록 하므로 모든 성도들이 부담 없이 전도하는 일에 동참하도록 하는 방법은 태신자 전도 방법을 시도하기 원하는 전도방법에 있어서 꼭 필요한 방법일 것이다.

## (3) 작정

작정단계는 작정자들이 태신자를 3명씩 작정하여 작정카드를 교회에 제출하는 단계로써 태신자를 임신하는 단계라 할 수 있다. 작정에는 1, 2차 작정이 있다. 1차 작정은 주일예배 때 하며 주일학교, 중, 고등부 및 청, 장년부를 모두 포함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기도하며 마음속에 작정한 전도 대상자인 태신자를 작정카드에 기입하는데 개인보관용은 개인이 성경책 앞면에 부착하고, 교회 제출용은 헌금시간에 제출한다. 영아, 유아, 유년, 초등, 소년부는 교육위원회의 관리 하에 작정하도록 한다. 말씀

116) Ibid., 31-38. 여기서 저자는 현대인의 문제의 대부분이 관계에서 초래됨을 이야기 하며 전도에 있어서도 관계가 전도의 최상의 수단이 된다고 강조한다. 특별히 성경에 나타난 생활양식 전도는 이미 수립된 관계를 통한 전도였다는 것을 강조하며 안드레는 베드로에게,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우물가의 여인은 자기 마을 사람들에게, 빌립보 간수는 그 집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과 같이 성도는 모든 이웃들에게 사랑의 다리를 놓아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하면서 그 관계를 자신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족, 친구, 이웃 등으로 설정하여 가족과, 친구, 그리고 이웃 가운데 구체적으로 태신자로 품을 수 있는 사람들을 작정하고 품을 수 있도록 한다. pg.32을 보라.

선포와 간증, 드라마 공연과 영상물 상영 등을 통해 작정을 위한 동기를 부여한다.

2차 작정은 1차 작성시 참석하지 못한 성도나 1차에 작정을 했지만 2차에 또 작성하기 원하는 성도들이 추가로 작성하도록 한다. 그리고 작성된 명단을 먼저 교구별로 교역자에게 보고하고, 목장별로 분류하여 목자들에게 나누어 주며 개인별로 분류된 작성자 명단은 기획국에 제출하여 전산화한다.

#### (4) 작성자(영적 산모) 관리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산모가 건강해야 하듯 태신자를 작성한 작성자의 영적 관리는 매우 중요한데 신앙생활에 안정감을 가져야 하기에 영적인 산모가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 나와 영적으로 안정감을 갖도록 힘쓴다.<sup>117)</sup> 이것은 전도를 시도하는 일에 있어서 새로운 방법으로 전도하는 자를 영적인 산모로 생각한다면 교회에서는 전도대상자들 뿐 만 아니라, 태신자들을 품은 자들 또한 산모를 대하는 심정으로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어야 할 것이다.

#### (5) 초청

초청단계는 총동원 태신자 초청일이 임박하면서 교회가 전체적으로 태신자 초청에 관심을 집중시키도록 하고, 태신자를 초청하여 결신하도록 총력을 기울이는 단계다. 이 기간 동안에는 새벽기도 축제를 통해 성도들이 새벽기도를 작성하고 기도하며 3차에 걸친 특별 철야기도회를 통해 작성된 사람들이 태신자 전도운동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태신자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한다. 그리고 목장 대심방을 통해 각 교구 목사와 전도사 그리고 목자들이 목장별 심방을 하면서 아직 등록하지 않은 태신자들을 등록하도록 권하는 기회로 삼으며, 태신자들을 작성해 놓고 전도의 수고를 하지 않는 작성자들을 격려하여 그들이 품은 태신자들을 기쁨으로 초청할 수 있도록 한다.

#### (6) 총동원 초청주일

총동원 초청은 지금까지 기도하며 작성하고 접촉해 왔던 태신자들을 구체적으로

117) 교회성장연구소, *태신자 전도, 성공모델에서 답을 찾다*, 41.

교회로 인도하여 등록하게 하는 단계로 태신자 전도운동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다.<sup>118)</sup>

등록단계는 1차와 2차로 나누는데, 1차 등록단계로는 태신자 초청일로 작성한 날 이외에도 3월 이후로 계속해서 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작성된 태신자가 교회에 나오면 새신자 등록실에서 우선 등록을 한다. 태신자가 등록을 하면 새신자 교구에서는 그 주 안에 심방을 한다. 심방 후에는 목자 또는 교구 담당자와 태신자가 연결되도록 하여 12동안 교회 소개지와 복음편지 및 새신자 12주 성경공부 교재를 발송한다. 2차 초청단계로는 태신자 초청 총동원의 날을 선포한다. 그리고 작성된 태신자 중 등록하지 못한 태신자들을 이날 초청한다. 그리고 초청되어진 태신자들이 결신하도록 예배시간에 결단의 시간을 갖는다.<sup>119)</sup>

#### 다. 태신자 전도방법의 후속조치

왕성교회는 한 명의 태신자가 교회로 인도되어 예수를 알게 될 때 그들을 영적인 어린아이로 보고 면역성도 약하고, 지속적인 보살핌이 없으면 세상의 습관, 생활, 문화 등에 휩싸여 다시 예수님을 영접하기 이전의 원상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어린아이에게 우유가 필요하듯이 태신자들에게는 따뜻한 결려와 돌봄이 필요하므로 교회에 등록한 태신자를 돌아보고 효과적으로 양육하여 왕성교인이 되고 또한 저들이 다른 태신자를 재생산할 수 있는 신앙인으로 자라게 하는 것을 사후 관리의 목적으로 한다.<sup>120)</sup>

왕성교회는 먼저 등록된 태신자를 교구별, 구역별로 분류하여 분류된 자료를 기초로 하여 각 교구 목사들이 구역장들과 함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구역장들이 구역별로 구역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분류된 태신자는 각 교구 목사의 책임 있는 지도아래 1차 심방을 하고, 심방이 불가능한 가정은 작성하고 인도한 성도를 통해 태신자를 파악하고 관리해 간다. 그 후에는 등록된 태신자가 왕성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있어서 어색함을 없애기 위해 교구별로 태신자를 환영하는 예배 모임을 갖는다.

118) Ibid., 46.

119) Ibid., 46-47. 조금 더 구체적인 초청 당일 계획에 대한 내용은 같은 책 pp.48-49를 참고하기 바람.

120) Ibid., 50.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위해 해산의 고통을 감수하면서 그들을 사랑과 기도로 돌보았듯이(갈4:19), 구역장을 중심으로 매 구역예배 때마다, 구역장의 인도 하에 등록된 태신자의 신앙이 자라갈 수 있도록 항상 합심기도를 한다. 그리고 방금 출생한 영적 새 생명들에게는 영적 산모와의 지속적인 신앙의 교제가 필요한데 바나바가 예수 믿기 시작한지 얼마 안 된 바울을 신앙 공동체 안으로 인도했듯이(행 11:24-26), 결심한 태신자가 교회에 잘 적응해 나가며 믿음의 뿌리를 내리도록 인도자와 같은 구역에 속한 성도들이 매주일 예배 때마다 함께 예배에 참석해 주고 구역에 배나 수요일예배 등에도 참석하도록 이끌어 준다.<sup>121)</sup>

본 연구자가 왕성교회의 태신자전도방법에 대해 연구하면서 눈여겨 본 내용이 바로 태신자전도방법에서의 사후관리이다. 본 장 뒷부분에서 태신자전도축제 운동의 약점으로 사후관리에 있어서의 양육을 언급하겠지만, 본 연구자가 섬기고 있는 교회 또한 태신자 초청잔치와 비슷한 새생명전도축제를 진행하면서 태신자를 잘 양육하는 것은 전도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자는 태신자 전도방법을 통해 전도한 이후의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김선일이 제안한 것처럼, 전도대상자를 작정하고 전도 대상자들을 품으며 그들을 초청하는 과정만을 생명체의 원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전도 사역이 이루어지는 전 과정과 교회의 다른 사역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하며, 또한 교회에서 지역 사회를 섬기는 다양한 사역들이 전도의 중심에 잠재력으로 배려되도록 할 때, 비로소 점점 개인주의화되는 도시사회, 특히 대단위 아파트 문화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태신자전도방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된다.<sup>122)</sup>

교회는 성도들로 하여금 전도 대상자들과 전도를 위한 관계를 세우도록 하기에 앞서 교회가 먼저 지역사회와의 장기적이고, 광범위한 소통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것은 본 연구자가 섬기고 있는 순복음의정부교회에서도 실천되어야 할 너무나도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라. 성령에 의지한 방법인가?

태신자 전도축제의 시작은 기도운동이었다. 길자연 전도사가 왕성교회에 부임하

121) Ibid., 52-53.

122) 김선일, 최동규, “한국 교회 전도프로그램을 진단한다 II 태신자 전도”, 106.



여 가장 먼저 실천한 목회 프로그램이 기도운동이다. 길자연 목사는 목회를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기도운동을 통해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해지면 교회부흥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확신했다.<sup>123)</sup> 그래서 왕성교회의 태신자 전도운동을 실시하는 교역자들은 끊임없이 기도하며 성도들에게도 태신자를 위해 기도하도록 한다.<sup>124)</sup> 이렇게 태신자 전도축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태신자 전도축제를 통한 전도가 사람의 힘이 아닌 철저하게 성령의 힘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믿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 마. 태신자 전도방법에 대한 분석 및 평가

이 전도방법은 총동원전도와 다르게 일회적인 행사가 아니라 마치 어머니가 10달 동안 아기를 잉태했다가 10개월 후에 출산하는 것과 같이 한 성도가 비신자를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 약 10개월 동안 기도하고 전도하여 결신하도록 하는 전도방법으로 단회적인 연중행사로 끝나는 총동원주일의 전도방법보다는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태신자 전도운동이 교회에 미친 긍정적 평가와 성과들을 보면, 첫째로 모든 성도들이 지속적으로 전도할 수 있게 하는 전도 방법으로 다른 전도방법에 비해 “새신자의 높은 정착률”을 꼽을 수 있다.<sup>125)</sup> 이것은 왕성교회 뿐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도 볼 수 있는 일로 남자 성도들의 정착률 또한 다른 전도방법에 비해 월등하게 높다는 것인데, 그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전도자들이 태신자와 자연스러우며 깊은 관계를 맺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한다. 실제로 왕성교회에서 1989년에 태신자 전도를 위하여 기획하고 1990년 한 해 동안 태신자 전도를 실시한 결과, 1989년 말에는 여성 성도의 비율이 전체 성도의 69 퍼센트였으나 1999년에는 54.5 퍼센트로 감소하므로 아내들이 남편들을 태신자로 품고 전도한 결과 여자보다는 남자 성도가 더 많아졌다고 한다.<sup>126)</sup>

123) 교회성장연구소, *태신자 전도, 성공모델에서 답을 찾다*, 21.

124) Ibid., 92. 왕성교회는 태신자 초청 4주 전부터 전 교역자가 매일 정오에 한자리에 모여 20분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함께 식사를 함으로 팀워크를 형성한다. 또한, 전도를 위해 보통 2월에 태신자를 작정하고 품으면 태신자 초청이 있는 9월이나 10월까지 끊임없이 기도한다.

125) Ibid., 10.

126) Ibid., 24.

그러나 태신자 전도운동의 약점은 태신자 전도방법이 다른 전도운동과 다르게 일부의 성도들을 훈련시켜 점차 그 범위를 넓혀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성도들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모든 성도가 전도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를 준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모든 교회의 관심이 태신자 전도운동에 집중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소홀이 여겨지는 부분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양육과 훈련이다.<sup>127)</sup>

이 부분은 본 연구자가 지난 8년의 전도축제를 통해 경험한 바이며 새가족이 교회 안으로 초청하고 인도하는 일까지의 계획뿐 아니라, 별도의 양육 프로그램과 훈련 프로그램 또한 준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현재 순복음의정부교회에서는 주안장로교회와 같이 새생명전도축제를 마친 후에는 새가족들을 위한 성경공부를 주일뿐 아니라, 수요일에도 진행하고 있으며 새가족실에서의 양육과 함께 반드시 6번의 주일출석을 등록성도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 한다. 하지만 2015년 7월 현재, 4주의 새신자 성경공부를 2주로 단축해서 진행하고 있는 상태이며 새신자 교육을 보장하는 부분은 좀 더 깊이 연구하고 앞으로 더 나은 방법을 모색하여 새롭게 진행되어야 할 사항이다.

### 3 사랑의교회의 대각성전도집회의 전도방법

1982년부터 사랑의교회에서 시작된 대각성전도집회는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전부터 불신자들과 좋은 이웃관계를 맺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복음을 전하며 전도 이벤트에 초청하고 집회이후에도 지속적인 양육을 제공하는 복음전도 방법이다.

#### 가. 대각성전도집회란 무엇인가?

사랑의교회는 제자훈련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제자훈련이 이미 제자훈련으로 준비된 성도들의 영혼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영적 산고를 통해 각성되고 책임 있는 양육으로 이어지는 지속적인 전도활동(대각성전도집회)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면 제자

127) Ibid., 13-14. 이에 대해 국제전도훈련연구소장이며 서울신대 교수인 하도균은 복음 전도의 궁극적 의미는 복음을 통해 예수를 영접하게 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때까지 양육하고 훈련을 통해 세워가는 것까지를 말하므로 양육과 훈련이 교회 안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한다.

훈련은 우리는 쟁과리에 불과했을 것이라고 한다.<sup>128)</sup> 특별히 해마다 가을이 되면 사랑의교회에서는 대각성전도집회가 열리는데, 대각성전도집회는 교회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전도”라는 단어를 빼고 “새생명축제”로 불리기도 한다.<sup>129)</sup> 중요한 것은 사랑의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각성전도집회” 또는 “새생명축제”는 제자훈련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국제제자훈련원에서 지원하는 대각성전도사역과 관련한 인터넷 사이트를 보면, 개요란에 “대각성 전도집회를 원한다면 먼저 사랑을 키우는 목회, 제자훈련부터 시작해야 합니다”<sup>130)</sup>라고 명시해 두었다.

이권희도 그의 논문에서 새생명축제는 제자도와 깊은 연관이 있다고 말하는데, 제자도는 전적 위탁, 순종 그리고 증인의 세 가지로 압축된다고 한다.<sup>131)</sup> 그러면서 그 중에 제자훈련의 열매는 증인으로의 변화인데 자신이 훈련을 통해 변화되는 것이 제자훈련의 일차적 목적이고 더 나아가서 그 변화된 성도가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삶에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여 다른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데 있다고 한다. 계속해서 그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지상명령을 주었는데, 성도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제자훈련을 하려면 성도들이 전도하기에 앞서 먼저 예수의 제자로 세워져야 한다고 한다. 제자훈련은 교회의 연중행사가 아닌 목회사역으로 이해해야하고 제자훈련을 통해서 전도되어야 하고 예수의 제

128) 박명배, “건강한 전도사역을 통한 교회성장에 관한 연구, 사랑의교회 전도사역을 중심으로” (D.Min. diss., Fuller Theological Seminary, 2007), 33. 박명배는 그의 논문에서 사랑의교회의 전도방법인 “대각성 전도집회”와 관련하여 사랑의 교회에서 복음전파 사역의 총책임자로 섬겼으며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사랑의교회에서 진행된 대각성 전도집회에 관한 세부 내용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대각성전도집회를 전도폭발 사역과 함께 연구했다. 이후에 “대각성 전도집회”는 사랑의교회 외부에서는 “새생명축제”로 불리게 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자는 박명배 목사의 후임으로 사랑의교회의 전도집회를 총괄했던 장수진 목사(2007-2012년까지 전도집회를 총괄함)를 인터뷰 하여 사랑의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각성전도집회와 관련한 다양한 자료를 얻었다.

129) 현재 사랑의교회 내 대각성전도집회와 관련해서는 인터넷 사이트가 업그레이드 중이고, 사랑의교회의 다양한 사역들을 총괄하고 있는 국제제자훈련원(<http://www.disciplen.com>)의 인터넷 사이트 내 대각성전도사역 란에서 대각성전도네트워킹에 가입할 때 대각성전도집회와 관련한 내용들을 얻을 수 있으나 대각성전도집회가 왜 새생명축제로 불리는 이유에 대해서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사랑의교회의 전도집회를 총괄하였던 장수진 목사를 전화로 인터뷰하여 알게 되었으며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시작되었는지는 확실한 자료를 얻을 수 없었다.

130) 국제제자훈련원 <http://www.disciplen.com/training/awaken/intro.asp> 을 참고함.

131) 이권희, “전도사역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목회전략”, 65-66.

자를 만들어야한다는 것이다.

나. 대각성전도집회 전도방법에서의 복음

박명배는 대각성 전도집회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대각성 전도집회는 모든 성도가 세상으로 보냄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본을 따라 잃어버린 영혼을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는 일과 결신한 영혼이 교회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을 지키며 그리스도를 닮아 가는 제자가 되기까지 사랑과 인내로 섬기는 것이다.<sup>132)</sup>

또한 교회 안에 있는 전도 인력을 결집하고 모든 잠재력을 총동원하여 최대의 효과를 얻게 할 수 있는 사역의 현장이 될 뿐 아니라, 더 많은 교회들이 잃은 영혼을 구원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있다고 한다.

사랑의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각성전도집회” 또는 “새생명축제”의 중심에 있는 복음은 모든 성도가 세상으로 보냄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의 본을 따라 잃어버린 영혼을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며 새롭게 결신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가는 제자가 되도록 섬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옥한흠은 “교회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존재하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아 다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성도의 모임으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세상을 위해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의무이다”<sup>133)</sup>라고 강조한다.

계속해서 옥한흠은 John Stott의 말을 인용하여 “평신도가 부름받은 가장 큰 봉사 사역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 즉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sup>134)</sup>라고 말한다. 그에 의하면 교역자나 평신도를 막론하고 전 교회가 전도의 일을 위해 부름을 받았고 교회의 지체로서 교회 안에 있는 자는 누구나 전도의 일을 수행할 은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제자훈련의 목적에 대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본받는 신자의 자아상을 확립하는 것이다. 예수처럼 되고 예수처럼 살기를 원하는 신앙인으로 만드는 데 있다. 이것이 가장 정확한 대답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한다.<sup>135)</sup> 이

132) 박명배, “건강한 전도사역을 통한 교회성장에 관한 연구”, 34.

133) 옥한흠, *평신도를 깨운다* (제판;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14), 109.

134) Ibid., 109.

어서 그는 말하기를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제자는 바울의 제자도, 담임 목사의 제자도 아니요 예수의 제자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 훈련의 주제이고 표준이며 목표이기 때문에 제자훈련에서 예수를 빼 버리면 남은 것은 하나도 없다고 강조한다.

이권희 또한 새생명축제, 또는 대각성전도집회는 제자훈련의 일환으로 철저하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에 근거하는 것이고 새생명축제를 단지 수적 성장을 위한 도구나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새생명축제는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이요 교회가 가장 우선적으로 감당해야 할 사명이라고 강조한다.<sup>136)</sup>

이런 면에서, 대각성전도집회를 시작한 옥한흠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시 여겨지는 것은 예수요. 대각성전도집회와 함께 하는 제자훈련의 모든 것이 예수요. 그야말로 대각성전도집회의 복음은 교회의 성도들 모두가 예수를 각자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를 따르며 예수를 배우고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는 운동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제자훈련에서 강조하는 것은 평신도의 인격이 예수를 닮도록 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옥한흠은 초대 교회 성도들이 '작은 그리스도'라는 별명을 들었던 것처럼, 평신도들은 예수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sup>137)</sup>

이렇게 사랑의교회에서 대각성전도집회를 진행하는 동안 강조하는 것은 예수의 제자화와 함께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교회와 성도들이 전도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데 이것은 사랑의교회에 와서 결신한 자라 할지라도 사랑의교회에 출석하기 힘든 먼 거리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가까운 교회에 나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을 보아서도 알 수 있다.<sup>138)</sup>

135) Ibid., 192.

136) 이권희, "전도사역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목회전략", 65-66.

137) Ibid., 192.

138) 이 부분은 장수진 목사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알게 된 내용으로 고 옥한흠 목사가 지난 2001년 대각성전도집회를 위해 성도들이 태신자들을 품은 후에 동기부여를 위해 2001년 사랑의교회 대각성전도집회 기간 중 발행되었던 우리지 특별호에 기고한 내용을 통해서 확인 할 수 있다. 국제제자훈련원 인터넷 사이트

[http://www.disciplen.com/training/awaken/resource.asp?boardMode=content&tb=PDS10&code=PDS10&num=26&ref=23&page=6&startpage=1&key=&k\\_s=0&k\\_e=0&k\\_w=0](http://www.disciplen.com/training/awaken/resource.asp?boardMode=content&tb=PDS10&code=PDS10&num=26&ref=23&page=6&startpage=1&key=&k_s=0&k_e=0&k_w=0) 를 참고바람.

#### 다. 대각성전도집회의 진행방법

사랑의교회는 대각성전도집회를 위해 4월부터 시작해서 10월까지 적어도 6개월 이상의 준비 기간 동안 모든 성도가 한 번의 이벤트성 전도집회가 아닌 잃어버린 한 영혼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특별히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는 불특정 다수가 아닌 구체적인 개인을 태신자, 또는 전도 대상으로 정하고 6개월이라는 시간과 정성을 드리는데 저들을 예수를 믿기로 결심시키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대상자들로 하여금 예수를 따르는 예수의 제자를 만드는데 초점을 둔다. 무엇보다 사랑의교회에서는 일반성도들과 함께 다락방 순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들에 이르기까지 제자훈련을 통해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기로 훈련을 받은 많은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기에 힘쓰고 있으며 그 일이 가치 있는 일이기에 대각성전도집회를 위해 헌신하고 있다.<sup>139)</sup>

##### (1) 준비과정

대각성전도집회를 위해서는 적어도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준비 기간을 필요로 한다. 그 이유는 모든 전도집회의 기획을 준비하는 것과 함께 대각성집회 자체에 대한 준비뿐만 아니라 새생명축제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태신자를 작성하고, 품은 태신자들을 접촉하고, 초청하는 모든 과정이 집회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또한,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새생명축제는 전도자가 태신자를 새생명축제에 데리고 오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하기로 작성한 태신자가 교회에 나와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고 교회에 등록해서 교회에 뿌리를 내리기까지 많은 수고와 헌신이 따르기 때문에 그만큼 오랜 시간과 많은 헌신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하여 장수진은 6개월이 아닌 1년 동안 분기별로 대각성전도집회를 준비해야 한다고 한다.<sup>140)</sup>

특별히 박명배는 아무리 제자훈련을 받고 열심이어도 교회 규모가 커지게 되면 더 이상 전도하기 보다는 전도하는 일에 대하여 안주하려는 마음 때문에 교역자와 성도들이 “이만하면 됐지 않느냐? 교회가 좋아서 어려움을 겪는 마당에 또 무슨 전도

139) 박명배, “건강한 전도사역을 통한 교회성장에 관한 연구”, 90.

140) 장수진, “사랑의교회 대각성전도집회 사역의 실제”, (강의안; 서울: 사랑의교회, 여름 2010), 3.

냐?”하는 시험에 빠질 수 있다고 한다.<sup>141)</sup> 이에 대해 유정기는<sup>142)</sup> 먼저 교역자 가운데 전도사역에 관여하고 있는 사역자와 행정에 달란트가 있는 교역자를 중심으로 목회자 기획팀을 먼저 조직하게 되는데 목회자 기획팀은 대각성 전도사역의 기본 방향과 전략들을 계획하며 매년 10월에 있는 대각성전도집회를 위해 전년도 12월 중에 기획팀이 확정된다고 한다.<sup>143)</sup> 그 후에는 전파사역 담당 교역자가 평신도들 가운데 전도에 열심히 있으면서도 각 분과에 재능이 있는 사람들을 선택하여 대각성전도집회가 있는 해의 전년도 12월에 담당자로 임명을 하여 1월부터 사역을 감당하도록 한다. 그런데 교역자 기획팀과 평신도 운영위원 팀이 있지만 사실 대각성전도사역은 전 교회적인 사역이므로 필요할 때마다 교회의 모든 부서와 모든 교역자의 도움을 받는다.

특별히 장수진은 1/4분기 준비 사항으로 Concept 정리, 예산계획 및 확인, 부활절 태신자 작성 준비와 열린다락방 준비가 필요하고 2/4분기 준비사항으로는 부활주일 태신자 작성, 열린다락방 가이드북 진행, 그리고 소그룹 기도동력이 필요하며 3/4분기 준비사항으로는 관계형성과 은혜로운 동기부여와 대각성전도집회 본부의 설치가 필요하고 4/4분기 준비 사항으로는 새생명축제 진행계획과, 후속조치를 위한 조직구성 및 교육, 그리고 결과확인과 평가 및 새로운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 라. 대각성전도집회의 후속조치

대각성전도집회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예수님의 대사명의 원리를 따른다. 이것은 곧 제자화의 사명이기도한데 제자화는 가서 복음을 전하여 예수를 믿게 하고 세례를 받게 해서 교회의 한 지체가 되게 하고, 그리고 새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sup>144)</sup> 이러한 이유로 대각성전도집회는 집회가 끝난 이후에도 계속된다.

무엇보다 결신자와 비결신자, 그리고 대각성전도집회에 불참성한 자들에 대한 사

141) Ibid., 46-47.

142) 유정기 목사는 사랑의교회에서 대각성 전도사역, 전도폭발사역, 사랑의전도단 담당을 했었다. 사랑의교회 국제제자훈련원 사이트에서 [www.disciplen.com](http://www.disciplen.com) 발췌.

143) 국제 제자 훈련원 인터넷 사이트

[http://www.disciplen.com/training/awaken/resource.asp?tb=PDS10&code=PDS10&key=&k\\_s=0&k\\_e=0&k\\_w=0&page=7](http://www.disciplen.com/training/awaken/resource.asp?tb=PDS10&code=PDS10&key=&k_s=0&k_e=0&k_w=0&page=7) 내 “사랑의교회 대각성 전도사역 이렇게 한다!”를 참고함.

144) Ibid., 42-43.

후관리를 필수적으로 진행하는데, 사랑의교회는 결신자들이 말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해 두고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예수의 제자들을 배출하도록 한다. 그 자세한 사항들로 장수진은 결신자 환영 모임, 후속양육, 교회등록, 다락방 연결, 세가족 모임, 크로스웨이 평신도 성경대학, 제자 훈련, 사역 훈련 칩 평신도 지도자 과정을 든다.<sup>145)</sup>

이와 같이 사랑의교회는 일련의 과정을 준비하여 교회에 나와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제자가 되고, 사역자가 되도록 하며 또한 그들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가 되고, 사역자가 되도록 섬길 수 있도록 구체적인 후소조치를 통해 전도와 정착, 제자화, 그리고 재생산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 마. 성령에 의한 방법인가?

1978년에 사랑의교회를 개척하고 대각성전도집회를 시작했으며, 제자훈련으로 잘 알려진 옥한흠은 평신도의 잠재력을 중요시 했다. 그래서 그는 평신도를 깨워 복음의 증인이 되는 제자를 만드는 일을 위해 일평생 전념했다. 그런 그는 “교회의 사도적 본질과 성령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sup>146)</sup>고 한다.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자들을 불러 사도들의 증거를 받아 믿고 고백하게 하신다는 것이다. 그리고 구원받아야 하는 다른 자들을 위해 먼저 부른 자들이 소명에 응하도록 하시고 능력으로 무장시켜 주신다고 강조한다.<sup>147)</sup>

특별히 전도에 대해서 성경이 이상할 정도로 전도에 대해 침묵을 지키는 점을 강조하면서 그는 그 이유로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성령의 내적 충동”, 즉 “성령의 사람에게는 예수를 증거하는 일은 일종의 본능적 소산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sup>148)</sup> 즉, 성령이 임하면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자연적으로 하게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전도하라는 명령이 성경에 언급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그것을 증명하는 한 예로 전도하라는 말이 성경에 많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초대 교회는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전도하는 일과 모이는 일에 가장 열심을 다한 점을 강조한다. 그러

145) 장수진, *사랑의교회 대각성전도집회 사역의 실제*(강의안; 1-10.

146) 옥한흠, *평신도를 깨운다*, 99.

147) Ibid., 99.

148) Ibid., 157.



면서 그는 성령은 말세 교회를 증인의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 오셨고 “성령은 지금도 교회에 계시면서 자기 교회를 사도적이 되게 하신다”고 강조한다.<sup>149)</sup>

이와 같은 내용들을 정리해 볼 때, 사랑의교회에 진행되고 있는 “대각성전도집회” 또는 “새생명축제”의 전도는 그 어떤 전도방법보다도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바. 대각성전도집회의 전도방법에 대한 분석 및 평가

지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사랑의교회에서 대각성전도집회를 총괄한 박명배는 대각성전도집회가 사랑의교회에 가져다 둔 몇 가지 유익이 있는데 다음과 같다. 첫째는 질적인 성장으로 구원의 감격이 희미해진 사람들에게 복음을 다시 듣게 하므로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고 주님을 향한 열정이 회복되었다는 것이다. 둘째는 양적인 성장으로 사랑의교회는 대각성전도집회의 전도방법을 통해 숫자적인 성장이 이루어졌는데 실제로 대각성전도집회를 통해 매년 1백 내지 3천 명의 결신자를 얻게 되었으며 이것은 건강한 생명체의 세포가 끊임없이 재생산하는 것과 같이 건강한 교회였기에 전도할 수 있었으며 또한 대각성전도집회를 통해 건강한 교회가 되었다고 말한다. 셋째로, 대각성전도집회를 통해 많은 가정이 복음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각성전도집회는 부흥회나 주일 예배와 달리 말씀과 찬양, 기도, 주제제기 드라마, 영상물 등 모든 순서를 불신자들에게 초점을 맞추어 구성하기 때문에 불신 가족이나 친지, 이웃들이 큰 부담 없이 참석하여 복음의 메시지를 명쾌하게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한다.<sup>150)</sup>

그러나 단점으로는 수적인 성장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여 초청되어 온 사람들의 숫자를 자랑할 수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그리고 그 수에 안주하여 새로운 영혼을 살리는 일에 있어 사명감이 저하될 수 있다. 그렇다. 어떤 전도이든지 사명감을 갖고 하는 전도가 아닌 수적 성장을 위해, 또는 자기 자랑의 기회로 전도를 한다면 그것은 주님을 슬프게 하는 일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도의 방법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특별히 박명배는 “대각성전도집회의 전도방법을 지역교회의 전도사역에 있어서

149) Ibid., 158.

150) 박명배, “건강한 전도사역을 통한 교회성장에 관한 연구”, 39-42.

함포와 같고 전도폭발의 전도방법은 기총 사격과 같다”<sup>151)</sup>고 하면서 대각성전도집회 전도방법의 보완점으로 전도폭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그는 대각성전도집회의 영성한 그물망을 메울 수 있는 것이 전도폭발 훈련이라고 강조한다.<sup>152)</sup> 평신도를 깨우는 제자훈련을 통해 평신도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철저히 무장시켜왔지만 현장에서 복음을 제시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서는 부족한 점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대각성전도집회의 영성한 그물망을 메울 수 있는 것이 전도폭발훈련인데 전도폭발훈련은 성도들 또는 전도자들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도록 을 무장시켜 주는데 기여한다고 강조한다.<sup>153)</sup>

---

151) Ibid., 60.

152) Ibid., 96.

153) Ibid., 91. 새생명전도축제를 2001년에서부터 2005년까지 총괄하며 1985년부터 20년 이상 시행되어진 사랑의교회에서의 전도폭발을 연구한 박명배는 새생명전도축제를 통해 50퍼센트가 교회에 등록하고 나머지 등록하지 않은 50퍼센트는 특별한 관리 및 양육도 필요하다고 하면서 전도폭발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에 의하면 사랑의교회는 전도폭발훈련을 통해 전혀 관계가 되어 있지 않은 노방에서 만난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50퍼센트 이상의 결신율을 얻었다고 한다.

## 제 4 장

### 순복음의정부교회 지역상황 및 목회 현황

본 본 장에서는 순복음의정부교회의 전도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에 앞서, 교회가 위치한 지역상황 및 목회 현황을 살펴봄으로 교회의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것이다. 본 장에서는 먼저, 순복음의정부교회의 역사와 의정부 지역의 특성 및 교육, 문화 및 지역 환경을 살펴 볼 것이다. 그리고 순복음의정부교회의 현황 즉 담임 목회자의 배경과 함께 순복음의정부교회의 목회철학과 비전, 그리고 주요사역들을 살펴볼 것이다.

또한 본 장에서는 순복음의정부교회의 여러 전도전략과 함께 새생명전도축제 이후의 후속조치들도 논의할 것이다.

#### 제 1 절 순복음의정부교회의 역사와 지역 환경

본 절에서는 순복음의정부교회를 이해하기 위해 먼저, 순복음의정부교회가 달려온 지난 30년의 역사를 살펴본 후, 교회가 위치한 지역의 지역적인 특성과 환경을 살펴볼 것이다.

##### 1. 순복음의정부교회의 역사

본 교회는 1985년 5월 30일에 여의도순복음교회의 지원을 받아 여의도순복음교회의 지성전으로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그 사역이 미약했으나 1992년 여의도순복음교회로부터 독립된 독립교회가 되어 그 사역이 여의도순복음교회의 관여함 없이 독립적으로 진행되게 되었다. 물론 모든 것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개척된 것은 아니더라도 초대형 규모의 모교회인 여의도순복음교회의 지원을 받았기에 아무런 후원이나 지원

없이 시작하는 다른 교회와는 그 시작이 달랐다. 그러나 순복음의정부교회의 초창기 멤버이며 현재 중등부 교역자로 수고하고 있는 윤성인 전도사<sup>154)</sup>에 의하면, 처음 교회 개척시기 때는 다른 개척교회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한다. 실제로 순복음의정부교회의 교회 연대기를 보면 개척당시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파송된 교역자만 있었을 뿐, 교회 자체건물 없이 상가<sup>155)</sup>를 빌려 예배를 드렸으며 성도 또한 10여명에 불과했다.

그러한 교회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꾸준하게 성장하게 하셨으며, 1993년 8월에 현재 사용 중인 새성전이 완공되면서 가파른 교회의 성장을 경험하였다. 특별히 1992년에 새롭게 부임한 3대 담임목사였던 박종선 목사<sup>156)</sup>와 함께 크게 성장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 뒤에는 김정숙 사모목사<sup>157)</sup>의 후원도 있었다. 1992년 순복음의정부교회에 부임한 이후 2015년 5월 현재까지 약 23년 동안 오직 예수님과 교회부흥만을 위해 살아온 두 분 목사의 수고와 땀 흘림, 그리고 많은 희생과 헌신의 결과로 오늘까지 주님의 몸 된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한결 같은 모습으로 두 목회자를 도와 수고한 수많은 교역자들, 그리고 40여명의 장로들 이하 1500여명의 제직들과 성도들의 주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었다면 결코 오늘날과 같은 교회의 큰 부흥과 성장은 있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본다.

## 2. 순복음의정부교회의 지역적 특성

본 교회는 경기도 의정부시에 위치하고 있는데, 의정부시는 오래 전부터 양주에

154) 윤성인 전도사는 현재 미군부대에서 일하며 본 교회 개척 이후 평신도 사역자로 그리고 파트타임 교역자로 순복음의정부교회 내 여러 부서에서 사역했다. 미군인 남편 사이에서 태어난 2명의 딸들이 있고 자녀들은 현재 미국에서 대학교에 재학 중이다.

155) 순복음의정부교회 총무국에 비치된 교회 연대기를 보면 1988년에 순복음의정부교회가 소유한 성전은 상가건물 3층 77.87평과 지하 64.93평으로 총 142.80평에 불과한 것을 볼 수 있다.

156) 박종선 목사는 본 연구자의 부친으로 1938년에 출생하여 1950년대 조용기 목사의 불광동 천막교회시절 예수를 믿고 변화를 받아 신학교를 졸업한 후 지금까지 약 50여년을 사역하고 있으며 순복음 교단에서 총회장을 2번 역임하는 등 순복음 교단을 위해 많은 업적을 남겼다.

157) 김정숙 목사는 필자의 모친이요 박종선 당회장 목사의 아내로 1990년 미국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후 순복음의정부교회 당회장 목사의 아내로써 그리고 상담목사의 직분을 가지고 지금까지도 매주 심방사역과 새벽기도 등 교회의 부흥을 위해 내조하며 사역의 현장에서 수고하고 있다.

속해 있었는데, 1942년 일제시대에 의정부읍으로 승격되었고 1963년에 의정부시로 승격되었다. 의정부시는 도봉산 아래 위치하며 경기북부의 수도 관문이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다. 인구는 169,671세대 431,112명이고 행정구역은 15동(592통, 3509반)으로 이루어져있다. 의정부시에서 발행한 2014년 제 2회 의정부시 사회조사 보고서를 보면, 현재 가능2동에 사는 사람들의 87.5퍼센트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사람들로 주택의 규모는 54.0퍼센트의 사람들이 66m<sup>2</sup> 미만의 주택에서 살고 있다. 지역 주거환경 불만족 분야는 환경이 34.6퍼센트, 대중교통이 11.5퍼센트, 교육이 11.3퍼센트 순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투자 및 지역개발 중 시급한 분야로는 환경이 14.5퍼센트, 대중교통이 14.4퍼센트, 보건 복지가 13.7퍼센트 순으로 교육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교회는 가능 2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가능2동은 동으로는 의정부 2동, 서로는 가능 3동, 남으로는 의정부 2동, 북으로는 가능 1동과 접해 있으며, 1.08km<sup>2</sup>의 면적을 갖고 있는 시내동으로 1956년 가능리가 2개 리로 분할되면서 가능 2리가 되었고, 1964년 6월 1일 동제(洞制)가 실시되면서 가능 2동이 되었다.<sup>158)</sup>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가능 2동은 미1군단·미2사단 미군기지가 위치하여 50-80년대까지는 기지촌중심으로 외화벌이 등 부와 유흥의 상징적 도시로 번성하기도 했으나 현재는 전형적 일반주택가로 최근에는 뉴타운사업지구가 해제되면서 도시개발 계획이 무산되었고, 도시슬럼화 현상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다.

특별히 가능 2동은 17통 91반으로 이루어져있는데 세대수는 4,744세대이고, 인구수는 10,821명으로 남자가 5,394명 여자가 5,427명이다. 특별히 논문 뒷부분에 수록된 부록<sup>159)</sup>을 보면, 가능 2동은 다른 동에 비해 세대수와 인구수가 가장 적은 것을 볼 수 있다. 성비는 남자 1.11 여자 1.12로 비율이 거의 비슷하다. 그러나 본 교회는 1교구에서 12교구로 이루어져 있으며 교회의 위는 의정부시 가능2동에 위치해 있지만, 의정부시 전체를 12교구로 나누어 사역을 하고 있기에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도 가능 2동 뿐 아니라 의정부시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전도의 방법이 연구되어야 한다.

158) 의정부시 가능 2동 인터넷 사이트

<http://www.ui4u.net/Site/Dong/page.asp?MCode=M010010000> 에서 발췌함.

159) 부록에 첨부된 내용을 참고바람. 부록은 의정부시의 각 동별 인구 및 세대현황을 2015년 7월 기준으로 제작된 것으로 의정부시 인터넷 사이트 <http://www.ui4u.net> 에서 발췌함.

### 3. 의정부 지역에 대한 교육, 문화 및 지역 환경

의정부시의 교육기관으로는 2015년 현재 초등학교 31개 교, 중학교 26개 교, 고등학교 15개 교가 있으며, 사립전문대학인 경민대학교와 4년제 사립대학교인 신한대학교가 있다. 매년 의정부시에서는 천상병예술제, 회룡문화제, 통일예술제, 음악극축제를 개최하고 있으며, 주요 체육시설로는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의정부체육관, 사이클경기장, 테니스장, 의정부 실내빙상장, 직동인조잔디 축구장과 송산배수지체육시설, 그리고 추동공원 배드민턴장이 있다.

지역 특성으로는 의정부시의 인구 전입 전출이 많은 편으로 2013년 통계를 보면, 2013년 한 해 동안 65,320명이 전입한 반면 전출한 사람은 65,194명으로 이 추이는 2012년 전입 61,489 전출 65,194와 비교했을 때, 매해 약 인구대비 약 15퍼센트의 사람들이 이동하는 것을 알 수 있다.<sup>160)</sup>

믿고 있는 종교는 기독교가 20.9퍼센트, 불교가 15.0퍼센트, 천주교가 7.4퍼센트 순으로 기독교가 타 종교에 비해 높은 편이며 성별로는 종교 있는 여성이 47.2퍼센트로 종교 있는 39.6퍼센트의 남성보다 높은 편이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모든 연령대에서 기독교인이 다른 종교인들 보다 많다는 것이다.<sup>161)</sup> 그러나 잊지 말 것은 여전히 56퍼센트 이상의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의정부시 인구 431,112명 중 56퍼센트는 24만 명이 넘는 수로 과연 아직도 교회와 성도들이 전도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것을 잘 말해준다.

## 제 2 절 순복음의정부교회의 현황

본 절에서는 순복음의정부교회의 간략한 역사 및 현황과 순복음의정부교회의 목회철학과 비전, 그리고 순복음의정부교회의 주요 사역들을 살펴볼 것이다.

160) 의정부시 인터넷 사이트 <http://www.ui4u.net> 내 2014년에 제작된 의정부시 사회조사 보고서를 참고함.

161) 의정부시 인터넷 사이트 <http://www.ui4u.net> 내 통계언보를 참고함.

### 1. 순복음의정부교회의 역사 및 현황

순복음의정부교회는 1985년 5월 30일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독립되어 2개 교구와 3명의 교역자로 의정부 지역에서 첫 사역을 시작하였다.<sup>162)</sup> 그러던 중 1992년 3대 담임목사로 박종선 목사가 미국에서 귀국 후 순복음의정부교회에 부임하여 교세는 7개 교구와 10명의 교역자로 부흥하게 되었고 지금은(2015년 5월 현재) 12개 교구 24명의 교역자로 부흥하여 장로 40명(은퇴장로 8명, 명예장로 1명 포함), 권사 303명, 안수집사 98명, 제직 1508명, 재직성도 약 3000천 세대, 7000여명, 주일출석 성인 약 1700여명, 주일학교 300여명, 청년 120여명의 교회로 성장했다.

2014년 교회에서 제작된 “교구별 제직 명단”을 보면, 교회의 핵심과도 같은 교구의 일을 맡아 12교구가 의정부 지역 뿐 아니라 양주와 동두천, 그리고 멀게는 연천과 포천지역까지 교세를 확장하여 전도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 각 교구별 제직명단 통계를 보면, 1교구에는 장로, 안수집사, 권사와 남녀 서리집사를 포함한 153명의 제직이 있으며, 2교구는 119명, 3교구는 114명, 4교구는 152명, 5교구는 139명, 6교구는 132명, 7교구는 128명, 8교구는 61명, 9교구는 148명, 10교구는 113명, 11교구는 152명, 12교구는 97명으로 총 1508명의 제직으로 이루어져 있다.

더 자세한 교세현황은 매년마다 교무국에서 제작하는 통합 교세월보를 참고하면 되는데 순복음의정부교회에서는 교회성도들의 현황을 교구별로 파악하여 통합 교세월보를 통해 교세의 실적(증가와 감소)을 확인 할 수 있다. 참고로 2015년 1월에 발행된 통합 교세월보를 보면, 1교구는 26지역에 255 AB세대, 82 R세대에 583명의 AB 성도와 144명의 R 성도로 도합 727명의 성도로 이루어져 있다.<sup>163)</sup> 이것을 교구별로 상세히 지면에 기록하는 것은 그 의미가 적다고 판단되어 교구별 통계가 아닌 교회 전체 통계를 살펴보기 원하는데, 2015년 1월 통합 교세월보를 보면 순복음의정부교회에는 전체 283개의 지역이 있으며 2830개의 AB 세대와 6208명의 성도로 이루어져 있다.<sup>164)</sup>

162) 순복음의정부교회 웹 사이트 [www.fguc.net](http://www.fguc.net) 를 참고함.

163) AB 세대 또는 AB 성도라는 것은 교회에 적어도 1년에 한 두 번씩 나오는 세대나 성도를 말하고 R 세대 또는 R 성도라는 것은 현재 연락이 안 되거나 행방불명 된 상태로 교회 출석이 확인되지 않는 세대 또는 성도를 구분한 것이다.

164) 위에 언급된 3000세대 7000여 성도는 각각 AB 세대와 R 세대, 그리고 AB 성도와 R 성도를 포함한 성도수이다.

## 2. 순복음의정부교회의 목회철학과 비전

순복음의정부교회의 담임목사인 본 연구자는 15살에 부모님을 따라 미국으로 이민 간 선교사의 자녀요 평생을 목회자의 자녀로 산 사람으로 한국에서 15년을 살고 미국에서 15년을 산 후, 한국으로 다시 귀국하여 세계 최대교회인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국제사역 및 초대형교회에서 여러 사역들을 두루 경험한 사람이라고 하는 독특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자는 지난 2000년에 여의도순복음교회 소속인 순복음북미총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아 한국에 북미총회소속 선교사로 파송되었고,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외국인 이민이 아닌 국내 또는 미국에 사는 한인들을 위한 사역을 감당하며 어린이 사역과 청년사역, 그리고 이민 2세 대학생들과 국제 결혼한 가정, 또한 국내에 있는 한인들을 대상으로 한 여러 가지 사역들을 두루 경험한 한인 1.5세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 연구자는 한국과 미국을 경험한 목회자로서,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만 사역해온 목회자들과 다르게 사역의 장이 넓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미국에 처음 이민을 가서 겪는 이민자들의 고통과 미국에서 살다가 한국에 다시 나와 겪게 되는 역 이민자들의 역 문화 충격(Reverse Cultural Shock)을 겪은 사람이기도 하다.<sup>165)</sup> 이러한 배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본 연구자에게 주신 본 연구자의 정체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또한 현재 담임목사로 8년째 섬기고 있는 순복음의정부교회의 현 주소를 점검하여 지금보다 더 나은 사역을 펼쳐보기를 소원해 본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본 교회는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독립된 교회로 교회의 정체성을 여의도순복음교회의 교리를 공유하는데 둔다. 순복음의정부교회의 인터넷 사이트를 보면 순복음의 교리는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으로 말할 수 있다고 정의한다.<sup>166)</sup> 간단하게 순복음교단의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을 정의하면 먼저, 오중복음은 그 구조가 성결교회의 4중 복음론과 유사한 면이 있는데 중생의 복음, 성령충만의 복음, 신유의 복음, 축복의 복음, 그리고 재림의 복음의 복음으로 요약할 수 있다.<sup>167)</sup> 삼

165) 2000년 1월 필자가 한국에 나올 때는 이미 한국에 나와 사역할 것을 염두 해 두고 많은 준비를 했으나 한국에 나와 겪은 문화적 충격은 미국으로 처음 가서 겪었던 문화적 충격만큼이나 큰 것이었다. 처음에 한국에 와서는 사람들의 신분이나 삶의 양식을 전혀 구분할 수 없어 약 2년 동안 고생했으나 여의도순복음교회내 국제사역을 감당하며 미군 부대와 영어권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문화적 충격을 이겨낼 수 있었다.

166) 순복음의정부교회 인터넷 사이트 <http://www.fguc.net> 내 '교회소개'를 보라.



중축복은 영적 축복, 환경적 축복, 육체적 축복으로 요약될 수 있다.<sup>168)</sup> 본 연구자는 조용기 목사의 말을 인용하여 “순복음의 오중 복음이 우리의 신앙을 위한 이론(Theory)과 교리(Doctrine)라면 그 이론과 교리를 실천하는 실제(Practice)와 적용(Application)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삼중 축복이다.”<sup>169)</sup>라고 주장한다.

본 연구자는 한국이 아닌 미국에서 목회활동을 경험하고 한국에 나와 한국의 변화된 모습을 보았으며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약 7년 동안 감당하며 여의도순복음교회의 영향을 받았다. 이제 여의도순복음교회의 영향을 바탕으로 성장한 순복음의정부교회를 중심으로 지난 8년 동안 진행해온 순복음의정부교회의 중요한 사역들과 교회의 핵심과도 같은 전도사역을 분석해 보므로 지역교회의 전도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전도방법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 3. 순복음의정부교회의 주요사역들

2007년 본 연구자가 순복음의정부교회에 처음 왔을 당시, 눈에 보이는 큰 문제들은 없었다. 그러나 당회장 목사의 나이와 비례하여 성도들의 나이가 50-70대가 주를 이루고 있었으며, 주일 출석은 1부 예배에 약 150여명, 2부에 250여명, 3부에는 750여명, 4부는 300여명으로 장년출석 1450여명과 청년부 80여명, 그리고 주일학교는 350여명으로 지금보다 약 10퍼센트 정도 적은 상태였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본 연구자가 부임하여 교회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설교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었고 교회의 여러 사역들을 탐방하며 교회의 조직과 행정적 고충 그리고 전반적인 교회와 성도들의 분위기를 파악하는 일이었다. 김상현은 그의 책 *전도 중심교회*<sup>170)</sup>에서 사회과학적 교회 성장 방안에 대해 언급하는데, 본 연구자는 저

167) 국제 신학 연구원, *여의도순복음교회의 신앙과 신학* (서울: 서울서적, 1993), pp.30-34.

168) Ibid., 34-35. 저자는 그 이유를 불광동 천막 교회에서부터 시작된 여의도순복음교회는 설립될 당시 성도들이 가난하고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영적, 육적, 생활적인 삼중적 축복을 삼박자 축복이라고 표현했고, 그 이후에 성도들의 지적 성장으로 인해 삼박자라는 용어를 고집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사중축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었다고 한다.

169) Ibid., 35.

170) 김상현, *전도 중심교회* (서울: 프리셋트, 2006), 68. 김상현 목사는 사회과학적 교회성장 방안으로 경영학적 마인드를 교회에 도입하는 것으로 철저한 분석과 합리적 판단을 기초로 하여 교회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을 서술한다. 철저한 분석요소로는 지역, 지역 교회, 교회성장 요인, 목회자 자신, 교회성장의 장애요인을 포함한다.

자의 분석과 같이 그 당시 순복음의정부교회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분석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개인적인 분석을 통해 순복음의정부교회에 대하여 처음 얻은 결론은 교회와 관련한 대부분의 일들이 비교적 안정적이었는데 특별히 전도에 열심이었고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굉장한 열정을 가진 그야말로 초대교회의 열정을 가진 살아 있는 교회라는 것이었다.<sup>171)</sup>

그러나 아쉬운 점은 당회장 목사와 중간지도자들의 소통의 문제로 서로가 교회를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은 같았으나 사역을 이루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중간에서 서로간의 이야기를 주고받아 줄 수 있는 사람이나 모임이 없어 많은 사역에 집중되어져야 할 힘이 여러 가지 오해들 때문에, 또는 비효율적으로 서로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낭비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본 연구자는 이것을 개선하고자 교회의 강점인 기도와 전도, 지역 모임의 활성화, 그리고 모든 예배에 생명력을 넣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교회 분위기 쇄신에 힘썼고 그 결과로 성도들이 교회에 바라는 점들이 하나 둘씩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본 연구자는 위에서 언급한 예배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전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던 사역들과 관련해서 성도들에게 교회 안에 진행되고 있는 모든 사역의 존재 필요성과 왜 그러한 사역들이 교회 안에서 진행되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미를 새롭게 부여했고 성도들로 하여금 타 교회와 비교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잘 진행되고 있는 순복음의정부교회만의 사역들을 잘 보장하여 교회 안의 사역들이 교회의 강점이 되고 더 뛰어난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했다.

#### 가. 새벽기도회

2007년 본 연구자가 순복음의정부교회에 처음 부임할 당시 매일 새벽에 진행해 오고 있던 새벽 기도회에는 약 50여명의 성도들이 참석하고 있었는데, 이 예배를 위해 매일 약 10여대의 버스들이 운행되고 있었다. 사실상 새벽예배가 존재하고는 있었으나 새벽예배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사역이 진행되고 있기 보다는 조금은 타성에 젖

171) 이 열정과 열기는 2015년 5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매주 진행되고 있는 금요철야 예배에 성도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그것을 실감할 수 있다.

어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고 돌아가는 식의 모임이었다. 그래서 본 연구자는 새벽기도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신 기도요 하나님께 우리의 새벽 첫 시간을 드린다는 중요한 의미를 주일 설교를 통해 성도들에게 강조했다. 또한 본 연구자가 직접 새벽기도를 위해 매일같이 말씀을 준비하여 선포하고 일천번제 기도회를 시작했을 때, 성도들의 반응은 가히 폭발적이었고 새벽기도회에 참석하는 수가 꾸준히 늘었으며 약 200여명의 성도가 매일 새벽기도회에 참석하게 되었고 특별 새벽기도회<sup>172)</sup> 기간에는 400-500명이 모이는 경우도 있었다. 지난 2009년부터는 새 학기를 맞이하는 자녀들까지도 새벽기도회에 참석하도록 강조하였고 전 성도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 새벽기도회에는 약 800여명의 성도들이 함께 참석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도 했다.

#### 나. 금요철야 및 주일 예배

매주 드려지는 금요철야 예배도 여의도순복음교회의 위성을 받거나 또는 부목사 중심의 예배로 드려지고 있었으나 본 연구자가 직접 예배를 인도하며 찬양과 말씀,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기도시간에 열정을 다해 생명력이 넘치도록 한 결과, 지금은 매주 금요일 약 400여명의 성도들이 뜨겁게 모여 저녁 8시 30분부터 11시까지 예배를 드리며 기도회를 갖고 있다. 새벽예배와 금요철야와 함께 직접적으로는 아니었으나 간접적으로 강조한 것이 주일예배의 중요성이었다. 살아있는 예배, 무엇보다 일주일을 영망으로 살다 주일날 교회에 한번 와서 충전을 받고 다시 일주일을 버티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일주일 동안 열심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주일날 교회에 나와 함께 축제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로의 전환을 시도한 것이다.

그 결과, 본 연구자가 처음 부임했을 때 보다 매주 주일예배에 출석하는 성도의 수가 10퍼센트 이상 성장하였으며 헌금액수 또한 매년 국가적인 경제여건과 상관없이 꾸준히 증가하였다. 이러한 부분들이 하나 둘씩 제직들과 성도들에게 인식되자 똑 같은 시간과 헌신을 통해 하나님께 드려지던 모든 기도모임과 공적인 예배에도 생명력이 넘쳐나게 되었고 분위기 또한 많이 밝아지게 되었다.<sup>173)</sup> 실제로 2010년 장로회 회

172) 현재 매달 첫 주는 레23:24-25에 나오는 월삭의 개념으로 특별새벽기도회로 지켜지고 있다.

173) 교회의 분위기를 밝게 하기 위해 영적인 분위기를 바꾸는 것만큼 조명과 음향, 그리고 편

장을 지냈던 이해림 장로에 의하면 교회 분위기가 그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밝아졌고 성도들의 모습 또한 많이 밝고 명랑해 졌다고 했고, 이와 같은 내용을 교회 30여명의 장로들과 여러 제직들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 느끼고 있다는 것은 목회자로서 굉장히 보람되고 마음이 뿌듯한 일이라 할 수 있다.

#### 다. 평신도 사역자(지역장 훈련)

새벽기도회와 철야예배, 그리고 주일예배에 신경을 쓴 것 외에 특별히 많은 시간을 드려 보강한 것이 평신도 지도자의 훈련 및 발굴이었다. 2007년 당시에는 약 200여명의 지역장들은 누구에게도 훈련을 받고 있지 않고 있었으며 이것은 위에서 언급한 소통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고 매주 수요일 수요일예배 후에 본 연구자가 직접 200여명의 지역장중 수요일 모임에 참석할 수 있는 약 150여명의 지역장들을 직접 지도하고 교육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자가 혼자서 모든 지역장들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육내용 전달의 부재와 각 지역장의 사역을 분석하고 평가할 수 없는 단점으로 말미암아 2010년부터는 매주 토요일 오전에 12명의 교구장들이 나와 함께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발행하는 구역장 공과를 가지고 먼저 공부하고 나눔을 가진 후, 똑 같은 내용을 각 교구장들이 매주 수요일예배 후에 각 교구의 지역장들과 공부하고 나누는 방식으로 모임을 갖게 되었다.<sup>174)</sup> 현재는 토요일 교역자 공과 모임도 본 연구자가 직접 인도하지 않고 12명의 교구장들이 매주 토요일 순서를 맡아 공과교제 내용을 준비하고 서로 나눔 후 1시간씩 기도하며 주일을 준비와 함께 교구와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 라. 중보기도 사역

중보기도 사역 또한 본 연구자가 강조하고 보강시킨 사역 중 하나이다. 감사하게도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기관 사역자로 오래 사역했던 이복자 전도사가 자신의 교구

---

안한 분위기에서 성도들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교회내 전구 등을 바꾸고 새롭게 페인트칠을 한 일들은 지금의 발전된 사역에 불쏘시개와 같은 역할을 했다.

174) 김상현, *전도 중심교회*, 209. 김상현은 제자사역과 관련해 자자훈련은 단순히 성경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에 관련된 훈련으로 성도들을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양육하는 것이라고 이야기 한다. 이런 면에서 본 연구자는 순복음의정부교회에 부임하여 지역장들 훈련에 많은 관심과 열정을 갖고 새로운 사역을 시작한 것은 참으로 잘 한 것으로 사료된다.

사역과 병행하며 중보기도 사역에 관심을 갖고 있던 몇몇의 성도들과 함께 2008년 9월부터 중보기도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다. 약 3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는 매주 토요일 중보기도 시간을 오전 11시로 정하여 오후 1시까지 매주 1시간 교육받고 1시간씩 기도하는 중보기도 사역에 동참하는 성도의 수가 무려 100여명에 이르게 되었다.<sup>175)</sup> 부흥하는 교회는 전도와 중보기도 사역, 그리고 새가족 사역이 강하다고 한다. 이 세가지 사역은 쉬운 것 같지만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역으로 그동안 수많은 시행착오와 성도들의 헌신 그리고 지속적인 훈련을 통하여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져 가고 있는 시점에 이르게 되었다.

처음 중보기도 사역을 시작할 때는 12주 동안 본 연구자가 모집된 성도들을 직접 훈련시키고 한 명의 여자 전도사가 중보하는 기도모임을 인도 했으나, 5년 전부터는 12명의 교구담당 교역자들이 한 주씩 중보기도와 관련된 내용을 강의하고 2명의 중보기도 담당 교역자(정, 부)가 돌아가며 1시간씩 중보기도자로 훈련 받은 성도들과 함께 교회와 주일 사역, 그리고 성도들이 부탁한 기도제목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다. 이제는 중보기도 사역을 담당하는 임원들도 세워졌고 중보기도 사역을 위해 지도 장로도 세워지게 되었으며 앞으로는 교무국과 상의하여 중보기도로 훈련받고 중보기도 사역을 마친 성도에 한해 교회 제직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변화도 가져올 계획을 갖고 있다.

#### 마. 새가족실 및 바나바사역

새가족실과 관련해서는 처음 부임한 때에는 나이든 권사들이 새가족들을 환영해 주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행정적으로 새가족들을 돌보고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미흡한 점들이 많이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자가 부임한 후에 자연스럽게 새로운 새가족실 봉사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교구장 중 한 명의 전도사를 담당 전도사로 세우고, 담당하는 지도 장로를 세워 지난 8년여 시간을 고군분투 하며 사역한 결과, 새가

175) 현재는 토요일에 약 40여명, 주일 2부에배시 40여명, 주일 3부에배시 60여명이 중보기도에 동참하고 있다. 특별히 매년 두 차례에 걸쳐 중보기도 훈련학교를 12주 동안 진행하고 있는데 중보기도 훈련학교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약 100여명의 성도들이 새롭게 훈련에 참석하며 토요일과 주일 중보기도 시간에도 참석하여 평균적으로 모여 기도하는 수가 더 늘어난다. 현재도 8월 29일까지 중보기도 훈련학교가 진행되고 있으며 토요일에 모여 기도하는 수는 약 100여명에 이른다.

족 사역에도 많은 변화와 함께 부족하게 생각했던 많은 부분들이 보강되었다.

현재, 새가족실을 위해서 약 20여명의 봉사자들과 담당 교역자, 그리고 한 명의 지도장로가 수고 하고 있으며 본 연구자의 모친인 김정숙 사모 목사님과 부목사 한 명이 매주 새가족 교육을 위해 수고하고 있다. 열약했던 새가족실 장소도 담임 목사님 바로 옆방에 새가족을 위한 공간을 준비하여 새가족들을 순복음의정부교회 최고의 손님으로 맞이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교구를 담당하는 모든 교역자들도 새가족 사역의 중요성을 알고 교구별로 한 명씩 새가족실에서 봉사할 성도들을 선출하여 새가족들을 섬기는 사역에 힘을 쏟고 있다.

순복음의정부교회 새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2주간의 새가족 교육을 마쳐야 하며 또는 6주간의 주일 출석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본 교회 새가족이 될 수 있는데 새가족실에서는 처음 교회에 나오는 성도에게 장미꽃을 나눠주고 함께 사진을 찍는 것은 물론이고 2주 동안의 교육을 마치면 함께 수료식을 갖고 수료증을 나눠줌으로 순복음의정부교회 정식 교인이 되어 침례를 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었다. 또한 모든 새가족의 인적사항이 컴퓨터에 매주 입력됨으로 그 동안 전산상 누락 또는 겹쳐서 행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어지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도 중심의 교회가 되어 순복음의정부교회에 찾아오는 수많은 새가족들을 섬기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참고로 본 연구자가 부임한 이후, 순복음의정부교회에 방문한 사람의 숫자는 매년 1000여 명에 이르며 한 해에 1500명 이상이 방문한 해도 있었다.<sup>176)</sup>

새가족 사역에 집중하며 사역을 하던 중 다시 한 번 깨달은 것은 정착의 중요성이다. 그래서 2012년부터 새롭게 도입한 것이 바나바사역이다. 바나바사역은 바울이 바울 될 수 있도록 바나바가 옆에서 도와준 것처럼, 순복음의정부교회를 방문하여 교

176) 총무국에서 정리한 교회 연대기를 보면 2008년에 처음 시작된 해피데이 전도축제를 통해 730명이 등록, 7월과 8월에 걸쳐 118명이 침례를 받았으며, 2009년에는 명이 855명이 등록, 171명이 침례를 받았고, 2010년에는 734명이 등록, 158명이 침례를 받았고, 2011년에는 789명이 등록, 153명이 침례를 받았고, 2012년에는 902명이 등록 152명이 침례를 받았고, 2013년에는 683명이 등록, 92명이 침례를 받았고, 2014년에는 822명이 등록 122명이 침례를 받았고, 2015년 7월 현재 약 600여명이 새롭게 교회에 등록했으며 금년에도 1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새롭게 침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순복음의정부교회에서는 매년 두 차례 7월 마지막 주일과 8월 둘째 주 주일 오후에 물침례식을 거행하고 있다.

육반고 등록된 새가족, 또는 스스로 찾아와 새가족이 된 사람을 바나바 사역자들이 인도자와 지역장과 함께 잘 돌봐주며 관심을 갖고 붙잡아 줌으로 교회에 정착하여 함께 교회공동체를 이루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이다. 특별히 이 사역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 것은 2012년부터 시작한 새생명전도축제를 진행하면서부터인데, 효과적인 바나바사역을 위해 2012년부터 부목사가 새롭게 부임하게 되어 부목사의 직책을 가지고 바나바사역과 함께 새가족 심방 및 새가족 정착을 위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맡아 사역하고 있다. 새생명전도축제와 함께 시작되는 바나바사역에 관한 자세한 내용들은 본 장 4절 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룰 것이다.

#### 바. 리더들 모임(목회협력 위원회)

본 연구자가 순복음의정부교회를 분석해 본 결과, 가장 필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교회의 분위기 쇄신이었으며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에 대한 자긍심과 애착심을 갖도록 하여 전도가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라 삶의 일부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도 그 일을 위해 힘을 쓰고 있는데, 특별히 위에서 언급한 모든 부분들이 이러한 노력의 일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다른 교회가 갖지 못하고 있는 장점들을 본 교회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고, 본 연구자가 한 일은 교회와 성도들이 잘하고 있는 사역들의 의미를 성도들에게 잘 설명해 해주어 성도들에게 동기를 부여해 줌으로 더 많은 성도들과 평신도들이 사역에 대한 신뢰를 갖고 모든 사역들에 기쁨으로 동참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외면적으로 성도들에게 강조한 것들은 하나도 없지만 새벽기도회와 모든 공 예배, 그리고 소그룹 모임이 활성화 되었으며 중간 지도자들과의 소통도 이전 보다 활발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사역들에 더하여 교회내 리더들 간의 원만한 소통을 위해서 그 동안 담임 목사와 31명의 장로들 중 7명의 운영위원 장로들만 갖고 있던 모임을 보다 많은 교회 리더들과 공유하기 위해 지난 8년여 동안 본 연구자가 직접 국과 기관을 담당하는 장로 및 대표되는 제직들과 매달 셋째 주일 오후에 모임을 가졌고, 교구와의 소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매달 마지막 주일 오후는 교구를 담당하는 교구장들과 교구를 섬기는 지도장로들과 모임을 가졌다. 이 일로 인해 그 동안 자라온 교회에 대한 불신이나 여러 가지 소통의 어려움이 사라지게 되었고, 계속해서 사역을 위한 소

통의 자리를 마련될 수 있도록 여러 모임을 갖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던 중 이중으로 중복이 되어 모임에 참석하는 리더들이 많아 지난 2011년 7월부터는 매달 셋째 주일 오후에 “목회협력위원회”란 이름으로 모임의 명칭을 개편하여 전체 약 50여명의 교회 대표 리더들이 모여 배달 진행된 사역과 앞으로 세달 동안 있을 사역들을 검토하고 서로가 토론하고 기도하므로 교회 내 모든 사역들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새롭게 정비하여 진행하고 있다.<sup>177)</sup>

### 제 3 절 순복음의정부교회의 전도전략

본 절에서는 순복음의정부교회의 전도전략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순복음의정부교회 내 전도축제의 역사를 살펴볼 것이며, 그리고 해피데이 전도축제에서 새생명 전도축제로의 역사를 돌아보고, 마지막으로 새생명전도축제의 준비 및 진행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 1. 순복음의정부교회 내 전도축제의 역사

순복음의정부교회의 새생명 전도축제의 역사는 해피데이 전도축제에서부터 시작된다. 해피데이 전도축제란 경기도 안양에서 목회하고 있는 김한욱 목사의 해피데이 전도시스템을 도입한 전도 프로그램이다. 해피데이는 행복한 날 또는 즐거운 날을 의미하며 해피데이 전도축제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전도의 삶을 살도록 전 교회 성도를 동참시키도록 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자는 매우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특별히 김한욱이 시작한 해피데이 전도 시스템은 침체되고 있는 한국교회가 불신자 전도를 통해 다시 부흥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한 것이다.<sup>178)</sup> 해피데이 전도는 교회가 영적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복음 열정을 가지고 영혼 구원에 매진하게 한다.

해피데이 전도시스템은 8주 동안 진행되며, 이 전도 시스템을 가지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데 온 교회가 최선을 다하도록 한다. 그런데 8주 동안 진행되는 전도축

177) 2015년 7월부터는 새롭게 개편된 청년국 리더들(청년1국, 2국 회장) 이 모임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여 교회의 모든 리더들이 유기적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78) 김한욱,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서울: 해피데이, 2009), 4.



제를 위해서는 약 2달 동안의 충분한 기획과 준비가 필요하다. 성공적인 해피데이 전도축제를 위해서는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든 사역들을 전도축제에 맞추어 진행되어야 하는데, 본 연구자는 이 전도사역을 위해 순복음의정부교회의 모든 성도가 움직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그 결과, 본 연구자가 순복음의정부교회에 부임한 그 해 2007년 가을에 처음 시작된 세미나에 참석한 후 2008년 2월부터 교역자들과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여 2008년 5월 18일에 처음으로 해피데이 전도축제를 실행할 수 있었다.

## 2. 해피데이 전도축제에서 새생명전도축제로의 역사

위에서 언급한 해피데이 전도축제를 교회에 적용하여 실시하던 중, 처음에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을 겪었는데, 그 중 하나가 이 사역을 위해 기존에 교회에서 또는 교구활동을 위해 주중에 가정에서 모이고 있던 여러 모임들과 중복되게 또 한 번 목요일에 모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미 매주 주중에 진행되고 있던 여러 예배와 모임 외에 또 다른 모임을 가짐으로 인해 성도들이 겪는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 목요일에 모였던 진행위원 모임을 금요일야예배 전에 모이게 함으로 여러 번 모이는 모임에 대한 부담을 갖지 않도록 했는데, 진행위원 모임 시간은 금요일야예배 시간을 저녁 9시에서 9시 30분으로 연장시킨 후 저녁 8시 30분부터 모여 진행위원 모임을 갖고 금요일야예배를 위해 준비 찬양이 시작되는 9시20분까지 약 40분정도 전도축제를 위해 모임을 갖도록 했다.<sup>179)</sup>

매주 금요일, 교구별로 돌아가며 하던 성가대 찬양은 과감히 전도축제를 위해 예배순서에서 제거했고, 사회자의 예배시작과 동시에 바로 말씀선포시간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수백 명의 성도들이 주축이 되어 금요일야예배 시간까지 바꾸어 가며 진행했던 전도축제 행사이기에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점차적으로 호응을 하게 되었고, 2014년부터는 그 명칭을 해피데이 전도축제가 아닌 새생명전도축제로 바꾸고 교회 청년들과 교육국 자녀들까지도 함께 전도축제에 참석하므로 그야말로 순복음의정부교회가 전도 중심적 교회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모두가 실감하게 되었다. 또한, 2009년부터는 1년에 봄과 가을에 진행했던 2번의 전도축제가 시간과 경제적인 부분에서, 그리고 여

179) 지금도 이 일은 매년 봄 새생명전도축제를 선포한 후 약 12주 전부터 실행된다.

러 가지 신앙생활 하는데 있어 성도들이 부담감을 갖는 다는 것을 파악한 이 후 봄에는 새생명전도축제로 전도축제를 시행하고 가을에는 봄에 갖는 전도축제 보다는 많이 간소화된 전도축제를 갖되 그 명칭은 드림전도축제로 정하게 되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왕성교회에서 실행해온 태신자전도방법과 본 교회의 새생명전도축제의 방법에 있어 비슷한 부분이 많은 것을 알게 되었는데, 왕성교회에서 전반기는 불신자들을 전도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후반기는 장기결석자들을 회복시키는데 초점을 맞추듯이, 순복음의정부교회에서도 가을에 갖는 드림전도축제는 봄에 전도하기로 작정했던 예비신자 작성자(꿈의 목표)를 채우고자 하는 의미와 동시에 하나님께 잃어버린 영혼들을 전도하여 드린다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 드림전도축제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방법은 새생명전도축제와 비슷하나 준비를 위해 모이는 시간과 방법들이 간소화 되며 봄에 준비했던 모든 것을 마무리한다는 의미의 전도축제이므로 성도들이 큰 부담감을 갖지 않고 진행하도록 계획된 전도방법이다.<sup>180)</sup>

### 3. 새생명전도축제의 준비 및 진행

무엇보다 새생명전도축제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조직이 필요하다. 새생명전도축제의 사역을 위해서 순복음의정부교회는 기존의 모든 조직을 전도축제를 위한 조직으로 개편하여 진행하게 되는데, 담임목사가 중심이 되어 모든 전도축제를 계획하며 준비하되 수시로 모일 수 있는 모든 교역자들이 중앙위원으로 임명되어 화요일에 있는 교역자 모임과 별개로 토요일 오전에 중앙위원모임을 갖고 그 외 모든 장로들과, 각 12교구를 대표하는 성도들, 그리고 새가족실, 봉사자들을 포함하여 약 100여명이 실행위원이 되어 매 주일 약 12주 동안 모여 모임을 갖게 된다. 특별히 교역자들이 주축이 되어 매주 토요일 오전 전도축제를 위해 진행되어야 할 사항들을 먼저 점검하고 결정한 후 그 결정된 내용들을 주일오후 실행위원들이 모여 모임을 갖고, 같은 내용을 각 교구를 대표하여 모인 400여명의 진행위원들이 매주 금요일야예배 전에 모여 8주 동

180) 이러한 내용은 본 연구자가 본 논문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된 내용으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새생명전도축제라는 명칭과 관련해서도 사랑의교회에서 진행되어지고 있는 전도집회를 따라 그 명칭을 “새생명전도축제”에서 “새생명축제”로 바꿀 것인지, 그리고 사랑의교회에서 실시되고 있는 새생명축제와 같이 4월 부활주일에 성도들이 복음으로 각성된 후에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전도대상자들을 품고 여름이 지난 가을에 새생명전도축제를 갖도록 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더 깊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안 전도축제를 위한 스케줄에 맞추어 모임을 갖고 새생명전도축제를 진행하도록 한다.

#### 가. 총무, 영성, 홍보, 서기 팀 및 새가족실

중앙위에서도 총무팀과 영성팀, 그리고 홍보팀과 서기팀, 그리고 새가족실<sup>181)</sup>로 구분이 되어 각 팀들이 새생명전도축제를 위해 준비를 하게 되는데, 모든 진행위원들과 실행위원들 또한 각 팀별로 모여 새생명전도축제를 위해 준비하게 된다. 예를 들어, 홍보팀은 새생명전도축제를 위해 현수막과 포스터 그리고 각종 인쇄물을 제작하게 되는데 중앙위원 내 홍보팀들이 주일 오후에 모이는 홍보팀들과 함께 무엇을 어떻게 진행할지를 구체적으로 상의하고 결정한 후 그 내용을 금요일에 교구별로 모인 진행위원들에게 전달하며 교구를 대표한 홍보위원들이 새생명전도축제를 위해 함께 사역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2015년 2월 22일에 제작된 새생명전도축제를 위한 기획안을 보면 전도축제를 위한 조직으로 교역자들과 총무장로를 포함해 20명의 중앙위원이 조직되었으며 12교구를 대표하는 지도장로 12명, 및 교회 각 기관 대표들을 포함한 37명의 실행위원, 그리고 각 교구별로 30여명과 청년국 20명 교육국 20명으로 주일출석 수 2100여명의 25퍼센트 정도인 537여명의 성도들이 진행위원으로 전도사역에 동참했다.

#### 나. 예산

조직이 정비된 후에는 모든 중앙위원, 실행위원, 진행위원들이 모이는 모임시간이 정해지고 예산안이 기획되는데 매해 새생명전도축제를 위해 약 15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된다. 이 비용에는 새로 교회에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선물비가 포함되는데 전도대상자로 품은 예비신자를 교회에 데려오기 위해 그들에 세 차례에 걸쳐 선물이 주어지고 1차에서 3차까지의 선물은 비용이 저렴한 것으로 준비하되 전도축제 D-day 당일에는 비용이 더 드는 것으로 선물을 제공한다. 참고로 2008년 처음 새생명전도축제를 했을 때는 약 만 원 정도의 선물이 제공되었으나 지금은 약 오천 원 정

181) 새가족실에 대한 내용은 아래 2절에서 상세히 다루고 있으며 새생명전도축제 기간동안에는 새가족실 봉사자들 뿐 아니라, 교구별로 바나바사역자들이 3-4명씩 선출되어 새롭게 교회에 방문 또는 등록하는 자들을 맞이하고 있다.

도의 선물을 제공하고 있다.

#### 다. 목표

이렇게 전체적인 계획안이 준비되면 임의적으로 그 해에 전도할 목표를 세우는데 본 연구자는 주일출석 대비 100퍼센트의 등록을 목표로 잡고 새생명전도축제 기간 동안 2000여명이 방문하고, 1500여명이 등록하고, 그리고 침례 받고 정착하는 성도를 방문하는 사람들의 출석 대비 20퍼센트로 잡아 300명을 정착인원 목표로 정한다. 실제로 이것은 새생명전도축제 기간 뿐 아니라, 매년 한 해 동안 전도되고 정착되기 위해 정해지는 목표이기도 하다. 그러나 모든 것이 강제로 하는 전도가 아닌 성도들이 스스로 전도하게 하는 것이 목표이기에 교구별로 진행위원들이 모여 그 해 교구별 전도목표를 정하는데, 해마다 12교구가 교구별로 약 100여 명씩 전도 목표를 삼고 목표한 숫자 대비 50퍼센트의 정착 목표를 정하게 되면 거의 1000여명의 방문과 100-200여명의 침례 받는 성도가 생기는 것을 알게 되었다.

교구에서 교구별로 전도할 숫자를 정하는 것을 순복음의정부교회에서는 “예비신자 전도작전”라고 한다. 그리고 성도들이 품은 사람들의 명단을 취합하여 “예비신자 전도작전표”를 작성하는데 “예비신자 전도작전표”가 작성된 후에는 약 3달 동안 각 팀별로 해야 할 사항들을 정하여 일정표를 만들어 일정표를 따라 진행하며 매주 중앙위원 모임에서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실행위원들과 진행위원들이 참고하여 착오 없이 지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 제 4 절 새생명전도축제 이후의 후속조치

본 절에서는 새생명전도축제 이후의 후속조치로 새가족실의 구성과 새가족실의 업무를 살펴보고 새가족을 실질적으로 돕고 있는 바나바사역을 논의할 것이다.

##### 1. 새가족실 구성

현재 순복음의정부교회 새가족실은 지도장로 한 명과 담당하는 여전도사(교구겸임) 한 명, 실장 1명, 그리고 각 교구를 대표하는 20여명의 봉사자들이 있으며, 2주간

의 새가족 교육을 위해서 한명의 부목사와 김정숙 사모 목사가 새가족들을 훈련하고 있으며 새생명전도축제 기간 동안에는 교구를 대표하여 약 3-4명의 바나바사역자들이 선출되어 새가족실을 도와 교회에 처음 방문하는 자들이 교회에 친근감을 갖고 정착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있다.

## 2. 새가족실의 업무

새가족실에서 하는 일은 새로 교회에 방문 또는 등록된 새가족과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여 그들이 교회에 친근감을 갖도록 하는 일로 새가족실 봉사자들은 교역자들 대신해서 철저한 사명감을 갖고 사역을 감당한다. 매주 새가족실에서는 새롭게 등록하는 새가족들의 명단을 작성하고 컴퓨터에 입력하는 전산작업을 하는데 전산화 하는 일을 통해 지난 8년 동안 등록된 새가족들이 중복되는 것을 방지하며 각교구별로 교구장 되는 교역자들이 심방하는 일을 돕게 된다. 특별히 새가족이 사는 지역을 담당하는 담당교구 교역자들이 심방하기 전에 새가족실에서 새가족이 교회에 방문한 후 24시간이 지나기 전에 바로 감사전화를 하고 매주 한 번 꼭 전화 만남을 갖도록 한다. 또한 매주일 주일 출석을 하고 있는지도 전화상으로 체크한다.

특별히 새롭게 등록된 새가족은 새가족실에서 진행하는 새가족 교육을 2주에 걸쳐 받아야 성도로 등록되므로 새가족 교육을 필히 받고 수료하도록 권면하는데 새가족 교육을 수료한 후에는 각 교구별로 같은 지역의 지역장들과 연결되도록 연결시켜 주는 일을 한다. 또한, 지역에 연결 된 후에도 1년 동안 새가족들에게 관심을 갖고 새가족들이 교회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그리고 한번만 방문했다고 하는 방문자들은 분류해서 중보기도팀으로 명단을 넘겨주어 중보기도실에서 그들이 재방문 또는 순복음의정부교회에 정착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기도하게 된다.

## 3. 바나바 사역

새생명전도축제 당일에 새가족실 및 바나바사역자들이 하는 일은 미소로 새가족들을 맞이해주는 일과 다과 및 차를 대접하고 교구별로 마련된 부스에서 새가족들의 접수 및 등록을 돕고 선물을 나눠주는 일로 새생명전도축제 기간에는 매주 많은 새가족들이 방문하므로 새가족실에서 봉사하는 봉사자들 및 교구별로 새가족들의 정착을

깊은 바나바 사역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새가족들과 친분을 맺고 연령을 파악하며 추후에 전화 연락할 것임을 알려준다. 전도한 사람이 없으면 바나바사역자들은 직접 예배당까지 안내하여 교회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도록 한다. 특별히 새생명전도축제 기간 동안에 방문하는 자들에게는 금색 스티커를 가슴에 붙이도록 하여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새로 나온 새가족임을 알게 하므로 모든 성도들이 새가족을 대할 때 반갑고 기쁜 마음으로 환영할 수 있도록 한다.

### 제 5 절 새생명전도축제 관련 통계 및 분석

지난 2007년 해피데이 전도 시스템이란 전도프로그램을 알게 된 이후 본 연구자가 직접 세미나에 참석하여 훈련을 받고 교역자들과 함께 이 사역을 위해 배진하게 되었는데, 그 효과는 교회에 여러 방면으로 큰 이익을 가져다주었다. 무엇보다 모든 성도의 마음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게 되었고, 전도를 위해 온 교회 성도들이 힘쓰다 보니 교회에는 본 연구자가 원하던 생명력과 생기가 모든 예배와 모임에 가득하게 되었다.

또한 매해 1000여명의 새로운 사람들이 전도되어 예수님을 영접하였으며 그 중 약 10~15퍼센트의 사람들이 7월과 8월에 있는 물침례식에 참석하여 침례를 받고 새로운 성도로 정착하게 되었다. 그 결과, 본 연구자가 순복음의정부교회에 처음 부임해서 왔던 2007년 보다 약 10퍼센트 정도의 주일출석이 증가하여 실제로 2015년 5월 현재 매주 주일 출석률<sup>182)</sup>은 약 1700여명에 이르며 세대수와 성도수 또한 2006년 3032세대 6282성도 보다 약 10퍼센트 증가한 3350세대 7128성도로 약 10퍼센트의 실질적인 성장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sup>183)</sup> 이 수는 중간에 이사 또는 타교회로 진출 및 해외로 이민가거나 사망한 성도들이 매년 약 5-10퍼센트 정도 된다고 했을 때, 매해 전도축제를 통해 새롭게 침례를 받고 정착된 성도들의 수와 비례하며 전도축제를 통해 실질적인 전도와 정착이 이루어진 것을 통해 전도축제가 교회성장의 한 요인이 된 것을

182) 실제로 2015년 7월 현재 매주 주일 출석률은 1부에 250여명, 2부에 450여명, 3부에 750여명, 4부에 250여명으로 1700여명으로 보고되고 있다.

183) 이 자료는 순복음의정부교회에서 발행된 2006년도 12월과 2015년 1월에 발행된 월별 교세 월보를 참고한 내용이다.

알 수 있다.

항상 아쉬운 부분은 영혼을 살리는 사역과 관련하여 지금보다 더 나은 사역을 펼치지 못하는 것인데 그 중 하나로 이미 익숙해진 조직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또 는 지금까지 진행해온 사역에 대한 만족감으로 인한 동기부여의 저하,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지난 8년여 동안 영성의 부분에 있어서 중보기도사역의 활성화를 통해 교회내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과 같이 앞으로 더욱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기도하며 새롭게 전도를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대안을 다음 장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 제 5 장

### 순복음의정부교회에서의 전도활성화 방안

본 장에서는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순복음의정부교회에서의 전도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먼저, 새롭게 변화하는 21세기를 위한 전도의 대안에 대하여 논의하고, 관계 중심형 전도방법을 제시할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 본 교회에서 시행한 새생명전도축제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전도 활성화를 위한 실제적 대안으로 지역전도축제 프로그램을 제시할 것이다.

#### 제 1 절 21세기를 위한 전도의 대안

최근 한국 갤럽 조사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성도가 교회를 정하는 첫 번째 이유와 새신자들이 교회에 정착한 첫 번째 이유를 담임 목사의 설교라고 이야기 했다.<sup>184)</sup> 그러나 가족이나 친척들 그리고 교회의 분위기가 좋아서 정착한 사례의 비중도 높게 나왔다. 이것은 앞으로 교회가 전도를 함에 있어서 교회의 분위기와 함께 관계를 통한 전도에 집중해야 하는 것을 잘 대변해 주는 것이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변화된 상황과 변화된 대중의 의식구조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1. 변화된 한국의 상황

탁석산은 그의 책 *한국인은 무엇으로 사는가* 에서 한국의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더 이상 박물관에 있는 문화는 문화가 아니며 역사적 관심의 대상일 뿐 얼마든지 폐기될 수 있다는 주장에 동의 한다.”<sup>185)</sup>고 말하면서, 그는 “문화는 당대의 것이기

184) 교회성장연구소 편집부, *새신자 정착모델* (서울: 교회성장연구소, 2009), 48-49.

185) 탁석산, *한국인은 무엇으로 사는가* (서울: 창비, 2009), 22.



에 시대의 종말과 함께 그 시대의 낡은 언어는 해체되고, 오래된 물음들도 사라지기 때문에 문화는 영원할 수 없다”<sup>186)</sup>고 주장한다.

특별히 그는 “현재”의 지난 100년의 시절을 단계별로 이야기 하며 조선의 몰락부터 1961년의 쿠데타까지를 “생존의 시대”로 구분하며 이때를 각자 알아서 요령껏 살던 시대라고 말한다. 쿠데타 이후부터를 “생활의 시대”로 정의 하며 이 기간 동안 가동된 경제개발계획을 통해 생존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한다. 생존의 문제가 해결된 후 정치적 자유나 인권의 보장을 중요시 여긴 시대를 “행복의 시대”로 정의 하며 경제적 지위와 정치적 권리를 요구하는 시대였다고 한다. 그리고 그 이후의 시대는 “의미의 시대”라고 이야기 하며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것들에 대해 ‘그것은 나에게 무엇인가?’하는 질문을 갖기 시작했다고 말한다. 즉, “행복을 넘어서 인생의 의미를 탐색하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이다.<sup>187)</sup>

## 2. 대중의 변화된 의식구조

이러한 변화된 한국의 상황 가운데 랜드 프래즈(Randy Frazee)가 말하였듯이, 이제는 널리 퍼져있는 개인주의 사고방식이 공동체를 가로막는 위험한 장애물이 되었다.<sup>188)</sup> 탁석산은 한국인은 현세주의를 갖고 “지금 이 세상 전부”인 것처럼 산다고 이야기 한다. 한국인을 “감각의 즐거움을 좇는 인생주의”라고 말하면서 “한국인의 삶의 양식은 ‘한번뿐인 인생 어차피 허무한 것이니 즐겁게 살다가 가자’로 요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sup>189)</sup> 그러면서 이러한 현세주의, 인생주의, 허무주의의 방법론을 가지고 지난 100여 년간 한국 사람들은 실용주의를 선택해왔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좋은 것을 추구하는 삶”이요 대중을 중심으로 한 “유연하고 역동적”인 실용주의였다는 것이다.<sup>190)</sup> 위에서도 본 연구자가 언급한 바과 같이, 1986년 한국을 떠났을 당시와 2000년에 미국에서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경험한 한국과 한국인의 생활변화는 대단한 것으로 문화충격<sup>191)</sup>을 받았다.

186) Ibid.

187) Ibid., 42.

188) Randy Frazee, *21세기 교회연구: 공동체, 차성구 역* (서울: 좋은씨앗, 2003), 58.

189) 탁석산, *한국인은 무엇으로 사는가*, 121.

190) Ibid., 122.

191) 인터넷 백과사전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 를 참고함. 위키백과는 문화 충격에 대해 “사람들이 완전히 다른 문화 환경이나 사회 환경에 있을 때 느끼는 감정의 불안을 서술

이제 이렇게 변화된 한국의 상황과 변화된 의식사고를 갖고 사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어떻게 지역사회와 좋은 관계를 맺느냐, 그리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변사람들과 어떠한 관계를 맺느냐 하는 것이 전도하는 일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된 것을 감안하여 21세기를 위한 전도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제 2 절 관계 중심형 전도방법

현재 한국에는 수많은 전도 프로그램이 있다. 영혼을 살리는 전도 프로그램은 많을수록 좋을 것이다. 그것은 시대가 빠르게 변하고 전도의 방법 또한 시대의 흐름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계속해서 교회와 성도들은 앞으로 어떻게 좋은 관계망을 확장해 갈 것인가 그리고 예수 믿는 성도로서 믿지 않는 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본 절에서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전도 방법인 “관계 중심형 전도”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 1. 관계의 중요성

현대는 급속도로 변하고 있다. 이 복잡하고 다변화하는 사회에서 관계는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점점 관계중심의 전도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 관계전도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인격과 삶을 통해 불신자들과 의미 있는 친분관계를 맺음으로 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여 제자를 삼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는 전도전략으로 자신이 관계를 이루고 있는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동료등 주위에 자신이 속하였거나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전도 전략이다.

이미 앞 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변사람들과 어떠한 관계를 맺느냐가 매우 중요한 시대를 살게 되었는데,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

하기 위해 쓰이는 용어이다. 새로운 문화를 소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다시 말해, 무엇이 올바르고 무엇이 올바르지 않는지를 알기가 어려워진다. 새롭거나 다른 문화의 어떠한 양상에 대해 강력한 혐오(도덕 또는 미학)를 느끼기도 한다. 이 용어는 1954년에 인류학자 칼레르보 오베르그(Kalervo Oberg)가 처음 소개한 것이다”라고 설명한다.

사람들이 개인화되어진 사회 속에서 사람들은 군중 속의 고독함과 외로움을 느끼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마크 미테베르크(Mark Mitterberg)는 사람들에게는 공동체가 필요하다 하고 하면서 우리가 전도하려는 사람들, 특히 젊은 세대에 속한 사람들은 결혼 가정 출신이 많고 파괴된 가정에서 사는 아픔을 느껴보았기 때문에 홀로 외로이 지낸다는 것이 어떤 것이지를 안다고 하면서 “이들은 좀 더 친밀한 공동체를 회구한다”고 한다.<sup>192)</sup>

이상만 또한 관계전도는 인간내면의 추구, 영성에 대한 강한 욕구와 함께 본능적으로 가족과 이웃을 그리워하는 현대인에게 효과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고 했다.<sup>193)</sup> 주위를 보면 겉으로는 웃고 있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으며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된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들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 이러한 현대인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여 자연스럽게 그들과의 교제권을 넓혀가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과 섬김을 통해 그들과 인격적으로 좋은 관계를 맺어 나간다면 관계 전도를 통해 전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게 될 것이다.

## 2.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이전과는 다른 상황 속에서 살고 있다. 그리고 변화된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관계다. 그러나 그 관계가 인간중심적인 관계이거나 세상적인 관계라고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다. 우리가 계속해서 집중하고자하는 것은 죄로 인하여 죽은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저들을 구원하고자하는 전도요 저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Mark Mitterlberg가 말한 것 같이 누구나 쉽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드리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이다.<sup>194)</sup>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직접적이고 강력한 전도가 가능했었다. 물론 지금도 전도집회나 노방전도, 또는 축호전도와 같이 한 번의 복음제시를 통해 회심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이제는 불신자들이 교회에 나오기 전까지 저들을 수렁에 빠지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

192) Mark Mittelberg, 전도바이러스, 이용중 역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02), 60.

193) 이상만, 오이코스전도폭발 (서울: 기독교신문사, 2002), 20-21.

194) Ibid., 52.

다.<sup>195)</sup> 그래서 본 연구자는 불신자들을 교회에 나오게 하기 이전에 교회 밖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역모임을 통해 복음으로 무장된 성도들이 교회밖에 있는 사람들과 먼저 소통하고 저들과 좋은 관계를 맺음으로 불신자들로 하여금 교회에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장애물들을 제거하도록 하는 전도사역 프로그램을 제안하고자 한다.

### 제 3 절 새생명전도축제의 문제점

본 절에서는 교회내 효과적인 전도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기에 앞서, 지난 8년 동안 순복음의정부교회에서 전도축제를 통한 복음전도를 시도한 결과 발견한 문제점들을 다루고자 한다.

#### 1. 재정의 문제

새생명전도축제를 진행해 오면서 발견한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교회재정 부분에 있어 매년마다 예전에 행해왔던 똑 같은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과 비록 천천히 개선되고는 있지만, 교회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매해마다 같은 내용의 선물을 준비하는 것과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정해진 예산의 지출이 아닌, 새로운 전도 상황에 맞는 예산과 그것에 대비한 비용 지출에 관한 부분이다. 이일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새생명전도축제의 준비가 그 해 2월이 아닌 새생명전도축제가 끝나는 10월이면 바로 다음 해에 진행될 새생명전도축제를 준비하는 일에 집중하도록 준비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운영위원 장로들과의 모임과 목회협력위원회 모임, 그리고 평신도 사역자들(약 300여명의 지역장들)과의 만남을 통해 소통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모든 예산과 행정이 전도중심적으로 사용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씩 개선해나가도록 하겠다.

195) Ibid., 54. 저자는 그의 책 2장에서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 모두가 영적으로 길을 잃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저들이 뛰어넘어야 하는 죄와 문화의 구덩이를 복음으로 무장된 자들이 시간을 두고 공동체를 이루어 불신자들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좋은 관계를 통해 인도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 2. 전체 성도의 낮은 참여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 열정이 없어서는 안 된다. 아니, 열정이 있기는 하지만 교회의 약 20퍼센트의 성도들만 열정을 갖고 움직이는 것이 아닌 교회 전체가 전도하는 전도축제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전체 성도가 참여하지 못하는 전도사역의 한계를 본 연구자는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 부분은 3장에서 사례연구한 세 교회에서도 볼 수 있는 현상이며 이에 대해 본 연구자는 현재 진행중인 새생명전도축제와 함께 새롭게 진행하기 원하는 지역전도축제의 전도프로그램을 통해 더 많은 성도들이 전도하는 일에 동참하게 되는 것을 기대해 본다.

## 3.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는 문제

8년 동안 계속되어진 전도축제 사역을 성도들과 함께 진행하면서 또 한 가지 문제점으로 발견한 것은 왕성교회에서 겪고 있는 문제처럼, 어떻게 하면 이 사역을 매년마다 멈추지 않고 지속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이 부분은 대부분 모든 교회가 전도축제를 진행하면서 겪고 있는 어려움 중에 한가지이기도 할 것이다. 이에 대해 본 연구자는 전도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진행하시는 일인 것을 알고 기도와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을 사모할 것이며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지상명령인 복음전도의 사역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특히 봄에 새생명전도축제를 진행한 이후 가을에 드림축제, 또는 본 연구자가 전도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지역전도축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일에 있어서 전도 사역이 지속해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가을에 이루어질 전도사역은 매년 봄에 진행되어지고 있는 3주간의 전도축제를 마치고 적어도 12주 이후부터 준비하도록 할 예정이다. 왜냐하면 새생명전도축제를 진행한 이후에 지역전도축제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이 성도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더하여 지속적인 전도사역의 활성화를 위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전도사역이 은혜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큐시트 및 전도 프래그랩과 관련하여 철저한 준비를 하도록 할 것이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절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 제 4 절 전도활성화를 위한 실제적 대안 - 지역전도축제 프로그램

본 절에서는 전도활성화를 위한 실제적 대안인 지역전도축제 프로그램을 살펴볼 것이다. 먼저, 지역전도축제 프로그램의 정의를 살펴보고, 지역전도축제에서의 복음에 기초한 양육전도의 필요성과 후속조치에서의 복음양육에 대하여 논의 할 것이다. 또한 본 절에서는 지역전도축제의 방법과 지역전도축제에서의 후속조치 및 지역전도축제의 전도방법을 심도 있게 다루며, 마지막으로 지역전도축제가 성령이 인도하시는 사역인가<sup>196)</sup>라는 문제에 대하여 논의할 것이다.

##### 1. 지역전도축제 프로그램의 정의

지역전도축제 프로그램이라 함은 위에서 언급한 새생명전도축제와 비슷한 전도 행사이다. 그러나 변화된 환경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로 오기까지는 넘어야 하는 많은 어려움이 있기에 교회에서 새생명전도축제를 갖기 전에 먼저 지역모임 안에서 새생명전도축제와 비슷한 지역전도축제 행사를 계획하고 진행하므로 전도대상자들과 성도들 간에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되어 전도대상자들로 하여금 조금 더 쉽게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전도방법이다.

이미 본 연구자가 섬기는 순복음의정부교회에서는 매년 4월<sup>196)</sup>이면 새생명전도축제란 이름으로 전도행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가을에는 드림축제란 이름으로 10월에 전도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드림축제란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새생명전도축제 기간 동안 전도했으나 교회에 안 나온 사람들, 혹은 교회에 한 두 번은 나왔으나 계속해서 나오지 못한 사람들을 다시 한 번 주님께로 인도하는 전도행사이다. 물론 봄 마다 진행된 새생명전도축제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물침례를 받아 왔다. 그러나 이제 충동원 전도주일 개념으로 갖던 드림축제 행사를 지역전도축제로 바꾸어 실행하므로 지역모임을 살리고, 교회를 부흥하도록 하는 것이 본 연구자의 큰 바램이며 기도 제목이다.

196) 2008년부터 약 5년 동안 5월에 전도축제를 진행하였으나 5월이면 벌써 날씨가 더워지는 관계로 2012년부터는 전도축제 기간을 4월 3번째 주일과 4번째 주일로 바꾸어 진행하고 있다. 3차 전도축제는 교회 창립일이 매년 5월 30일인 관계로 5월 마지막 주에 진행되고 있다.

## 2. 지역전도축제에서의 복음

지금까지 순복음의정부교회에서 진행해온 전도축제를 연구하면서 본 연구자가 발견한 특이한 사항은 John Finney가 그의 책 *새로운 전도가 온다* 에서 말한 것처럼, 카톨릭이 “케뤼그마”를 강조하고, 개신교가 “유앙겔리온”을 강조하고 오순절파가 “미스테리온”을 강조하는 특징이 있다고 했는데,<sup>197)</sup> 실제로 개신교이면서 오순절파 계통의 교단인 순복음의정부교회 안에서 실시되어온 전도축제를 보면 그동안 “유앙겔리온”적인 복음 선포와 “미스테리온”적인 성령의 역사를 강조해왔던 것에 비해, 복음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케뤼그마”적인 전도가 약했던 것을 알게 되었다.

### 가. 양육전도의 필요성

그러므로 지금의 전도방법보다 조금 더 효과적인 전도방법의 대안으로 본 연구자가 순복음의정부교회에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전도자가 품은 예비신자를 교회로 먼저 인도하여 예비신자들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하는 것 보다는 전도대상자인 예비신자들을 먼저 현재 교회 안에 있는 300여개의 소그룹(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할 수 있도록 교회가 아닌 지역모임으로 인도하여 복음을 듣도록 하는 일이다. 이것은 현재 사랑의교회에서 2001년부터 진행해온 “열린 다락방”과 비슷한 내용으로 볼 수 있으나 본 연구자가 제시하고자 하는 방안은 예비신자들을 미리 지역으로 초청하여 먼저 예비신자들로 하여금 성도들과 좋은 관계를 맺게 하고 마음 문이 열린 상태에서 일 년에 한 번 교회에서 있는 전도축제때에 그들을 교회로 초청하므로 자연스럽게 복음을 듣게 하므로 Finney가 말한 “케뤼그마”와 “유앙겔리온” 그리고 “미스테리온”의 전도가 다함께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하는데 더 깊은 뜻이 있다.

### 나. 후속조치에서의 복음양육

특히 John Finney는 “알파 코스”나 “엠마우스 코스”를 통한 “양육 교육”의 긍정적인 면으로 관계와 편안한 분위기에서의 목표를 가지고 교육되는 것을 강조한다.<sup>198)</sup> 또한 큰 장점으로 그룹들은 그룹에 근거하고 있지만 교회와 연결되어 있고 이

197) John Finney, *새로운 전도가 온다*, 58.

198) Ibid., 139. 피니는 교육적 연구조사에 의하면 성인들은 스스로 즐기고, 이루어야 할 목표를 가지고 있을 때 가장 잘 배운다고 한다.

성과 경험을 잘 어우러지게 한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강요하지 않는다고 한다. 무엇보다 양육 그룹은 리더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통해 성령이 역사하실 여지를 주게 되는 장점을 갖고 있는데 이에 반하여 부정적인 면으로는 그룹들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인위적인 그룹이라는 것과 호기심을 가진 사람들만 끌어들인다는 것, 그리고 사교적인 사람들만을 끌어들인다는 단점과 함께 교육받은 사람들 및 논리가 정연한 사람들에게만 적합하다는 단점을 이야기 한다.<sup>199)</sup>

그러므로 본 연구자는 이러한 “양육 교육”의 장단점을 잘 파악하여 현재 순복음의 영정부교회에 맞도록 “유앙겔리온”적이면서 “미스테리온”적인 전도방법과 함께 “케뤼그마”적인 복음 중심적인 양육 교육 방법이 지역축제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지역전도축제가 진행되면서 조화를 이루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 3. 지역전도축제의 방법

#### 가. 지역모임에서의 전도축제

김선일은 바울의 전도 방법으로 “바울의 회당 전도”를 설명하면서 바울 또한 처음부터 이스라엘 역사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는 이방인들을 향한 전도였다고 하기도 보다는 회당을 베이스캠프로 활용하면서 “준비된 이방이들”에게 전근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sup>200)</sup> 결과적으로 예수님과 바울의 전도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전도가 결코 불특정한 다수를 향한 일방적 선포가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오늘날 복음에 좀 더 수용적일 수 있는 사람은 죽음이나, 질병,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이사, 출산, 진학등과 같은 위급한 상황이나 생애 전화기에 있는 사람들로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하는 것이 더 수용적인 것으로 보았다.<sup>201)</sup>

그러면서 극심한 외로움과 관계 단절의 질환을 앓고 있는 현대 사회에 필요한 것은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예수님의 사랑과 말씀 안에 거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을 유력한 전도의 방식으로 강조하며 삼위 하나님께서 상호 존중과 사랑의 완벽한 하나 됨이 기독교 공동체가 따라야 할 모본으로 보았다.<sup>202)</sup>

199) Ibid., 144-147.

200) 김선일, *전도의 유산 오래된 복음의 미래*, 81.

201) Ibid., 81-82.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본 연구자는 현재 순복음의정부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새생명전도축제를 통한 전도방법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전도 활성화 방안으로 지역모임 안에서의 지역전도축제를 기획하므로 새생명전도축제의 전도방법과 연계한 공동체 전도로의 전환을 이루어 현재 진행되어지고 있는 전도를 더욱 활성화 하고 더 많은 성도들이 전도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 나. “캐뉘그마”를 강조하는 전도방법

지역전도축제를 실시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동안 순복음의정부교회에서 실시되어 왔던 전도축제의 방법을 적용하여 지역모임(한 지역 또는 여러 지역모임이 연합으로)에서 전도축제를 실시하도록 하는 전도방법은 지금까지 진행해왔던 전도방법과는 다른 전도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김선일은 왕성교회의 태신자전도축제에 대해 평가하면서 태신자로 작성되어서 초청 예배 때 온 태신자들, 즉 예정일에 출산된 자들의 상당수는 후속양육이 쉽지 않다고 하는 것에 대해 “이는 해당 일자에 맞추어 전도의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는 부담을 느낀 교인들이 억지로 태신자를 데려오는 일이 빈번한 까닭이다”고 했다.<sup>203)</sup> 그러나 오히려 행사 전에 이미 교회에 나오거나 나중에 온 태신자들, 즉 조기출산이나 만기 출산된 이들의 경우는 새신자 관리에 있어서 좋은 효과를 보인다는 임상경험에 의한 통계에 대해 이들은 전도자와 자연스럽게 의미 있는 관계 속에서 교회에 나온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관계 속에서의 전도가 중요한 점을 강조한다.<sup>204)</sup>

그런데 현재까지 순복음의정부 교회에서 진행해온 새생명전도축제의 전도방법은 일방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유앙겔리온”적 전도 방법과 함께 한 번에 약 1,000명 정도의 성도들이 대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며 준비한 전도축제를 통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구하는 그래서 점진적인 회심보다는 일시적인 회심에 초점을 둔 “미스테리온”적의 전도방법을 사용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물론 많은 사람들이 전도축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회심을 하였으나, 교회에 나와 저들에게

202) Ibid., 86.

203) 김선일, 최동규, “한국 교회 전도프로그램을 진단한다 II 태신자 전도,” *목회와 신학*, 2009년 8월호, 106.

204) Ibid., 108.

아무런 “미스터리온”적인 경험이 없을 때는 교회를 한 번 방문하고 그 다음에는 교회를 다시는 찾아오지 않으므로 교회를 방문한 대부분의 사람들(약90% 이상)이 교회에 정착되지 못했다.

이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전도축제를 통해 복음을 듣고 “미스터리온적”인 분위기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심하는 회심전도의 방법과 함께 현재 진행하고 있는 12교구 내 약 300여 지역모임에서 “케뤼그마”를 강조하는 전도방법을 강조하므로 지역모임 안에서 초청된 예비신자들이 미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고 그 후에 교회로 인도되어 교회에서 진행되는 전도축제를 통해 교회에 한 번 출석한 뒤에서도 계속해서 지역모임으로 연결되어지도록 하므로 “미스터리온”적인 성령의 역사하심이 소그룹을 통해서도 경험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 다. 사전준비

5월에 있는 해피데이 전도축제를 위해 2월부터 기획하고 준비하듯이, 매년 10월에 있는 드림축제를 지역전도축제로 바꾸어 실제적인 전도가 각 지역모임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무엇보다 사전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금년에는 2년마다 한 번씩 있는 본 교단 기도 대성회가 10월에 있어 가질 수 없지만, 앞으로는 지역 전도축제 후에 교회주변 광장이나 인근 대학교 실내체육관을 빌려 전 성도 체육대회를 가짐으로 지역 전도축제 후에 자연스럽게 교회로 예비신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Michael Green은 복음전도대회를 위하여 많은 기도와 에너지를 투입하지만 그 결과에 실망하는 이유는 회중과 함께 비전을 공유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sup>205)</sup> 실제로 그 동안 전도축제를 8년 동안 진행해보면서 복음전도대회가 결실을 맺으려면 전체 회중이 함께 전진하려는 결단을 할 필요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러므로 새로운 지역전도축제의 전도방법이 효과적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공유될 수 있도록 먼저는 교회 리더들을 설득하고 훈련해야 할 것이고, 성공적인 지역전도축제를 위한 비전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매주 진행되고 있는 수요 지역장

205) Michael Green, *잊혀진 다이내믹*, 176.

모임과 매달 한 번씩 있는 목회협력위원회 모임을 통해 교육시키도록 하겠다. 또한, 전 성도들에게도 새생명전도축제를 하기 전에 성도들로 하여금 같은 비전을 품을 수 있도록 설교를 통해서 설득하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전도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해온 것처럼, 지역전도축제를 통해서도 기쁨으로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해 동참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이 일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일인데, 새생명전도축제를 위해 홍보팀이 조직되어 각종 현수막과 포스터, 동영상을 통해 동기를 부여하였듯이, 단계별로 일정을 정해 전 성도에게 지역전도축제를 미리미리 홍보하고 알리므로 교회내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다. 이 일을 공식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전 성도들 앞에 지역전도축제를 위한 개막식을 잘 준비하여 진행함으로 모두가 함께 동참하는 행사임을 알리되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장들과 부지역장들이 음악에 맞추어 입장하고 지역전도축제를 대표하는 성도들이 나와 선서를 하고 지역별로 구호를 외치고, 지역별로 만든 깃발에 대한 설명과 전도에 대한 다짐을 하도록 하겠다. 이 행사는 지역전도축제가 시작되기 전 주일에 실시할 예정이다.

#### 라. 구체적인 진행방법

지역전도축제의 사역이 진행되는 과정은 약 4주를 생각하고 있으며, 이 일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새생명전도축제와 같은 방법으로 중앙위원과 실행위원, 그리고 진행위원들을 선출해서 일괄적으로 모든 내용들이 미리 준비되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 (1) 기도

전도는 기도로 시작하되 새생명전도축제와 같이 영성팀을 조직하여 끊임없이 리더자들과 전 성도들이 금식기도, 릴레이 합심기도, 성전에 나와 24시간 연속하는 24시간 성전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결국 구원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이다.<sup>206)</sup> 홍보팀과 영성팀의 비율은 1:2로 하겠다. 그만큼 기도가

206) Ibid., 18. Green은 “복음전도” 즉 “미션”을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께서 그를 배반한 백성을 되돌려 그의 사랑의 품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자신의 주도적인 일”로 본다. 그래서 전도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움을 청해야 한다고 한다. 본 연구자는 이것이 전도를 위한 중보기도의

중요하기 때문이다. 성도들의 기도를 돕기 위해 교회에서는 기도문을 만들어 기도실에 배치하여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성도들로 하여금 태신자로 품고 전도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이유는 아무리 인간적인 관계를 맺는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인간적인 감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 정기 예배시, 그리고 모든 정기 기도모임과 교구별 모임에서 성도들이 작정한 태신자들을 작정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작정한 태신자들이 전도될 수 있도록 기도하도록 하겠다.

무엇보다 위에서 계속해서 언급한 것과 같이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전도는 성령이 역사할 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령보다 앞서지 않고 항상 성령님과 동행하며 순종하기 위해 전도하기 이전에 반드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 (2) 관계 세우기

지역전도축제를 갖는데 있어서 관계를 세우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Michael Green은 “지역 교회를 통한 복음전도”에 대해 말하면서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를 교회안의 교인들끼리만 고립되어가는 일로 교인이 아닌 친구들이 점점 적어지므로 교회에서 복음전도 행사가 교회에서 열려도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의 활동에만 집중하므로 실제로 성도들이 교회로 데려올 수 있는 교회 밖의 불신자들이 없다 것을 지적한다.<sup>207)</sup>

그러므로 이일을 위해 필요한 것은 VIP 전도카드를 만들어 나누어 주는 일이다. 이 카드에 전도할 대상자, 즉 관계를 맺어 교회가 아닌 지역으로 데려올 수 있는 사람들의 명단을 쓰는 것인데, 새생명전도축제 때는 이 명단을 교구별로 작성한 후 현수막에 일일이 명단을 기록하였으며 12장의 대형 현수막이 교구별로 교구 사무실 앞에 붙였고, 3주에 걸쳐 세 번 동안 예비신자를 품은 후에 약 5000여명의 전도대상자의 이름이 확보된 후에는 모든 예비신자들의 이름이 기록된 초대형 현수막을 대성전 안에 붙임으로 전도축제에 대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또한 이 명단을 책자로 만들어 전 성도에게 나누어 주기도 했다.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207) Michael Green, *현대 전도학*, 470.

또한, 관계를 세우는 일은 전도자가 전도대상자로 적어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만나서 관계를 세우는 과정으로 자연스러운 인간관계를 통해 복음이 전달될 수 있다. 그러므로 전도하기 원하는 사람과 시간을 내어 함께 식사, 쇼핑, 시장보기, 아기 돌봐주기 등등 전도대상자가 좋아하는 일을 위해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섬겨주어야 한다. 무엇보다 감동을 주어야 한다. 또한 혼자서 보다는 공동체를 통해 지역의 성도들 함께 관계를 세울 수 있도록 지역 안에서 취미, 혹은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도움을 주고받으며 지역 성도들이 지역식구들이 품은 전도대상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

### (3) 초청

약 3-4주 동안의 준비를 통해 초청잔치를 준비해야 한다. 어느 정도 전도대상자와 관계를 세웠어도 불신자로 하여금 교회에 나오게 하는 일은 부담스러운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기간 동안 모든 지역장과 초청자들은 품은 예비신자들을 초청할 장소와 시간 등을 꼼꼼히 챙기고 서로가 할 일에 대해 사역을 분담해야 한다. 선한목자교회에서는 새신자 환영회를 위해 큐씨트까지 만들었다는 글을 읽고 도전을 받았다.<sup>208)</sup> 특별히 지역모임 운데 간증을 나누는 것은 지역전도축제의 꽃 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지역축제에서는 목회자의 설교가 없을 뿐 아니라, 실제로 자신들과 비슷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며 함께 울고 웃는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자는 그동안 진행되었던 새생명전도축제기간 동안 대성전에서 간증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았다. 새생명전도축제기간 동안에는 3주간 동안 9명의 간증자들(1부 부터 3부 예배 까지 1명씩 3주 동안)이 이전 새생명전도축제를 통해 예수 믿게 된 사연과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삶 가운데 체험하고 있는 일들을 나누도록 했는데, 주일 예배시 신앙이 어린 자들을 세우기 전에 금요철야 예배를 통해 각 교구별로 2명씩 2주간에 걸쳐 먼저 간증을 나눌 수 있도록 했으며, 그 중 좋은 간증자 9명을 특별히 세워 주일 예배시 간증할 수 있도록 했었다. 간증문은 5분

208) 교회성장연구소 편집부, *새신자 정착모델 베스트 4* (서울: 교회성장연구소, 2009), 123-124.

이내로 하고 내용은 불신자들도 공감할 수 있도록 준비하되 담당 교역자가 1차로 수정을 했고, 최종적으로 담임목사인 본 연구자가 검토한 후 읽도록 했는데, 읽는 자나 듣는 자들이 마음에 큰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다. 그러므로 앞으로 진행할 지역전도축제를 위해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지역전도축제 기간동안 지역모임에서 본인의 간증을 나눌 수 있도록 할 것이다.

#### 마. 지역전도축제 당일

지역전도축제를 통해 성도의 교제와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곳인가를 경험하도록 해야 한다. 전도축제 진행순서로는 장식, 식사, 게임, 노래, 간증, 지역장의 축복기도와 선물을 주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당일에 맞는 큐시트를 제작하면 더욱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모임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성도들 모두의 눈높이를 전도대상자들에게 맞추어야 하는 것이며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미소를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지역별 당일 초청 순서를 간략하게 소개하면 먼저, 자리 정돈 및 식사 준비 등과 같은 모든 준비는 초청 시간 전에 모두 마치고 현관 입구에 서서 초청되어 오는 분들을 환영한다. 모두 도착하게 되면 지역장이 사회를 보며 자연스럽게 시작한다. 환영송("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등)을 부른 후에 박수로 환영하며 초청된 사람에게 꽃다발을 전한다. 이때 지역장은 환영의 말을 한다 - "오늘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나서 식사 또는 다과는 나눈다(약20분). 그 후에는 후식이 준비되는 동안 지역식구들이 돌아가면서 간단히 자신을 소개한다(약10분). 식사시간 또는 후식을 먹을 때는 가급적이면 무거운 대화를 피하고 가벼운 대화를 하면서 서로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는다.

그 후에는 자연스럽게 초청한 사람을 통해 초청자의 생년월일, 결혼여부, 주소와 전화번호등 참고사항들을 확인하여 메모지에 적는다(5분). 차나 다과를 먹으면서 하면 좋은 것은 간증할 사람이 있어 자신이 예수를 믿게 된 동기나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 등을 간증하고 복음을 제시하여 결신시킨다. 결신 후에는 교회 소개 비디오(2015년 8월 19일에 CTS 방송국을 통해 제작할 예정) 또는 준비된 새신자용 책자(교회주보)를

보면서 교회생활에 대해서 답소를 나누고 교회와 담임목사에 대해서 소개해 준다. 이 때 교회 소개 비디오는 약 15분, 복음제시는 5분으로 하고 중보기도 및 기도 제목을 나누는 후에 초청된 사람의 기도제목에 대해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을 확신시키며 계속해서 기도해 줄 것을 약속한다(10분). 그리고 매주 있는 지역예배 모임으로 초청하고, 그 후에는 주일예배나 교회행사, 또는 다음 4월경에 있을 새생명전도축제에 만나기로 약속하고 지역장이 기도한 후 헤어진다. 이 때 간단히 준비한 선물을 주도록 한다(5분). 전체 소요 예상되는 시간은 약 1시간 10분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더 짧게 또는 조금 더 길게 진행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지역에서의 전도축제를 진행하므로 3장에서 언급한 주안장로교회에서 구역전도를 진행했을 때의 장점으로 평가된 소그룹의 역동성을 기대해 볼 수 있고, 전도시에 발생하는 불신자들의 질문과 거부감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불신자에 대한 접근방법에 있어서도 다양한 계층의 연령과 개개인의 상황을 지역식구들이 미리 기도하며 준비하여 다가가므로 쉽게 친해질 수 있을 것이고 동시에 지역식구들이 함께 지역전도축제를 준비하는 과정에 함께 기뻐하며 하나 되는 역동성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또한 지역모임의 인도 방법에 있어서도 이미 잘 알고 있는 환영(Welcome), 찬양(Worship), 말씀(Word)의 3W와 더불어 전도대상자가 누군지를 알고 반드시 전도할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도록 할 것이다. 그 후에는 교회소식 및 행사나 지역, 혹은 교구의 행사 사항들을 나누고 신앙생활(주일출석, 성경읽기, 새벽기도, 수요일예배, 철야예배, 성미 등)을 점검한 후 주기도문으로 지역예배를 마치도록 하겠다. 그리고 될 수 있는 대로 짧은 시간 교제를 나누며 아쉬움을 가지고 헤어지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지역전도축제가 끝난 후에는 꼭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평가 보고서 및 모든 행정서식은 새생명전도축제와 같이 미리 교회에서 제작하여 사무실에 비치해 두도록 하여 지역전도축제를 진행한 후에 그 결과에 대하여 철저히 평가하여 지속적으로 더 나아진 모습으로 지역에서의 전도축제가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 4. 지역전도축제에서의 후속조치

2020-2040 한국교회 미래지도의 저자인 최윤식은 “예수님의 전도 대상은 사람이었다고 강조하면서 사람은 아무리 좋은 진리라도 마음이 열려야 받아들인데, 마음을 여는 것은 그 사람의 고통의 문제 안으로 함께 들어갈 때만 가능하다”<sup>209)</sup>고 말한다. 그러면서 현대의 교인들이 원하는 것은 화려한 건물이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깊은 관심이라고 강조한다.<sup>210)</sup> 그런 의미에서 전도되어 교회에 나온 새신자들에게 깊은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저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일임을 알아야 한다.

##### 가. 관계전도를 위한 체질개선

관계전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지역의 체질이 먼저 죽어가는 영혼을 사랑하는 체질로 바뀌어야 한다. 먼저, 지역이 건강한 전도체질을 갖고 전도하는 일에 집중하여 지역이 살아나면 지역을 통한 전도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뿐 아니라, 지역의 부흥을 통해 교회가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로 바뀌게 될 것이다. 그 일을 위해 지난 8년여 동안 본 연구자가 직접, 그리고 교구담당 교역자들이 매주 수요일예배 후 지역장들과 공과를 나누며 교육하고 양육시켜 왔다.

##### 나. 지역장 훈련의 필요성

전도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성령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통해 전도의 일을 하신다(롬10:14-15). 그런 의미에서 새로 교회에 등록된 성도를 교회에 정착하도록 돕고 예수의 제자가 되도록 하는 일은 지역장이 감당해야 할 아주 중요한 일이다. 그러므로 새가족을 돌보며 양육할 수 있는 지역장을 세우기 위해 현재 지역을 섬기고 있는 지역장들로 하여금 저들이 교회의 지도자임을 알려주고 저들의 신앙수준이 지역의 모든 것을 결정함을 알도록 함과 동시에 교회의 비전과 필자인 담임목사의

209) 최윤식, *2020-2040 한국교회 미래지도* (서울: 생명의말씀사, 2013), 313.

210) Ibid., 314. 최윤식은 바람직한 목회자상에 대한 조사(중복응답)에서도 교회에서 등록된 처음 한두 달 동안에는 목회자의 깊은 영성(80-90%)이나 겉으로 드러난 목회자의 인격(40-50%대)에 만족을 느끼지만 교회에 출석한 지 3년이 넘어가면 영성에 대한 만족은 53%로, 인격에 대한 만족은 44%로 줄고, 대신 교인을 관리하고 돌보는 능력에 대한 기대치는 40%로 증가한다고 한다.



목회철학, 그리고 교회의 핵심가치가 영혼을 살리는 진도에 있음을 알도록 교육하도록 하겠다. 그럴 때 지역의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활성화된 지역모임을 통해 지역전도 축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일을 위해 본 연구자가 3장 2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도폭발이 강압적이기는 하지만 16주 동안 성도들로 하여금 강한 전도자가 되도록 훈련시키는 사랑의교회의 전도폭발훈련에 지역장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본 교회에서 전도폭발훈련을 시작하거나 전도폭발훈련이 새생명전도축제와 함께 잘 실행되고 있는 사랑의 교회에 직접 가서 훈련받아야 할 것이다.

#### 다. 지속적인 관계유지의 필요성

최동규는 왕성교회의 태신자전도운동에 대해 제언하면서, 전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관계망 확대 과정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며 인간관계의 그물망이 충분히 뻗어 있지 않으면 전도 사역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했다.<sup>211)</sup> 그러므로 각 지역에서 지역축제를 마치게 되면 지역식구들은 지속적으로 그들과 만나면서 섬기는 일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하며 좋은 관계를 유지 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새가족들을 교회 밖에서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한다. 그럴 때 새가족들이 교회 안에 정착할 뿐 아니라, 저들을 통한 또 다른 전도 대상자들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므로 지속적인 전도사역을 펼쳐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자는 순복음의정부교회의 지역예배 모임이 주일예배의 연장 또는 성경공부하는 모임, 혹은 교제와 나눔 중심에서 벗어나, 제임스 정(James Choung)이 말한 것처럼 폐쇄적인 공동체가 되어 1년이 되어도 새로운 성도가 한 명도 들어오지 못하는 닫힌 지역모임이 아닌, 회복시키는 공동체가 되어 세상의 회복과 치유를 위해 함께 보냄을 받는 지역공동체<sup>212)</sup>가 되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며, 지역전도축제를 통해 영혼을 살리는 사역이 지역모임의 가장 큰 목적임을 강조하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강하고 부흥하는 교회를 지역모임을 통해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211) 김선일, 최동규, “한국 교회 전도프로그램을 진단한다 II 태신자 진도”, 106.

212) James Choung, *뱀킨전도*, 이지혜 역 (서울: IVP, 2009), 270-271.

#### 다. 교회와 교회에서 진행 될 새생명전도축제로의 연결

성도들은 지역전도축제를 위해 최선을 다한 후에는 지역전도축제를 통해 연결된 새가족들을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매달 첫주 총동원전도출석주일, 또는 가을에 있는 총동원전도출석주일(추수감사주일)에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이듬해 4월과 5월에 있게 될 새생명전도축제에 나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이렇게 지속적인 관계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것은 섬김과 희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담당 지역장과 새가족을 전도한 사람은 적어도 6에서 8주 동안은 전도된 사람 가까이서 불신자 또는 새가족이 불신의 문턱을 넘어 마음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열정적인 조연자가 되어 줄 수 있도록 하겠다.

#### 5. 지역전도축제의 전도방법은 성령이 인도하시는 사역인가?

최고의 설교자로 칭송받는 스피전목사는 탁월한 전도자로 혼신의 힘을 다해 전도를 설교하고, 전도를 가르쳤고, 전도를 실천했다고 한다. 스피전목사를 연구한 김두식은 스피전의 관심은 전도였고, 그 전도에 대한 열정은 스피전의 책 *The Soul Winner*'에 잘 나타나 있다고 하면서, 스피전은 전도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정리한다: “첫째, 전도는 하나님의 복음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다. 둘째, 전도는 삶을 통한 감동이다, 셋째, 전도는 성령을 통한 거듭남이다.”<sup>213)</sup> 전도를 “성령을 통한 거듭남”이라고까지 하면서 전도하는 일에 있어 성령 하나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김두식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성령님의 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내 지혜로 안 되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에 의지할 수밖에 없고, 교회당 마당만 밟고 돌아가도록 하면 안 되니까 성령님으로 거듭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며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 성령님의 중요성을 강조한다.<sup>214)</sup>

본 연구자는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중요하다는 것에 절대적으로 동의한다.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은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로 전도하게 하며 전도의 일을 위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도록 하시기 때문이다.

213) 김두식, *전도는 어떻게이다*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6), 49-60.

214) Ibid., 60.

## 제 6 장

## 결 론

영국의 구세군 리서치에서 2004년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1990년대 이후 영국에 열 개의 소그룹 양육 전도프로그램들이 생겼는데, 그들 가운데 가장 전도의 효과가 높게 나타난 프로그램은 지역교회에서 자기들 스스로 시행착오를 통해 직접 개발하거나 기존 프로그램을 지역교회에 맞게 개발한 것이라고 한다.<sup>215)</sup> 그런데 본 연구자가 섬기는 순복음의정부교회에는 다른 교회가 힘들다고 말하는 사역들이 이미 앞 장에서도 언급했듯이, 전도사역과 새가족실 사역, 그리고 중보기도의 사역을 통해 잘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이에 더하여 8년 전부터 시작된 새생명전도축제 사역, 그리고 앞으로 전도의 일을 더 잘 감당하고자 하여 본 논문을 통해 순복음의정부교회내 효과적인 전도 활성화 방안으로 지역전도축제라는 새로운 전도방법이 연구되어 너무나 기쁘게 생각한다. 또한, 지역전도 축제라고 하는 새로운 전도방안을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거나 변함없이 실시할 수 있는 300여개의 잘 조직된 지역과 지역장들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 귀한 일이다.

그러나 전도는 단순히 예수를 믿겠다는 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겠다고 결심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길에 들어서도록 지속적으로 헌신적으로 돕는 사역이라고 할 수 있다<sup>216)</sup>라고 한 것을 기억해야 한다. 또한 “선교적 교회론에 입각한 전도 모델”을 통한 전도방법 또한 필요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것과 관련하여 본 연구자가 이미 앞 장에서 언급했듯이 지난 8년 동안의 새생

215) 김선일, *전도의 유산 오래된 복음의 미래*, 262.

216) Ibid., 289. 김선일은 선교적 교회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선교적 교회론에 입각한 전도 모델은 영접기도를 따라하거나 관념적으로 동의하는 수준의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을 따라 진인적 변화에 들어서며 새로운 공동체에 헌신하는 과정으로서의 회심을 목표로 하게 된다.”

명전도축제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순복음의정부교회를 방문했으나 교회로 초청되어 온 예비신자들과의 미비한 관계형성으로 인해 교회에 정착하는 정착률이 높지 않았던 것을 살펴보았다(매년 전도되고 등록된 새가족들 중 약10-15%의 사람들만 침례 받은 새가족들이 되었다). 실제로 지난 8년 동안 매년 약 1500명의 새로운 사람들이 교회에 전도되어 나왔고, 그 중 절반이상은 매년 진행했던 새생명전도축제를 통한 전도를 통해 교회에 나왔다. 그러나 매년 1000여명의 많은 방문자들 중 교회에 실제로 정착한 사람의 숫자는 약 20퍼센트 미만이었다. 이런 시점에서 본 연구자는 김선일이 강조하는 교회성장적 전도에서 선교적 교회의 전도로 전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한다.

그런 의미에서 본 연구자가 논문을 마무리 하면서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선교적 교회론에 입각하여 순복음의정부교회 성도들이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전도하는 가운데 현재 순복음의정부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새생명전도축제와 함께 앞으로 진행되게 될 지역전도축제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뿐 아니라, 교회에 정착하여 예수의 사람이 되고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고자 하는 새가족의 수가 점점 많아지는 것이다. 또한, 그러한 가운데 성도들은 예수 안에서 자라가고 교회는 성경적 순수함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을 기대해 본다. 김선일이 말한 것처럼, “복음 전도는 무엇보다 그리스도인 개인을 자라게 하고, 교회를 끊임없이 원초적 순수함으로 돌아가게”<sup>217)</sup> 만들기 때문이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노력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John Finney가 말한 것과 같이, 영국교회의 정착을 위한 수고와 노력이 함께 할 때 양육 그룹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은 23퍼센트만 정식 교인이 되었고 양육 그룹에 참석했던 사람 중 72퍼센트는 지역 교회의 정식 교인이 되는 전도의 정착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결과<sup>218)</sup>를 참고하여 지역 공동체를 통한 지역전도축제를 실시하므로 “미스터리온”적인 방법과 함께 “캐뉼그마”적인 사역을 통한 전도와 회심의 역사를 기대 할 것이다.

이에 대해 최윤식은 복음의 씨를 뿌리는 일을 간소화 하거나 단순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그것은 이 새로운 방법을 시작하고 도입하는 쉽지 않을 것이며 또

217) Ibid., 291.

218) John Finney, *새로운 전도가 온다*, 129. Finney는 “양육 과정”은 이미 대집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했다고 추정되는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한 과정이라고 설명한다.

한, 3년 안에 이루어질 것을 1년 6개월, 또는 한 달, 한 주의 사역으로 줄여서 진행할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연구자는 순복음의정부교회의 상황에 맞는 복음적인 전도양육 프로그램 교제와 교안을 만들어 그것을 가지고 전도축제 이전과 전도축제 이후에 지역모임에서 새신자들이 양육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일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특별히 이 새로운 전도방법은 본 연구자가 직접 나서서 성도들에게 전하는 것 보다는 교역자들로 하여금 이 내용을 먼저 잘 숙지하고 진행될 수 있도록 하므로 일반 성도들이 지역모임에서 지역전도축제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전도는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인 것을 알아 철저히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지역전도축제가 순복음의정부교회 안에 실시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앞으로 이 사역이 잘 진행된다고 하면 20-30년 전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을 통해 현재 그 씨앗의 열매를 통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한 것처럼, 앞으로 20-30년 후에 지금 뿌리게 되는 복음의 씨앗의 열매가 다음 세대에서 반드시 그 열매를 보게 되리라고 기대해 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자는 최윤식이 “잠잠한 교회는 세상을 닮게 되어 있고 세상을 닮아가는 교회는 결국 몰락하는 것을 서구 교회가 증명하고 있다”<sup>219)</sup>고 말한 것을 되새기며 본 논문을 정리하는 가운데 성공적인 지역전도축제를 위한 몇 가지 제안을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한다:

첫째는, 매일의 삶에서의 전도이다. 최윤식은 그의 책 *2020-2040 한국교회 미래지도 2*에서 미래에는 교인 한 사람 한사람이 변증에 능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진리 전쟁의 시대가 올 것이기 때문이라고 한다.<sup>220)</sup> 그는 유럽교회와 미국교회가 완전히 무너지기 직전에 나타난 현상은 기독교가 비판을 받고, 유물론적 세계관이 학교에 만연할 때 교회와 성도들이 자신의 신앙과 성경의 진리를 변증하지 못한 일이라고 하면서 “와 보라”라는 말로는 전도할 수 없는 시대에 변증에 능한 교회가 되는 것이 미래의 진리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한다.<sup>221)</sup>

그러면서 그는 “변증은 타협 없는 말씀을 전하는 것과 연관된다”고 하면서 미래

219) 김두식, *전도는 이명이다*, 155-156.

220) 최윤식, *2020-2040 한국교회 미래지도 2*, 134-135.

221) Ibid., 142.

의 시대에 시대를 대비해서 교회는 성경을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교리 교육”이 필요하다. 이는 것을 강조한다.<sup>222)</sup> 무엇보다 성도들이 삶으로 변증하는 삶의 변증이 뒤따라야 한다고 하면서 삶으로 예수님을 변증해야 하며 예수님을 변증한다는 것은 예수의 기준으로 사는 것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예수의 기준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의한다.

미래 교회는 삶의 변증에 능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기준의 재설정’이다. 내가 변증하고자 하는 진리, 복음, 예수의 기준을 세상의 기준, 내가 지키기 쉬운 기준, 내가 이해하는 수준의 기준으로 낮추지 말아야 한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지키기 힘들고 불가능하더라도, 세상과 다른 명령을 하더라도 나를 예수님의 기준에 맞추어야 한다. 그래야 삶의 변증이 시작된다.<sup>223)</sup>

이제는 매일의 삶에 있어서 나의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기준을 따라 사는 삶이 얼마나 기독교를 변증함에 있어서 그리고 내가 믿는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중요한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 우리는 삶이 빠져버린 전도는 전도의 현장에서 소용없는 변화된 시대를 살고 있다. 그러므로 순복음의정부교회의 새생명전도축제의 전도방법이 한 단계 발전하여 지역에서의 전도축제로 이어지고 또한 지역전도축제가 다시 새생명전도축제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도자의 삶이 중요하다. “전도는 다른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는 사역”이기 때문이다.<sup>224)</sup>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의 삶이 비신자들에게 전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 이유는 전도자가 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의 기준으로 사는 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자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한 최고의 방안이며 또한 좋은 관계를 통해 알게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도 예수의 삶으로 변증적인 삶을 사는 전도자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 드리도록 하는 최고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222) Ibid., 135-136.

223) Ibid., 139.

224) 김선일, *전도의 유산 오래된 복음의 미래*, 291.

둘째는, 사랑으로 하는 전도이다. 최윤식은 사랑의 수고를 회복하라고 강조하면서 사랑의 수고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 주며 사랑의 수고가 복음의 다리이고 사랑의 수고가 교회를 지킬 수 있다고 강조한다. 특별히 시대가 원하는 사랑의 수고를 하는 교회가 성장한다고 강조하는데 사랑의 수고는 시대에 따라 변해야 하고 사랑의 수고는 주는 교회가 아니라 받는 '시대'와 '상대'가 원하는 사랑의 수고를 해야 한다고 한다.<sup>225)</sup> 이것을 잘하기 위해서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시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상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살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새들백 교회의 담임목사인 릭 워렌(Rick Warren)은 예수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사랑하셨으며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를 매우 좋아하셨다는 것을 복음서에서 볼 수 있다고 하면서 예수가 “죄인의 친구”(눅7:34)로 불렸다는 것을 말한다.<sup>226)</sup> 그러면서 “사랑하라”는 계명은 신약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고 있는 계명으로 적어도 55번이나 나타나는데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을 끝수 없으므로 먼저 목사가 사랑이 많아야 한다고 하면서 용납적인 분위기를 만들되 사람들의 이름을 외우고 관심을 갖고 예배 전후에 직접 사람들에게 인사하며 사람들을 만져주라고 권면한다.<sup>227)</sup>

무엇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요일4:7-8). 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를 기준으로 사는 것은 예수 충만의 삶이다.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인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관심을 갖고 전도대상자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자는 무엇보다 순복음의정부교회 모든 성도들이 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기준을 따르며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사랑으로 지역전도축제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가운데 전도대상자들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교적 전도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셋째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전도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예수를 변증하는 삶을 살고, 사랑을 갖고 전도대상자의 필요가 무엇인지 관심을 갖고 다가가기

225) Ibid., 163-177.

226) Rick Warren, *새들백교회 이야기*, 김현희, 박경법 역 (서울: 디모데, 1996), 236.

227) Ibid., 239-244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 박수만은 복음전도에 있어서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말의 지혜에 있어도 하나님의 지혜가 따르지 않고, 언변의 화술은 있어도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며, 이해와 인정은 있을 수 있으나 회개와 믿음과 변화의 삶은 없다는 것을 말하면서 성경을 보면, 전도의 힘의 원천은 성령이시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능력 있는 복음의 증인이 되었고 모든 장애를 극복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시켜 나아갔다고 한다.<sup>228)</sup> 물론 전도에 있어서 전도자의 준비와 전략은 필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은 오직 성령 안에서만이 가능하다. 그래서 성령을 받았던 베드로와 제자들 그리고 여러 사도들은 성령 안에서 자신감을 갖고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고 나섰다(행2:14).

이에 대해 Michael Green은 전도가 활발히 잘 수행되고 있다고 해도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 전파되는 메시지가 신약의 좋은 소식 그대로가 아니고 생략되었고, 사용되는 방법이 진부하고, 전도 후의 관리가 소홀한 것을 이야기 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기보다는 능률과 기술을 의지하는, 인간 중심적 작업”이 전체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sup>229)</sup>

그러므로 전도자는 항상 전도가 사람의 일이 아니요 성령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마태복음 10장 19절로 20절에 예수님은 “너희를 넘겨 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 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라고 말씀하신다. 또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는 “성령 없이는 영적인 일을 알 수 없다”고 말씀한다. 하나님의 일인 전도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하셔야 하는 것이다.

마가복음 16장 15-16절에 예수님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고 말씀한다. 또한, 로마서 10장 13절에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한다. 이러한 말씀을 보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받아드리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구원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의 전도를 통해서 시작된다는 것을 잊

228) 박수만, *전도에 프로가 되라*, 37.

229) Michael Green, *초대교회의 전도*, 8.



지 말아야 한다(롬10:14:15). 그러므로 전도자는 전도하는 일을 할 때 항상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가고 가고 있다. 문제는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시간도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다. 최윤식은 앞으로 10년이 한국교회의 마지막 골든타임이 될 것이라고 다음과 같이 진단한다. “한국교회의 미래 방향을 바꾸는 데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은 짧게는 2-3년, 길어야 10년이다. 세월을 아끼라. 앞으로 2-3년이 위기를 막고 미래 방향을 바꾸는 첫 단추가 될 것이다.”<sup>230)</sup> 교회가 외치지 않으면 세상이 소리를 낼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리고 영혼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힘차게 그리고 계속해서 외쳐야 한다.

본 연구자는 논문을 마무리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인 영혼구원을 이루시고자 순복음의정부교회에 전도활성화 방안으로 허락하신 지역전도축제라고 하는 새로운 전도방법을 통하여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신 주님의 비전에 순복음의정부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지금보다 더 힘차게 동참하기를 기대해 보며, 본 논문을 맺는다.

---

230) 최윤식, 2020-2040 한국교회 미래지도 2, 19.

## 부록

## 의정부시 인구 및 세대현황(2015년 7월 현재)

행정기관	계	남	여	계	남	여	성비	세대수	세대당 인구
합 계	431,237	213,069	218,168	100	100	100	97.66	170759	2.53
의정부1동	20,385	10,479	9,906	4.73	2.43	2.3	105.78	10637	1.92
의정부2동	28,326	14,047	14,279	6.57	3.26	3.31	98.38	13283	2.13
의정부3동	13,873	6,974	6,899	3.22	1.62	1.6	101.09	6823	2.03
호원1동	34,783	17,212	17,571	8.07	3.99	4.07	97.96	13609	2.56
호원2동	37,859	18,633	19,226	8.78	4.32	4.46	96.92	13279	2.85
장암동	21,560	10,420	11,140	5	2.42	2.58	93.54	8156	2.64
신곡1동	45,304	22,339	22,965	10.51	5.18	5.33	97.27	16716	2.71
신곡2동	47,838	23,265	24,573	11.09	5.39	5.7	94.68	16572	2.89
송산1동	35,034	17,345	17,689	8.12	4.02	4.1	98.06	13627	2.57

송산2동	46,626	22,766	23,860	10.81	5.28	5.53	95.41	16704	2.79
자금동	30,807	15,110	15,697	7.14	3.5	3.64	96.26	11994	2.57
가능1동	24,775	12,416	12,359	5.75	2.88	2.87	100.46	11183	2.22
가능2동	9,615	4,787	4,828	2.23	1.11	1.12	99.15	4399	2.19
가능3동	10,968	5,538	5,430	2.54	1.28	1.26	101.99	4956	2.21
녹양동	23,484	11,738	11,746	5.45	2.72	2.72	99.93	8821	2.66

## 참고문헌

## 1. 국내서적

- 교회성장연구소 편집부. *새신자 정착모델 베스트 4*. 서울: 교회성장연구소, 2009.
- 교회성장연구소 교회경쟁력연구센터. *한국교회 경쟁력 보고서*. 서울: 교회성장연구소, 2006.
- 교회성장연구소. *태신자 전도, 성공모델에서 답을 찾다*. 서울: 교회성장연구소, 2010.
- 교회성장연구소. “총동원 전도로 전도의 포문을 열다”, *교회성장*, 2006년 3월호.
- 국제 신학 연구원. *여의도순복음교회의 신앙과 신학*. 서울: 서울서적, 1993.
- 김두식. *전도는 어명이다*.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6.
- 김상현. *전도중심교회*. 서울: 프리셉트, 2006.
- 김선일. *교회를 위한 전도 가이드*. 성남: 새세대, 2012)
- \_\_\_\_\_. “복음은 한국의 문화와 어떻게 만나는가”. *목회와 신학*, 2009, 8월호.
- \_\_\_\_\_. “전도의 기로에서 신학에 답을 묻다”. *목회와 신학*, 2012, 11월호.
- \_\_\_\_\_. *전도의 유산 오래된 복음의 미래*. 서울: SFC 출판부, 2014.
- 김선일, 최동규, 문인수. “한국 교회 전도프로그램을 진단한다 II 태신자전도”. *목회와 신학*, 2009, 8월호.
- 김한욱.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서울: 해피데이, 2009.
- \_\_\_\_\_. *원색적 복음*. 서울: 해피데이, 2010.
- 나점일. *전도마을 만들기*. 서울: 교회성장연구소, 2005.
- \_\_\_\_\_. *총동원전도와 교회성장*. 서울: 샘물사, 1992.
- \_\_\_\_\_. *New 전도집중교회로 만들라*. 서울: 두란노, 2003.
- 명성훈. *뒷문을 막아라*. 서울: 크레토, 1995.
- 문인현. “복음전도훈련을 통한 교회성장 방안, 강일교회 목회를 중심으로”. D.Min. diss., Fuller Theological Seminary, 1994.
- 박명배. “건강한 전도사역을 통한 교회성장 연구: 사랑의교회 전도사역을 중심으로”. D.Min. diss., Fuller Theological Seminary, 2007.

- 박수만. *전도에 프로가 되라*. 서울: 교회성장연구소, 1998.
- 육한흠. *평신도를 깨운다*. 재판.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14.
- 이권희. “전도사역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목회전략”. D.Min. diss., Fuller Theological Seminar, 2009.
- 이먼수. “전도사역의 활성화를 통한 건강한 교회 성장, 금곡교회를 중심으로”. D.Min. diss., Fuller Theological Seminary, 2015, 27.
- 이상만. *오이코스전도폭발*. 서울: 기독교신문사, 2002.
- 이영해. *예수님은 어떻게 전도하셨을까?* 서울: 크레도, 2000.
- 장수진. “사랑의교회 대각성전도집회 사역의 실제”. 강의안. 서울: 사랑의교회, 여름 2010.
- 조용기. *영의도순복음교회 성장동력*. 서울: 교회성장연구소, 2008.
- 최동규, 김선일. “한국 교회 안에 잠자고 있는 전도의 역량을 깨워라”. *목회와 신학*, 2009, 8월호.
- 최윤식. *2020-2040 한국교회 미래지도*. 서울: 생명의말씀사, 2013.
- \_\_\_\_\_. *2020-2040 한국교회 미래지도 2*. 서울: 생명의말씀사, 2015.
- 탁석산. *한국인은 무엇으로 사는가*. 서울: 창비, 2009.
- 한국장로교출판사. *전도 프로그램*.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9.
- 한미준-한국갤럽. *한국교회 미래 리포트*. 서울: 두란노서원, 2005, 221.

## 2. 번역서적

- Choung, James. *냅킨전도*. 이지혜 역. 서울: IVP, 2009.
- Events, Don and Doug Schaupp. *포스트모던 보이 교회로 돌아오다*. 장혜영 역. 서울: 포이에마, 2008.
- Finney, John. *새로운 전도가 온다*. 한화룡 역. 서울: 비아, 2014.
- Ford, Leighton. *커뮤니케이션 전도*. 이숙희 역. 서울: 조이선교회출판부, 1993.
- Frazer, Randy. *21세기 교회연구: 공동체*. 차성구 역. 서울: 좋은씨앗, 2003.
- Green, Michael. *잊혀진 다이어나이트*. 주상지 역. 서울: 서로사랑, 2008.

- \_\_\_\_\_. *초대교회의 전도*. 김경진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1984.
- \_\_\_\_\_. *현대 전도학*. 박영호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4.
- Kennedy, James. *전도폭발*. 김만풍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2
- Laurie, Greg. *복음 이렇게 전하자*. 박민희 역. 서울: 드림북, 2008.
- Mittelberg, Mark. *전도 바이러스*. 이용중 역.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02.
- Richarson, Rick. *스타벅스 세대를 위한 전도*. 조종문 역. 서울: IVP, 2008.
- Warren, Rick. *새들백교회 이야기*. 김현희, 박경범 역. 서울: 도서출판 디모데, 1997.
- McKay, William J. *나는 돌보는 전도자*. 배윤호역. 서울: 미션월드, 1998.

Vita of  
Joung Ho Park

Present Position:

Senior Pastor of Full Gospel UiJeoungbu Church, UiJeoungbu

Personal Data:

Birthdate:	December 16, 1971
Birthplace:	Seoul, Korea
Martial Status:	Married to Eun Kyung Ko
Home Address:	109-701 LotteWoosung Apt., Jooggye-1dong, Nowon-gu, Seoul,
Phones:	02-931-9102, 010-2784-9102
Denomination:	The Assemblies of God of Korea
Ordained:	October, 2000

Education:

B. A.:	University of California in Riverside, 1995
M. Div.	Fuller Theological Seminary, Pasadena, 1998
Th. M.:	Fuller Theological Seminary, Pasadena, 2000,
D. Min.:	Fuller Theological Seminary, Pasadena, 2015

Pastoral Experience:

1/2008 to present:	Senior Pastor of Full Gospel UiJeoungbu Church
1/2001 to 12/2007:	Assistant Pastor of Yoido Full Gospel Church, Seoul

1/2000 to 12/2000: Assistant Pastor  
of L. A. Full Gospel Church, Los Angeles

1/1999 to 12/1999: Assistant Pastor  
of Bethesda Full Gospel Church, Anaheim

5/1995 to 12/1998: Assistant Pastor  
of Hallelujah Korean Church,  
Hacienda Heights